

천년 동안 참 많이도 아팠구나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2면

현대불교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당황하지 않는다.
– 본생경 –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7호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음력 11월 27일 · 불기 2555년 · 주간)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14일 원로회의 단독 추천 20분 만에 만장일치 추대
"종단의 화합과 간화선 진작에 매진하겠다"

조계종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3대 종정에 동화사 조실 법원당 진제 대종사가 추대됐다.

원로의원 23명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종정추대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20분 만에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를 제13대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은 브리핑에서 "진제 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돼 곧바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며 "추대식은 현 종정예하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25일 이후 봉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정에 추대된 진제 스님은 덕문 스님을 통해 "산승은 앞으로 우리 종단의 화합과 수행을 위해 원로스님들의 고견을 받들 것이다.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이자 조계종 본체인 간화선을 널리 진작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수락의 말을 전했다.

진제 스님은 별도로 마련한 소감문에서 "우리 인간의 주인, 주체는 정신이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치관이 전도돼 지구상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점점 혼탁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해 이 시대 정신사의 향도자(嚮導者)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모든 국민이 내안의 대자유와 밝은 지혜를 얻을 때, 남과 더불어 참다운 평화를 이루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각자 자기의 직분에 성실한 가운데 '마음 닦는 수행'을 생활화 하자"고 강조했다.

법랍 47년 한국 대표적 선승
내년 3월 26일 업무 시작 임기 5년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요.
진리의 전(廛)을 거두어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

진제 스님은 소감문 말미에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요 진리의 전(廛)을 거두어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大智如愚人莫測 收來放去亦非拘)"라는 게송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조계종은 추대 결의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인례로 진제 대종사를 조계사 대웅전에 모시고 종정 추대 고불의식을 봉행했다.

진제 스님은 '남진제 북송담'으로 회자할 정도로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1998년과 2000년 무차선대법회, 2009년 백고좌대법회를 비롯해 2010년과 2011년에는 신학자 폴니터 교수와 대구와 미국 뉴욕에서 두 차례 종교간 평화대화를 여는 등 간화선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 온 선지식이다.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당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던 향곡 선사와의 법거량을 통해 전법게를 받고 33세에 경허-수월-운봉-향곡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온 임제정맥을 계승했다. 진제 스님은 현재 1971년 해운정사를 창건해 조실을 맡고 있다. 1994년부터 동화사 금당선원, 1996년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도 겸하고 있다.

진제 스님은 〈돌사람 크게 웃네(石人大笑)〉〈石人(석인)은 물을 긷고 木女(목녀)는 꽃을 따네〉와 영문 법어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오픈 더 마인드, 시 더 라이트)〉 등의 다수의 법어집을 펴냈다.

한편,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원로의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이 참석한 종정추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정추대회의는 법랍 45세, 세납 65세 이상의 대종사를 대상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전통이다.

새 종정 진제 스님의 임기는 2012년 3월 26일부터 5년간이다. 관련기사 3 · 31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내 안의 빛을 바로 보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12월 16일 조계사에서 성탄트리를 점등했다. 일주문에 세워진 세 개의 성탄트리는 불교의 참 가지인 생명, 나눔, 평화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가톨릭 이정주 신부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등 각 지역 가톨릭 부제 40여 명이 참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5일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세상의 모든 빛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자기 안의 빛을 바로 보고 그 빛을 더욱 밝혀 그늘진 이웃을 살피자"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천태종 미래를 향하여

22일 구인사서 법요식 등 다양한 문화축제

한국 천태종 중흥조 상월원각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가 12월 22일 오전 10시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행사는 법요식에 ▷다례재 ▷찬탄7박8일 기도정진 ▷동지팥죽 나눔행사 등 문화축제가 더해져 진행된다.

천태종(총무원장대행 무원)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국불교협회 홍두상무이사, 중국 국청사 감원 윤관 스님, 일본 천태종 종기고문 니시오카 료코 등 한 · 중 · 일 불교계 대표들이 참가한다. 다례재도 한 · 중 · 일이 각각의 의식과 절차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돼 동북아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봉축법요식에는 한 · 중 · 일 대표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 등 2만 여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국보 묘탑비에 십자 표시, '충격'



부산지역 사찰에서 불상을 훼손하는 '훼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고려시대 국사(國師)의 묘탑비에서 십(十)자 표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규현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은 11월 22일 페이스북 부루나에 국보 제59호인 고려시대의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가 훼손된 사진을 올리고 "아마도 특정종교 광신도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묘탑비의 높이가 5m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밤중에 사다리를 놓고 날카로운 쇠붙이로 특정종교의 표시를 그려놓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규현 소장은 "특히 이 현묘탑비는 우리나라의 차(茶)문화에 귀중한 명칭이 5곳이나 쓰인 비석으로 우리나라 금석학의 최고의 보배로 꼽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비석"이라고 강조했다.

탑비 훼손 사진을 본 불자들은 "그들의 목표는 오직 천주교와 개신교 국가관뿐이다", "종교인들이 함께 종교평화를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묘살이 하듯 스님들과 뜻있는 불자들이 움막이라도 치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867호 CONTENTS

종단 2
정신대 할머니 수요집회 1000차
태고종 내년 예산 67억원
조선의궤 환수 국민 환영 행사
조계종 새 종정 진제 스님 3
절에서 시작하는 새해 5



팜아트로 만나는 탄허 스님 21

2012 학년도

봉녕사승가대학·금강율학승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새로 지정된 종단 지원 봉녕사 승가대학과 금강율학전문승가대학원은 전통경전의 강독과 수행생활은 물론 실용불교와 불교문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 교육원에서 개편한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율학승가대학원은 통학도 가능합니다.

근현대 대강백 운허스님과 김경봉 강백으로부터 강맥을 이어받고 자운 대율사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은 최초의 비구니 강사, 현대 한국불교 비구니 교육의 기틀을 다진 묘엄 스님의 원력이 깃든 봉녕사에서 자비로운 품성과 지혜로운 안목으로 역사와 사회의 염원에 부응하는 청정한 승가상을 구현할 새로운 승가교육의 장을 열어 가겠습니다.

봉녕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자 격 _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명
- 전형방법 _ 서류 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_ 입학원서, 추천서, 승려증 사본, 건강진단서, 사진 3매
- 원서마감 _ 2012년 1월 12일(木 음. 12.19)
- 면접일자 _ 2012년 1월 13일(金 음. 12.20)

봉녕사승가대학 학장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자 격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명
- 전형방법 _ 서류 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_ 입학원서, 추천서,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건강진단서, 사진 3매
- 원서마감 _ 2012년 1월 12일(木 음. 12.19)
- 면접일자 _ 2012년 1월 13일(金 음. 12.20)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원장 대 우

승가대학 외부교과 및 교수진 시행계획

교과목	교수진	약 력
불교개론	임상희교수	동국대학교 상임연구원
한국불교사	김상현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장
선치료상담	인경스님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중관사상	도용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교수
세계불교사	석길암교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 교수
아비달마의 이해	우제선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교수
선종사	종호스님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장
간화선사상	월암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불교와 여성	조승미교수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불교생태학	우희종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 교수
사찰음식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원 원장
스피치강의	이선미선생님 外	전 MBC·불교방송 아나운서, 현 이선미스피치랩 원장
요가&필라테스	보휘원장님	요가레미안 원장
불교영어	김수희선생님	

율학승가대학원 외부교과 및 교수진 시행계획

교과목	교수진	약 력
초기불교의 계율사상	각묵스님	실상사화엄학림 교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박병기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연구소장, 다문화교육연구소장
법과 현대사회	최재천교수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 영남대 · 전남대 로스쿨, 광운대 겸임교수
대승계경의 연구	지관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불교환경연대 4대강대책위원회 위원장
초기불교 교단생활	자현스님	계율학박사, 조계종 교수아사리
빨리어(빨리 율장)	백도수교수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www.bongny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T 031.256.4127

할머니들의 삶이 평안해지길…



"일본은 배상하라 알겠느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가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열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가 12월 14일 1000회를 맞았다. 할머니들은 줄곧 일본 정부를 향해 공식적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34명의 할머니 중 63명만이 생존한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했다. 불교계와 사회 각계의 모금으로 마련된 정신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대표 월주)에도 9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대사는 들어라. 우리 할머니들이 모두 죽기전에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라. 들리는가 대사!" 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결사추진본부 연대문 발표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연대문을 발표하고 할머니들의 평안한 삶을 발원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분노와 눈물의 한 맺힌 20년, 비폭력 항의시위로 세계 최장을 기록한 세월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 70년 비극의 세월과 참혹한 고통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결사추진본부는 할머니들의 아픔이 개인적 슬픔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양심의 문제라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1000번째 수요 시위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진실한 반성 위에 공개사과와 합당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34명 가운데 이제 63명으로 줄어든 위안부 여성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깊은 존경의 뜻을 보내며 그분들의 삶이 평안해 질 수 있도록 발원 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⑨**

천년 동안 참 많이도 아팠구나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국보 제10호



실상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에 증각 대사가 선종9산의 하나인 실상산문을 열면서 창건했다.

실상사 백장암 남쪽 밑으로 '백장암 석등(보물 40호)'과 함께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이 있다. 이 백장암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됐다.

낮은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각 부의 구조와 조각에서 특이한 양식과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 탑은 탑신의 너비가 거의 일정하며, 2층과 3층은 높이도 비슷하다. 탑 전체에 조각이 가득하여 기단은 물론 탑신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각이 나타난다. 기단과 탑신괴임에는 난간모양을 새겨 멋을 내었고, 탑신의 1층에는 보살상(菩薩像)과 신장상(神將像)을, 2층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상(天人像)을, 3층에는 천인좌상(天人坐像)을 새겼다. 지붕돌 밑면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는데 3층만은 삼존상(三尊像)이 새겨져 있다.

백장암 삼층석탑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된 후, 참 많이도 아팠다. 1972년 5월에는 문화재관리국이 해체복원공사를 하다가 기술부족을 이유로 7군데가 깨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석탑은 결국 1980년 2월 도굴범의 소행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원형을 잃고 만다.

천년의 세월 동안 스쳐간 비바람과 여러 차례의 전쟁, 일제강점기, 도굴군의 만행 등 온갖 수난을 겪어오면서도 꿋꿋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의궤 다음은 왕실의 갑옷 · 투구

문화재환수위 향후 계획 밝혀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앞으로 고종의 투구와 갑옷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2월 13일 남산 한국의집에서 좌담회를 열고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과 이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총재 이상근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해외문화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카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이 참석했다.

혜문 스님은 "도쿄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고종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투구와 갑옷 환수가 다음 목표다"라고 밝혔다. 스님이 말한 투구와 갑옷은 오구라 컬렉션 중 하나인 조선 왕실의 용봉문 투구와 의식 때 의례용으로 착용하는 두정갑옷이다. 혜문 스님은 2010년 10월 경 도쿄에서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제목의 수필집 한 권을 입수했다. 이 책에는 오구라가 사망 직전 자신이 수집한 유물의 수집 경로가 기록돼 있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중 '용봉문 투구'에 관심을 갖던 스님은 〈오구라 컬렉션 목록〉에서 용봉문 투구가 조선왕실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확신했다. 오구라는 이 책에서 "용봉문 투구는 형태나 재질, 장식적인 면에서 볼 때 왕실의 초고위층, 다시 말해 왕이나 왕세자가 착용한 물건임을 짐작케 한다"고 밝히고 있다.



12월 16일 월정사 법륜전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주지 정념 스님이 의궤를 전달받아 불단에 봉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왕실에서 전래되던 갑옷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화재다.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 갑옷이 의례용으로 사용됐으며 형태, 재질, 장식으로 보아 최고위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공식적 환수 요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혜문 스님은 이런 상황을 조선황실의 후계자들의 상속권 주장과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조선왕실의궤환수 과정에서 협력했던 일본 측 인사들도 환수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카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 의원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용봉문 투구와 갑옷의 환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왕실의궤 환수 고유제 및 환영행사가 16일 강원도 오대산 사고와 월정사에서 열렸다. 오대산 사고는 의궤를 약탈 당하기 전에 본래 보관됐던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찬 문화재청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태고종 2012년 예산 67억원 확정

종회의장 도산 스님 선출



태고종의 2012년도 예산이 67억 22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상반기 중앙종회 의장에는 도산 스님(제주 수정사 · 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7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13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의 등과 종회의장 선출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종회의장 선거에는 영우 스님(前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前 총무원 부원장), 도산 스님이 출마해 2차 투표 끝에 도산 스님이 30표를 얻어 당선됐다. 종회 부의장에는 의장 후보였던 혜공 스님과 상하 스님(前 총무원 총무부장)이 선출됐다.

총무원 부원장에는 청봉 스님이 선출됐고, 법규위원장 화경 스님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전승관 국고보조금 재정산의 기체승인 요청안'은 인천 용궁사 토지를 담보로 국고보조금 10억을 반환키로 결정했다. 대출금 상환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이천오층석탑 한일 우호 계기되길

환수위 19~21일 방일 착수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상임위원장 조명호, 이하 환수위)는 12월 19~21일 일본 도쿄 오쿠라슈코칸에 협상단을 파견해 이천오층석탑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파견단은 보문 스님(영월암), 성원 스님(영원사) 등 불교연합회 지도자와 환수위 대표단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훼손된 이천오층석탑의 보수상태를 확인하고 한 · 일 종교대표단 및 청소년 대표단의 환수의지를 전달했다.

종교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국타향 일본에 강제 이송돼 대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손괴를 입은 이천오층석탑이 하루빨리 본국인 한국으로 무사히 귀환되기를 염원한다"며 "탑의 반환을 통해 한 · 일 양국이 상생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승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대한불교원효종 재교부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종무원을 경유해 접수된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적회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2. 접수기간 : **1차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2차 접수기간 : 2556(2012)년 2월 29일 수요일
(2012년 2월 29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3. 접 수 처 : 각 교구종무원
4. 문 의 처 : 02)735-0501, 0502

총 무 원 장　향 운 합장
심의위원장　운 오 합장
심의위원 일륜, 마명, 상묵, 자성, 범일, 성암 합장

간화선 세계화 불교 도약 기대

진제 대종사 종정 추대 소식에 불교단체 잇따라 논평 발표

진제 스님의 제13대 종정 추대 후 불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12월 14일 발표한 환영논평에서 한국불교가 최근 '자성과 쇄신'을 외치며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정예하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당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논평에서 "종단은 안으로는 청정함을 견지하고 밖으로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시기에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통해 종단의 과제를 원만히 헤쳐가고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도 15일 논평을 발표하고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를 환영했다.

대불청은 "1700여 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진제 대종사의 원로회의 만장일치를 추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특히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 수락 법어를 종단이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진제 스님은 종정직 수락 법어에서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만장일치 추대 결정을 한 원로회의 뜻과 진제대종사의 추대 수락 법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실천으로 한국불교계의 허리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만초)는 종정예하의 정법을 위한 종단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청정승가는 논평에서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문화를 척결해야 한다. 종경예경실과 결사본부의 갈등은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의 대표적 사례다. 예경실이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종정예하를 종도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성과 쇄신 결사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살릴 것은 살리는 대안들이 실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또 종단 변화를 위해 ▷중앙종회 계파모임 해산 ▷총무원장 직선제 ▷포교원과 교육원 역량 강화 및 총무원의 행정 전담 ▷계율 준수 및 승가전통에 위배되는 사안 척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새로운 종정예하께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로 진정한 자성과 쇄신의 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종회와 총무원, 종정 예경실 등 종단의 주요 기구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자성과 쇄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추대된 진제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앞에 헌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추대 결의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인례로 진제 대종사를 조계사 대웅전에 모시고 종정 추대 고불의식을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조계종 역대종정

제1대 효봉 대종사	제7대 성철 대종사
제2대 청담 대종사	제8대 서암 대종사
제3대 고암 대종사	제9대 월하 대종사
제4대 고암 대종사	제10대 혜암 대종사
제5대 서옹 대종사	제11대 법전 대종사
제6대 성철 대종사	제12대 법전 대종사

'나의 참모습' 물으면 뭐라 답할건가

다시 보는 진제 스님 법어

바른 수행을 하려면 바른 안목을 가진 스승을 만나야 한다. 지금까지도 분별없이 살아 왔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결론을 봐야 한다. (201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폴 니터 교수와의 종교평화 대화)

수행을 하면 세상과 산사의 생활이 둘이 아니다. 대도를 깨달으면 모든 중생의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리의 낙을 누리는 법이다. 꿈을 깨면 세상사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된다. (201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폴 니터 교수와의 종교평화 대화)

개개인이 세계평화를 갈구할진데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화두를 의심하고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고 온 세상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행하지 않고서 세계평화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201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폴 니터 교수와의 종교평화 대화)

화두가 밤낮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천지가 의심천지가 되면,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됨이니, 이로써 한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국토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 법회)

'참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깨닫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무애자재(無碍自在)하게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종교와 정치제도,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인류의 희망이 '참나'를 깨닫는 데 있고, 미래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 법회)

이번 생에 화두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인류가 생활 속에 꾸준히 참선수행을 닦아 행한다면 마음에 모든 분별과 시비,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히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죽음에 다다라서도 맑은 마음 밝은 정신으로 이 몸뚱이를 옷을 갈아입듯 벗게 되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법회)

"나의 참모습은 과거 모든 성인도 보지 못하고 모든 도인도 보지 못하나니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라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는가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법회)

"선(禪)은 지혜의 보배 칼을 완성해 단칼에 다생(多生)의 무명초(無明草)를 베어 없애는 것" (2005년 5월 범어사 설선대법회)



진제 스님(사진 좌)이 2010년 12월 31일 세계적인 종교학자 폴 니터 교수(사진 우)와 '종교간 평화'를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종정 수락 법어

우리 종단의 원로대덕(元老大德) 큰스님들과 이만여 법려(法侶), 그리고 사부대중(四部大衆) 여러분의 여망으로 종정으로 추대해 주신 데 대해, 산승(山僧)은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전등(傳燈)·승계(承繼)하는 데 불석신명(不惜身命)으로 막중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國民)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불제자(佛弟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 주체는 정신(精神)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物質)이 정신(精神)을 지배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치관이 전도되어 지구상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점점 혼탁해가고 있습니다. 물질(物質)은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精神世界)의 절대적 가치는 영겁(永劫)으로 수용(收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 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 정신사(精神史)의 향도자(嚮導者) 역할(役割)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국민(國民)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불제자(佛弟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안의 대자유(大自由)와 밝은 지혜(智慧)를 얻을 때, 남과 더불어 참다운 평화를 이루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 각자 자기의 직분에 성실한 가운데 '마음 닦는 수행(修行)'을 생활화 합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이념을 넘어 종교를 초월한, 우리 인류정신문화의 정수인 이 선법(禪法)을 수행(修行)한다면, 모두가 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음으로써 인간의 본성(本性)과 우주만유(宇宙萬有)의 진리(眞理)를 자각(自覺)하여 피안(彼岸)과 하늘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차별과 고통, 고뇌와 갈등이 없는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성취하여 나고 날 적마다 큰 지혜(智慧)와 복덕(福德)을 갖추어 만인(萬人)에게 행복(幸福)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지여우인막측(大智如愚人莫測)이요
수래방거역비구(收來放去亦非拘)로다.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요
진리의 전을 거두고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

불기 2555년 12월14일
진제 합장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살아숨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2012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입학자격** _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2011년 가을 수계자까지)
◐**모집인원** _ 사미니과 00명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_ 1)입학원서(운문사 승가대학 종무소 및 운문사 홈페이지)
2)은사스님 추천서
3)본인 사미니증(승려증)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및 최종학력 증명서
◐**준 비 물** _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1년 12월 28일(음력 12월 4일)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_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_ 2012년 1월 1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명성 · 주지 일진

2012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및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2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특 전** _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승가대학원령에 의거해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불교 국가 해외 연수
◐**모집인원** _ 00명
◐**제출서류** _ 1)입학원서(운문사 승가대학 종무소 및 운문사 홈페이지)
2)수행이력서
3)은사스님 추천서
4)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전형일시** _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승가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흥륜

문의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팩스 372-0359 www.unmunsa.or.kr
교통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일 주 문



도문 스님 〈금강경〉 법회 봉행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12월 8일 연천 원심원사(주지 세민)에서 〈금강경〉 상세해설 설법을 했다. (031)834-8467



백담사, 청소년 템플스테이 개최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단기(1개월·4박 5일) 템플스테이를 2012년 1월부터 진행한다. (033)462-5565



일산노인복지관, 어르신 작품 발표회 개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12월 27~30일 어르신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작품 발표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서울노인복지센터, 취업특강 진행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5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열었다. (02)6911-9555



영통종합복지관, 모금행사 진행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 스님은 12월 5~17일 의왕·과천 톨게이트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했다. (031)201-8307



화남출판사 '가위주먹' 출간

화남출판사 방남수 대표는 최근 구광렬 작가의 1967년 발생한 북측 도발과 남측 응징보복 작전을 소재로 한 실화소설 〈가위주먹〉을 펴냈다. (02)3142-4787

정상영 KCC 명예회장,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



KCC 정상영 명예회장(법학과 57학번)이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12월 14일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KCC 정상영 명예회장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여했다.

또, 행사에서는 연기자 고현정(연극영화학과 90학번)씨에게는 '제1회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이 수여됐다.

대한불교조동종 정기총회

대한불교조동종은 불기 2555년 후반기 정기총회를 12월 13일 종정 스님 주석사찰인 양주 보리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연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추진 가능한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공석이었던 포교원장에는 해권 스님, 부원장에 법화 스님, 종회부의장에 혜광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경상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이번에는 청와대서 'Talk'(토크)

직원대상 비공개 특강
시비 가리는 것 중요치 않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자
22일 화쟁리더스포럼서 강연



법륜 스님이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년 특강에서 공직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12월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비공개 강연에 가졌다. 언론의 취재요구에 청와대 측은 스님의 요청으로 공개를 제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사에 따르면 이날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부유해졌음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비현실을 가능으로 바꾼 50~60년대에는 희망이 있었다"며 꿈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또 "젊은이들이 너무 안전한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 현재만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나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작은 실패는 큰 실패를 막아준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스님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집행을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15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 창립15주년 기념감사와 후원의 밤을 열고 "대북지원은 정치적·종교적 이념을 떠나 인간의 상식선에서 바라볼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동포들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후원과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륜 스님은 2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화쟁리더스포럼 송년포럼에서 '화쟁사상과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특강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영적자원 확대가 사회복지 키운다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 펴낸 권경임 회장



"사회복지는 주로 물질적 자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는 글로벌 영성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영성과 영적자원의 개발과 적용이 연구과제가 되리라 전망합니다."

불교사회복지전문가인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최근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 유장춘 교수(한동대 사회복지학)와 공동집필한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신정 刊)에서 영성과 영적자원을 개발해 사회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사회복지 역사가 종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종교 사회복지는 아직 그 위상과 정체성이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를 위해 영성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목하고 종교사회복지포럼을 단체활동보다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연구소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종교 및 일반 사회복지가 인간과 사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성과 영적자원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와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임 회장은 "영성은 종교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교는 영성을 빼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펴낸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에서는 종교계 사회복지의 영성과 영적자원을 고찰하고 나아가 일반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의 통합적 영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영성과 영적자원이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권경임 회장은 ▷제1장 종교 사회복지와 영적자원과 ▷제2장 불교 사회복지의 영성과 영적자원을, 유장춘 교수는 ▷제3장 기독교적 관점의 인간본질과 영성적 사회복지와 ▷제4장 기독교 사회복지의 영성적 체계를, 도승자 교수가 ▷제5장 글로벌 복지사회를 위한 통합적 영적리더십과 제6장 신앙기반 지역사회 기관들의 글로벌 사회 자본을 집필했다.

권경임 회장은 가톨릭대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했고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국제사회복지학회 감사와 한국글로벌청소년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불교사회복지론〉〈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영성사회복지와 청소년개발〉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강남 4구 포교 구심점 마련돼

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 창립…35사찰 하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불교 발전과 포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이하 강남지역 사암연합회) 창립총회가 12월 16일 구룡사에서 개최된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강남 4구의 조계종 사찰 35곳으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7월부터는 강남 4구 대표사찰 주지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구성됐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금강선원 회주 혜거 스님이 고문을,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회장을 맡았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송파구),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강남구),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서초구), 동명불원 주지 덕천 스님(강동구), 법륭사 주지 지유 스님(비구니)이 공동부회장을 각각 맡아 출범했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2012년 주요사업으로 법회 및 문화행사의 공동개최를 통한 상호 교류, 지역단위 불교 발전을 위한 진취적 비전 제시, 지역 포교와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선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가 창립돼 강남4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대전사, 종립학교 발전 기금 쾌척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주지 돈관) 말사인 주왕산 대전사(재산관리인 정덕)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대전사 재산관리인 정덕 스님은 영천 선화여고 장학금 1억원과 동곡학원 후원금 4000만 원을 12월 15일 은해사 도선당에서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동곡학원 장학회 후원회장 돈명 스님, 이대웅 교장을 비롯한 선화여고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은해사는 지난해 9월 학교법인 동곡학원을 설립한 뒤 영천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전사는 지난달에도 청송군에 운영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제10교구 직영사찰로 전환된 뒤 수익금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선재동자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선재의 선물' 캠페인 포장식을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선재의 선물은 겨울철을 맞아 마련된 모자와 장갑을 비롯해 다이어리, 카드, 영양제, 책 등으로 구성됐다. 카드에는 배우 전혜빈씨와 동국대생들의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선재의 선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매년 2000~2500여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선재의 선물은 후원자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하거나, 후원금을 입금하면 동행이 선물을 마련한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선재의 선물을 받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포장식에는 조계종 종무원과 SK네트웍스, 글로비스, 대학생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박기범 기자**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단 등록자(사찰)중 제4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니, 포교사는 당 종단 정관 제6조 및 제8조 종헌, 제1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제적 공고 함.
■ 제적일자 : **2011년 12월 31일**
■ 제적된 자(사찰)는 본 종단 소속 명의로 일체업무 금지, 사찰등록증, 승려증, 포교사증 효력상실.
■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소속 사찰로 사업자등록(세무서)을 즉각 취소 및 년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지.

성 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성 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성 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 재 지
강이석	대비	대천사	A004-012	창원시 마산 자산동	이원구	구산	미륵암	A005-016	창원시 마산 구산면 심리	민명화	금강	금강사	B005-011	대구시 동구 신암2동
김병권	일교	창하함	A004-009	창원시 마산 합성동	유오식	도경	반야선원	A009-054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기인자	대행	이조암	B004-032	창원시 마산 합성2동
김진술	법륜	충효사	A004-007	울산시 중구 반구2동	윤언진	경봉	송암사	A007-031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장춘자	정심	수륙암	B005-015	창원시 마산 구암1동
김창열	주봉	동방포교원	A005-018	창원시 중앙동 58-9	이숙자	설련	천수사	B004-004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정석분	원봉	천왕사	B006-022	창원시 마산 구산면 반동리
김진태	성산	불령사	A007-029	울산시 남구 신정3동	주정련	대원	천불암	B004-006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손실금	묘심	약수암	B005-014	창원시 마산 자산동
김만식	묘봉	국사암	A008-033	울산시 중구 반구2동	이상임	일련	대원암	B004-008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황가오	해광	천광사	B008-037	울산시 동구 동부동
고춘탁	해공	견성암	A009-055	군산시 금광동 165-7	박유선	보현	보현사	B004-007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엄순자	덕수	천지암	B005-013	울산시 남구 신정1동
박원수	일타	약수암	A008-038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	이숙희	수광	대천암	B005-012	대구시 북구 대현1동 205호	어경자	관음	미륵암	B006-026	김해시 부원동
박민태	삼장	미륵사	A004-021	경남 통영시 마수동 494	이종희	연지	용주암	B005-01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황혜숙	송련	원각사	B005-017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서맹호	일륜	도인정사	A008-039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이경호	수행	무학포교원	B007-033	창원시 마산 합성동	신선영	정행	성주포교원	B008-047	창원시 명곡동 100번지
송명학	학봉	혜암정사	A008-032	울산시 중구 학산동	고필금	덕심	용수암	B005-016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하증회	대월	태극암	B008-048	창원시 마산 합성동
송석조	대운	천운정사	A008-044	창원시 마산 석전동	김형봉	원력	장엄사	B006-024	울산시 북구 호계동	남선일	백련	동경포교원	B008-050	日本國 東京部 北區
양만석	일광	일광사	A004-010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김용순	월행	마산미륵포교원	B008-046	창원시 마산 회원2동					
이금석	덕봉	선덕사	A007-028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김영순	월장		B008-044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이상 40명 제적함.

불기 2555(2011)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회

이사장 신용태(법련). 총무원장 강경우(송봉)

새해 맞이 템플스테이 및 성도재일

매년 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각 사찰에서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더구나 2012년 새해는 성도재일과 겹쳐서 불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도재일에는 전국 각 사찰에서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참선과 절 수행 등 참회 정진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성도절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불교 명절이다. 음력으로는 12월 8일이며 부처님오신날 출가일 열반절과 더불어 불교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성도절은 수행의 의미를 강조한 행사를 사원 안에서 진행 한다.

자신의 근기에 맞는 참선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현조)는 마음알기와 나눔, 불교영화 상영, 철야정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새해맞이 타종식 소원지 쓰기 컵초 점등 소원지 태우기 등을 진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에서는 성도재일 철야정진과 선체조, 해맞이 산행 등을 실시하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는 오대산 비로봉 해맞이, 연꽃등 만들기, 소원 탑돌이 등을 준비했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시와 선율이 흐르는 문화의 밤, 팔공산 산행을 마련했으며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타송법회, 약사암 해맞이 산책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하동 쌍계사(주지 성조)에서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참선, 산행 및 독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서산 부석사에서는 해넘이 노을 감상을, 구례 화암사에서는 사찰 예절교육과 화엄사 둘러보기 스님과의 대화 시간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전국 각 사찰에서는 타종, 명상, 떡국 공양 등 새해 첫 날과 성도재일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기범 기자 · 이은정 기자


낙산사 홍련암에서 본 일출모습

인연따라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사찰명	프로그램	참가비	연락처
서울 국제선센터	마음알기와 나눔, 불교영화 상영, 철야정진, 108 다라니 독송, 음악명상, 선 요가, 티테라피 등	1만원	(02)2650-2214
서울 금선사	북한산 일출맞이, 108배 및 명상, 새해맞이 타종식, 참회문 또는 발원문 쓰기	4만원	(02)395-9955
서울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 소원지 쓰기, 자비 동전 모으기, 축하공연, 컵초 점등, 떡국공양, 소원지 태우기	무료	(02)3218-4820
서울 열린선원	성도재일 철야정진, 사마타, 위빠사나, 간화선 수행, 지장정진 회향 및 새해맞이 법회 진행	무료	(02)386-4755
서울 조계사	성도재일 철야 참선, 성도재일 등 모연		(02)732-2183
용인 법륜사	탑돌이, 타종, 새해다짐 108배, 신년다짐, 좌선, 새벽예불, 문수산 해돋이 산행	1만원	(031)332-5702
남양주 봉선사	예불, 발원문 쓰기, 발우공양, 108배, 참선, 차담	5만원	(031)527-1951
남양주 봉인사	상담명상 통해 한해 정리 및 계획세우기, 새벽예불, 108배, 해맞이 산행	5만원	(031)574-5585
안양 선우정사	성도재일 철야기도 정진		(031)426-0408
여주 신륵사	타종체험, 예불, 108배, 자비명상, 촛불재, 차담, 해맞이 소원지 쓰기	5만원	(031)885-9024
화성 용주사	성도재일 철야정진, 참선, 선체조, 108배, 다담, 대중운력, 해맞이 산행	5만원	(031)235-6886
양주 육지장사	쑥뜸 온구체험, 108배 명상, 윷놀이, 떡국공양, 스님과의 차담, 보행 명상 등	5만원	(031)871-0101
용인 화운사	소원등켜기, 모닥불 놀이, 법문 및 참선, 1080배, 새벽예불, 해맞이 산행, 떡국공양	무료	(031)335-2576
강화 전등사	떡국공양, 가족영화 관람, 인절미 만들기, 해맞이 축원, 참선, 삼랑성 해맞이, 다담	6만원	(032)937-0125
고양 흥국사	전통놀이, 연등만들기 및 탑돌이, 특강, 명상, 발원문 쓰기, 노고산 정상 새해맞이, 다도체험	3만원	(02)381-7970
인제 백담사	명상, 윷놀이, 서원카드, 타종식, 떡국공양, 가족 눈사람 만들기	15만원	(033)462-5565
영월 법흥사	소원들 날리기, 꿈주머니 만들기, 108염주꿰기, 새벽예불, 새해타종	6만원	(033)375-9173
평창 월정사	오대산 비로봉 해맞이, 연꽃등 만들기, 소원 탑돌이, 상원사 참배, 차담	5만원	(033)339-6606
동해 삼화사	예불, 컵등만들기, 송년법회, 소원문 작성 및 탑돌이, 타종식, 떡국공양, 망상해수욕장 새해맞이	5만원	(033)534-7676
의성 고운사	철야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120독, 108배, 새벽예불, 참선, 제야의 타종, 등운산 해맞이	무료	(054)833-2324
경주 골굴사	1080배 정진, 동해안 감포바다 해맞이 기도 및 선무도 수련, 선무도공연 관람 등	5만원	(054)775-1689
산청 대원사	약초명상, 나에게 쓰는편지, 지리산 천왕봉 등반, 해돋이	6만원	(055)972-8068

사찰명	프로그램	참가비	연락처
창원 성주사	참회문 및 서원문 작성, 참회법회, 떡국공양, 새벽예불, 해맞이	4만원	(055)262-0108
성주 심원사	예불 및 108배, 소원지 작성, 윷놀이 및 연등만들기, 탑돌이, 소원지 태우기, 새해맞이 타종식	5만원	(054)931-6886
고성 옥천사	이해의 시간, 호흡명상, 저녁예불 및 108염주 만들기, 다담, 별빛포행, 타종식, 해맞이 산행 등	7만원	(055)672-6296
영천 은해사	108참회, 시와 선율이 흐르는 문화의 밤, 타종 및 덕담, 탑돌이, 팔공산 산행, 소원발원	2만원	(054)335-3318
대구 동화사	108배 및 염주만들기, 타송법회, 명상 및 참선, 약사암 해맞이 산책, 다담	5만원	(053)982-0223
구미 도리사	저녁예불, 태조산 등반 일출보기, 떡국공양, 차담	6만원	(054)474-3877
성주 자비선사	좌선 및 차담, 명상, 제야의 종 타종, 새벽 예불, 해맞이		(054)931-8874
하동 쌍계사	휴식형 템플스테이 진행, 차담, 자유시간, 참선, 울력, 산행 및 독서 등	5만원	(055)883-1901
김천 직지사	1080배, 새벽 숲 걷기명상, 해맞이 및 새해발원, 빗자루 운력, 대웅전에서 3보1배 진행	5만원	(054)429-1716
공주 갑사	고구마 · 가래떡 굽기, 죽공양, 촛불공양 및 소원지 소지공양	2만원	(041)857-8981
공주 마곡사	성도재일 철야기도, 타종식, 떡국공양, 해맞이	자유보시	(041)841-6220
서산 부석사	해넘이 노을감상, 새해 타종식, 도비산 새해맞이, 연등의식, 고구마 · 가래떡 구워먹기	3만원	(070)8801-3824
김제 금산사	금산사 말사 망해암에서 해넘이, 금산사 모악산 새해맞이 산행 템플스테이	7만원	(063)548-0048
부안 내소사	소원등 만들기, 타종체험, 탑돌이	6만원	(063)583-3035
해남 대흥사	청년 희망특강, 새해맞이 서원 세우기, 새해타종, 연꽃초 밝히기, 불교영상시연, 두륜산 등반	1만원	(061)535-5775
해남 미황사	참선, 공연, 타종, 새해발원 명상, 달마산 등반, 해맞이	5만원	(061)533-3521
강진 백련사	해넘이 발언, 108배 참회정진, 새해소망쓰기, 다라니기도 및 참선, 타종, 해월루 일출 보기	10만원	(061)432-0837
영광 불갑사	108배 정진, 예불, 산행 및 해맞이, 염주만들기, 떡국먹기	3만원	(061)352-8097
나주 불회사	편백숲 걷기, 법회, 참회문 쓰기, 새벽예불, 서원쓰기, 떡국공양, 덕룡산 등반 새해맞이	자유보시	(061)337-3440
화순 유마사	108배, 좌선, 단청그림색칠, 치유의 길 산책, 연꽃 만들기, 편지쓰기, 차담, 눈썰매타기, 사경 등	5만원	(061)374-0050
동해 삼화사	예불, 컵등마들기, 송년법회, 소원문 작성 및 탑돌이, 타종식, 떡국먹기, 망상해수욕장 새해맞이	5만원	(033)534-7676
구례 화엄사	사찰예절 교육, 화엄사 둘러보기, 예불, 스님과의 대화, 지리산 해맞이	4만원	(061)782-7600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1600년의 역사성을 지닌 한국 전통 불교 의식은 한국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개하는 見機而作形 의식이 정착되어 점차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올바른 어산 법맥을 통한 스승의 가르침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소리와 작법이 존재하여 전통 불교 의식 전수에 장애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원명스님을 중심으로 전통 불교 의례를 보존 · 전승하고 올바른 水陸齋儀를 재현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여법한 불전 예식 봉행과 재 의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대적 요구와 종단 5대 결사에 부흥하여 의식 · 의례의 한글화 작업 및 재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교수사

■ 학장 : 동주원명스님
(어산 · 수륙작법 · 수륙무차평등재 · 천지명양수륙재)
·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
· 재단법인 보리동산 이사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

■ 학감 : 정오스님 (상주권공 · 수류무차평등재 · 한글의식)
·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 대한불교 조계종 한글의례실무위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교수 : 현준스님 (불교무용)
·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 대한불교 조계종 구족계단 예식교수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교수 : 도경스님 (불교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예전공 박사과정

■ 외래교수 : 혜일명조스님
(의식장단 · 의식이론 · 한글의식 · 수륙재연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전공 철학박사
· 불찬범음연구소 소장

교육내용

학과목	교 육 내 용
상주권공 1년차	할향 · 등게 · 삼정례 · 합장게 · 개게 · 헌좌게 · 참회게 · 가지게 · 축원 · 회향성 ·
상주권공 2년차	시련 · 대령 · 관욕 · 신중작법 · 시식
불교의식장단 1년차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 · 굿거리 · 법고 · 동당쇠 · 천수바라
불교의식장단 2년차	사다라니 · 관욕 · 내림게 · 화의재 · 재의식 공통 반주 · 무용 공통 반주
불교무용 1년차	복청게 · 도량게 · 요잡 · 관욕 · 다게 · 천수바라
불교무용 2년차	사다라니 · 향화게 · 괴경 · 명발 · 내림게 · 회심곡
불교의식연구 1년차	현행 불교 의식의 전개 · 천도재 · 영산재 · 예수재 · 수륙재 · 상단시련 · 중단시련 · 하단시련
불교의식연구 2년차	풍백우사단작법 · 찬청가람신작법 · 당산천왕단작법 · 당산용왕단작법 · 예적단작법 · 범왕단작법 · 제석단작법 · 사천왕작법 · 성황단작법
한글불교의식 1년차	예불의례 · 반야심경 · 발원문 · 도량석 · 종성 · 천수경
한글불교의식 2년차	시련 · 대령 · 관욕 · 신중작법 · 삼보통청 · 관음청 · 지장청 · 불공 · 시식
수륙작법 1년차	수륙무차평등재 · 천지명양수륙재
수륙작법 2년차	자기문 · 지반문 · 예수작법 · 영산작법

모집인원 및 편제

과 정	모집인원	편 제
전문과정	00명	2년제
연구과정	00명	2년제
기능과정		1년제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6(월) ~ 2012. 2. 10(목)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및 접수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	2012. 2. 13(월) 14: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 표	2012. 2. 20(월) 14:00	· 본교 홈페이지 · 개별통지
합격자 등 록	2012. 2. 20(월) ~ 2012. 2. 24(금) 17:00	· 납부계좌 : 전통의례전승원 (실명입금 후 연락요망)

지원자격

1. 전문과정의 입학자격은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비구, 비구니로 한다.
※ 은사스님을 시봉할 목적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 사미니의 경우 한 학기의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
2.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학교 전문과정 졸업자 ② 타학교 불교의식 과정 졸업자
③ 불교 의식 및 문화 관련 학과 사회 대학 졸업자
3. 기능과정의 입학은 본 학교 연구과정 졸업자에 한한다.
(단, 개방형과정 신설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재가불자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4. 타 종단 스님도 청강할 수 있으며 수료 후 학장스님의 수료증을 수여함.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입학 원서 2. 승적 증명서 3. 수행 이력서 4. 자기 소개서
5. 이전 과정 졸업증명서 6. 추천서(기본교육과정 학장의 추천서)
7. 연구과정 지원자의 경우, 불교 의식 관련 교육 기관의 졸업 증명서

전형료 60,000원

특 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과정 22학점, 연구과정 24학점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먼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와 졸업 평가(논문 혹은 고사)에 합격한 자로 한정한다.

1.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이 발급하는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장을 학교장의 명의로 수여한다.
2. 연구과정 졸업자는 실기(논문) 평가 후 교무회의를 거쳐 어산어장스님이 이수증을 수여하고 어산법맥을 전수(전강)한다.
3. 재학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4. 졸업자에겐 대한불교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동주 원명 홈페이지주소 : 주소창에서 kbtca.or.kr / 전화 02)2658-3200 / 팩스 02)2063-3344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대동제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한 해동안 갈고닦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어르신들 어깨가 들썩들썩”

서울노인복지센터, 2011 탑골대동제 개최

“덩더쿵 쿵덕~”

매섭게 부는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옷깃을 여민 어르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12월 13~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11 탑골대동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탑골인의 ‘열정’ ‘혈기’ ‘나눔’이라는 테마로 ‘열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열혈노인!’이란 제목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18개 동아리 팀과 21개 문화교실, 2개의 취미교실 소속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문화적 기량을 발휘는 자리였다.

행사는 풍물놀이패 공연으로 시작됐다. 풍물놀이패 어르신들은 다소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지도 선생님의 장단에 맞춰 서로의 눈과 몸짓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연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들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축제를 즐겼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김복순(69) 할머니는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이런 자리를 통해 뽐낼 수 있으니 보람을 느낀다. 생활의 활력도 다시 생기는 것 같다”며 “의미 깊은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형(70) 할아버지는 “올해는 행사에 참가해 보지 않고 관람만 했다. 내년에는 관심있는 문화교실에 입문해 이런 행사에 공연자로 참석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풍물공연 외에도 수화, 포크댄스, 탭댄스, 마임, 연극, 댄스스포츠,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밖에 12월 20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서예, 서양화, 동양화, 시화, 문인화 등 작품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탑골대동제’는 어르신들이 1년간 연마하신 기량들을 발휘하고 그 결과는 보는 자리이다. 아마추어 실력을 이미 넘어 프로수준의 실력을 갖춘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며 “앞으로 ‘탑골대동제’가 노인문화예술의 소통의 장이자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주체적이고 활기찬 신 노인문화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백양사 · 봉녕사, 십시일반 ‘한마음’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가 논산 군법당 건립과 승가교육 진흥을 위한 기금을 쾌척했다.

시몽 스님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해 자승 스님을 친견하고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군법당 건립과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봉녕사(주지 자연)도 승려복지기금을 전달했다.

자연 스님은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해 자승 스님에게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유치원 준공

라오스 지역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세워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7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유치원을 준공하고 희망찬 첫 발을 내딛었다.

2012년 9월 라오스정부와 MOU 체결을 맺은 복지재단은 노후된 유치원 재건축 공사에 착수하고 12월 7일 준공식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공개했다.

라오스 유치원은 대지 1600여㎡, 건물 160여㎡ 규모의 단층 건물로 이번 준공을 통해 쾌적한 교실과 식당, 샤워실, 화장실, 시청각, 기자재 설비 등을 갖춘 교육 센터로 거듭났다. 또한 부지 내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마련돼 추후 라오스 및 동남아 해외 복지사업 운영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준공식에는 종선 스님을 비롯한 시설장 30여 명, 비엔티안 교육위원회 씨수판테파 쑥완 위원장과 찬타부리구 구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준공식에는 라오스 북부 외곽지역에서 시골마을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혜현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종선 스님과 시설장협의회로부터 모은 후원금 약 2000달러를 전달받은 혜현 스님은 “라오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닿는 대로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종선 스님과 시설장협의회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신규 기자재(TV, DVD플레이어, 냉장고, 세탁기 등)와 책 · 걸상 등의 교육기자재를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라오스에는 어릴 적부터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많다. 그나마 운영되는 유치원들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복지재단은 노후한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급식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12월 7일 열린 유치원 준공식 모습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가, 국민을 위해 모범이 되겠다”

공불련, 제7대 회장 취임 및 신묘년 송년법회

“우리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고 받들어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종국적으로는 성불할 수 있도록 제도해 주시오소서. 또한 공무원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들고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해 주시오소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설동근, 이하 공불련)가 12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7대 회장 취임 및 신묘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등을 비롯해 공불련 임 ·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동근 회장은 “공불련이 좀 더 많이 알려져, 더 많은 기간과 공무원 불자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설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불련 회원들이 공무원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 소속 기관, 국가, 국민을 위해 모범적 생활을 하면서도 타 공무원들의 타산지석 돼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자승 스님은 치사로 “설동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설동근 회장님의 취임에 맞춰 공불련이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가길 바란다. 국민들을 마주하면서 불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지니고 공무를 수행하면 불국토의 실현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왼쪽)이 前공불련 회장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진해 공불련 수석부회장이 대신 패를 받는 모습

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하복동 5 · 6대 회장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하복동 前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김진해 공불련 수석부회장이 대신에 패를 받았다.

한편, 공불련은 12월 17일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효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공불련은 2012년 2월 3일 서울 흥천사(주지 정념)에서 임진년 신년 하례법회를 시작으로 2월 3일 제21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8차 임원단회의, 6월 9일 제12차 합동수계법회, 7월 28일 제11차 합동성지순례, 10월 6일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 총회, 사회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포교의 전위병 역할 최선 다하자”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정영균 단장 취임식 및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제7대 단장으로 연임된 정영균 단장의 취임식과 포교사전진대회를 12월 10일 광주 수자타 3층 연회장에서 마련했다. 광주전남 포교사단은 전진대회에서 2012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중앙단 임희웅 단장 몽산 스님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 송광사 포교국장 각안 스님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의 포교사 및 가족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에 이어 제1부 법요식과 시상식,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진대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정영균 단장이 취임사를 통해 단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정 단장은 취임식에 앞서 열린 11월 12일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회의에서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정영균 단장은 “최근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들의 활동과 위상이 활발해 졌다. 이는 많은 스님들의 지도와 신행단체들의 도움, 그리고 포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다”며, “이러한 실적들을 면밀히 분석해 제7대에서는 더욱 알차고 실질적인 포교의 전위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과 더불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총재상에 강막례 중앙단장상에 조왕훈, 최인숙 지역단장상에 나현철 송영섭 주미애 박원철 이용우 김광수 신영우 이춘식 손민사 김정순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감사패는 혜법 스님 독성 스님 정두애 한해련 백영렬 양금례 김종두 이준엽 등에게 수여됐다. 공로패는 임영광 이현하 이재언 장송기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도 전달됐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지역에서 불교를 전하는 포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전국 지역단장 선출을 마치고 7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서울지역단은 11월 17일 계영석 포교사를 신임 단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단은 11월 11일 장한상 포교사 ▷광주전남지역단은 11월 12일 정연균 포교사 ▷강원지역단은 11월 29일 최상규 포교사 ▷인천경기지역단은 11월 14일 전문기 현 단장 ▷대전충남지역단은 11월 18일 강종효 포교사 ▷충북지역단은 11월 14일 김혜작 포교사 ▷부산지역단은 11월 12일 강수대 포교사 ▷울산경남지역단은 11월 12일 이문자 포교사를 각각 신임 단장으로 선출했다. 포교원은 12월 23일 포교사단에 새로 선출된 전국 지역단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은정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KY 300AN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벽 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보살운동 불씨 다시 한번

한국불교학硏, 이기영 박사 입적 15주기 추모학술대회

'사회참여'는 이 시대 불교계의 화두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 틱낫한, 아웅산 수지 등은 세계적인 참여불교운동가들이다.

故 불연 이기영 박사(1992~1996)는 원효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한국 참여불교운동의 토양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박사는 원효사상 발굴과 연구를 통해 원효 대사를 성사(聖師)의 반열에 오르도록 선양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연구원과 구도회, 원효학당 등을 세워 재가불교의 육성 및 보살정신의 생활화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한국 근대 불교학 발전의 선구자 불연 이기영 박사의 입적 15주기를 맞아 고인의 학문적 · 실천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불교학연구원(원장 이민용)은 12월 10일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 대법당에서 관련분야 학자 및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근대성과 불연 이기영의 불교- 불교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불연 이기영 박사 생전의 추억을 나누며 숨겨진 일화를 소개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불연의 사회참여 이론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불연 이기영 박사의 보살사상운동을 조명했다.

유 교수는 "불연은 보살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의 유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지금 이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유승무 교수는 불연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을 예로 들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불연 이기영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현재에도 다양한 신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하의 천년부 원효학당 연화회 지장회 새벽기도회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단체들과는 차별되게 불연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 교수는 "불연은 재가불교지식인으로서 학문적 차원에서 불교적 사회참여이론을 구축한 인물"이라며 "원효의 보살사상 이야말로 그 결실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연의 노력에 의해 원효가 현대에 되살아났지만, 정작 불연 자신은 원효의 위대성에 가려서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유승무 교수는 불연을 "세계적인 참여불교운동가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한국불교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불교는 "서구근대성의 영향으로 인해 초래된 개인고(苦)와 이른바 사회구조적 문제로 불리는 사회고(苦)를 불교적 지혜와 실천을 통해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불교해방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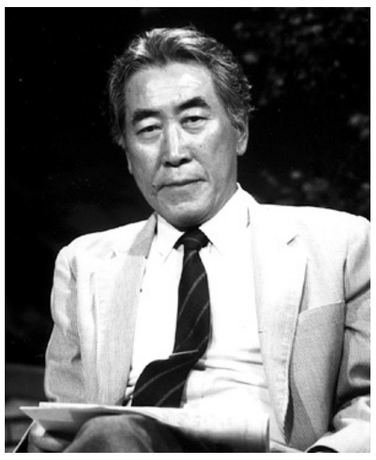
이기영 박사, 원효 관련 논저 57개
한국불교학硏과 원효학당 등 설립해
원효 통한 보살사상운동 선양 주도

이에 앞서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날 '원효연구사의 비판적 검토와 불연' 발표에서 그동안의 원효 연구 발달사를 통해 이기영 박사가 근대불교학에 기여한 바를 되짚었다.

남 교수는 "100년에 이르는 원효 연구는 일본불교에 이식된 1기(1914~1945년)와 정치혼란으로 인한 2기(1945~1960년), 원효 저술의 한글번역이 일단락되는 3기(1960년대 중반), 연구가 다변화되는 현재의 4기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남 교수는 "원효 논저 1000여 편 중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한두편의 논저를 남긴데 비해 불연 이기영 박사는 단행본 9종, 논문 48편을 남기는 등 3기 연구기에 원효학의 토대를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 교수는 "1974년 한국불교학연구원과 1988년 원효학당을 잇달아 설립해 학문적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선양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기영 박사의 연구는 근대


故 이기영 박사

제국주의 일본사관을 뒤짚는 학계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고 해석했다.

남 교수는 "근대 불교학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이식됐는데 이 당시 일본 학자들의 원효 인식은 화엄종 승려로 종학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불연 이기영 박사는 원효를 민족의 위대한 성사로 평가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인 경희대 교수는 "불연 이기영 박사가 원효를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평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기영 박사의 노력에 대한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근대기 불교의 복잡한 과정을 투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성과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기영 박사의 입적 15주기를 맞아 그의 학문적, 실천적 역량을 현대 한국불자들이 이어 받아야 한다"며 학계의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불연 이기영 박사는 …

한국불교연구원의 설립자이기도 한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는 한국불교학의 현대화, 특히 원효사상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였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으로 벨기에 루벵대학에서 불교철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고, 1960년 귀국 뒤 한국불교연구원 창설과 왕성한 저술 ·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 연구, 재가불교 육성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선지식들의 활약 있어 조선불교 이어져

황인규 교수 저서 통해 밝혀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


무학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한국 역사상 불교를 가장 대규모로 탄압했던 시기는 조선왕조의 기틀을 세운 태종과 세종대이다. 태종은 불교세를 고려말의 10분의 1 규모로 축소시켜 불교 침체의 한 계기가 됐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선왕조는 유교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최근 저서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도서출판 혜안 刊)에서 조선시대 불교가 나름대로 사회적 · 종교적 역할을 하면서 불교의 맥을 근대로 이어지게 했던 사실을 주요 고승과 비구니 고승을 중심으로 밝혔다.

황 교수는 "조선불교의 규모나 위상은 현대에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 초 불교탄압시책으로 사찰과 사원전 및 사원노비가 이전의 10분의 1이었지만 그래도 불교세는 대단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전기 한양에 거주하는 승려는 양반출신이었다거나, 〈동사열전〉에 수록된 고승들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그 예이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 건국 후 성리학 절대체제가 바로 수립되지 못하고 17세기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은 고려말에 이어 조선 불교계 고승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말 천축승인 지공의 수제자 나옹혜근은 양주 회암사를 중심으로 불교중흥을 도모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나 나옹과 불사에 동참했던 무학자초는 조선 건국 후 왕사로 책봉돼 그 유업을 계승했다. 무학은 한양 천도시 서울의 주산을 인왕산으로 해 궁궐을 지을 것을 건의하고, 청련사 백련사 삼막사 승가사 등 비보사찰을 지정했다.

태종~세종대에는 국가가 나서 불교를 선교양종 본산체제로 전환시켰고 판사급 고승들이 조선불교를 전개했다.

황인규 교수는 "근대불교의 본산 체제가 일제 불교의 체제만을 수용했다는 외적 요소를 강조하기보다 내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의 고승들은 불교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상소를 하면서 조선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명종대 16년 동안 선교 양종이 부흥할 수 있었고, 승과 실시로 서산휴정, 사명유정 등 고승을 배출할 수 있었다. 황 교수는 "서산 · 사명 등 고승의 배출은 조선 후기 산중불교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후기 불교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의승병을 일으킴으로서 국가 · 사회적으로 재인식됐다. 전쟁 후 조정은

조선왕조의 불교탄압시책으로
사찰 · 사원전 · 사원노비 줄어
고려시대의 10분의 1 되었어도
佛心만은 절대 꺼지지 않았다

서산 등의 공적을 인정해 사당을 짓도록 했다. 해남 표충사, 갑사 표충원, 영변 보현사의 수충사, 밀양 표충사 등이다.

임란 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중국에서 석가 진신사리를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의 능침사찰인 남양주 봉인사에 모셨다. 또, 그 행사를 서산휴정의 동문인 부휴선수와 벽암각성이 주관케 하는 등 조선불교를 위해 힘썼다.

17세기 후 성리학적 세계관이 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영조 · 정조대에도 왕실의 능침사찰 운영은 계속됐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에 이장하고 능침사찰인 용주사를 중창한 것이 그 예이다. 영조는 무수리 출신으로 신분이 천했던 친모 숙빈 최씨를 위해 파주 보광사와 고양 흥국사 등을 능침사찰로 삼았다.

황인규 교수는 "사찰과 왕실의 외적 인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면면히 이어왔던 불교 정신 내지 문화의 소산"이라며 "정신적 배경에는 조선초의 행호, 중기의 허응보우, 후기 환성지안 등 조선시대 순교한 고승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 불교계 고승의 활동에서 비구니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비구니 역할의 터전이 된 것은 왕실 및 귀족 사녀의 도량 '정업원'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해 조선중기까지 폐치를 거듭하면서도 한성 도성불교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태종의 후궁 10여 명은 태종 사후 한꺼번에 출가하는 등 왕후 · 공주 및 왕실녀의 불교신행과 비구니 출가는 조선후기까지 계속됐다. 특히 태조의 딸 경순공주와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였던 경혜공주는 공주 출신임에도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

황인규 교수는 "서산과 부휴 문도를 중심으로 수행과 교육이 지속되던 조선후기, 비구니들은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일조했다. 근대에는 일제불교에도 오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구니들은 해방 후 정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19년 무렵 덕숭총림의 견성암은 한국 최초의 비구니선원이었다. 이곳에서는 유법희 김일엽 김응민 이대영 등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을 배출했다.

황인규 교수는 "비구니들은 근대 비구니 선풍운동과 현대 비구니 불교계의 주체성 · 정체성을 제고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동아시아 프리즘으로 본 한국불교

23일, 동국대 불문연 국제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2월 2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사상가'를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원효의 화쟁론과 종밀의 원융설(양웨이종, 중국 남경대) ▷의상과 법장(김천학, 금강대) ▷원측과 규기(고영섭, 동국대) ▷승랑과 승조(김성철, 동국대) ▷지눌과 도겐(나카지마 지로, 일본 하나조노대) ▷만해와 니시다(허우성, 경희대)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2월 2일(목요일)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단박 깨칠 수 있다!!

석가대학원 수강생모집(2012/1월 개강)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뿐이고,누구나 정진하기에 따라서 단박 깨칠 수 있다!
본각 선교원(석가대학원, 원장 고준환 교수)은 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시각(始覺) 법회(법화경 · 선어록 · 직지인심 중심)를 프리로 실시 합니다.(법사 · 선재 · 아하)

석가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개강과목	교 수	요 일	시 간
마음과 수학	임종록 교수	월	오후 5시부터 (2시간)
불교와 생명과학	우희종 교수	월	오후 7시부터 (2시간)
유마경과 승만경	이원주 교수	화	오후 5시부터 (2시간)
천문지리(동양학)	김문웅 선생	화	오후 7시부터 (2시간)
세계7대종교와 평화	송부웅 선생	수	오후 5시부터 (2시간)
유불선과 한시	최동락 법사	목	오후 2시부터 (2시간)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교수	목	오후 5시부터 (2시간)
영어 법화경	고준환 교수	금	오후 5시부터 (2시간)

■ 교강사 소개

임종록	한양대학교수학과 교수, 탄공법사	최동락	성균관대 유학철학박사 수료, 신선도 법사
우희종	서울대면역학 교수, 선사	김원수	홍익대 명예교수,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김문웅	한국자연지리학회 회장, 법사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본원 원장
송부웅	세계생활종교대학장, 한민족상고사대학장	이원주	전 동국대 교수, 동대부고 교장

※ 불교와 생명과학만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석가대학원은 희망강좌 신청을 받으며, 불교와 동양의학, 깨달음의 징검다리 과정은 개설을 검토중입니다.

▶ 강의는 2개월 단위로 하며(입회비는 3만원, 불경제공) ▶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5만원입니다.

본각선교원(석가대학원) 전화 02)762-484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http://cafe.daum.net/BonGagAcademy

“아이들 희망 없다면 그 고민은 우리 몫”

무등산 증심사 대원장학회 저소득 청소년에 ‘선재의 선물’ 전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을 담아 ‘선재의 선물’을 드립니다.”

무등산 증심사에서 운영하는 대원장학회(이사장 지장, 증심사 주지)가 광주 동구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재의 선물’을 유태명 동구청장에게 12월 9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500만원 상당의 선물은 영양제 모자 장갑 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100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선재의 선물’은 소외된 우리 아이들이 선재 동자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선재 동자는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젊은 구도자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선다. 선재는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선재 동자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증심사에서 3년간 진행하고 있는 ‘무등에서 길을 묻다- 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1차 회향을 맞이해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초청법회가 함께 마련됐다. 올 3월부터 열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무등에서 길을 묻다’는 매월 한 차례 선지식의 지혜로운 법문을 듣는 법회로, 호남과 광주지역 불교 홍포와 대중화를 목적으로 기획돼 진행해 오고 있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겨울은 경제적 소외계층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욱 큰 것 같다. 선재의 선물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이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면, 그 고민들은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대원장학회가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작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왼쪽)에게 중심사 주지 지장 스님이 ‘선재의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

한편, 증심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 대원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대원장학회는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올해 6월에는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한민족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한 고구려 유적탐방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원 장학회는 또 2009년부터 광주 불교계의 장학 사업을 이끌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다시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 보내는지요?

눈과 귀를 열어보면 세상은 백설기를 금방 쪄 놓은 김 서린 모습처럼 맑고 깨끗해 눈부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만들어 놓은 작은 오솔길이 이렇게 큰 길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처음 내딛던 한발이 못내 서툴러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였고 웅덩이에 빠져 신발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가시덤불 같은 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멈추고 싶은 강한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허나 사슴처럼 깊고 순한 눈망울들이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부끄러워 다잡아 온 길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더 힘들고 어렵고 함께 해야 할 동행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베란다를 힐끗 올려다봅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반가운 손동작과 환한 미소가 먼저 들어옵니다.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 주시는 우리의 어르신들이십니다. 하루가 상쾌하고 기분 좋아서 엔도르핀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속의 짐승들도 사람의 마을로 조붓하게 작은 길을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고 사람 냄새가 그리워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데 하물며 우리네 사람들이야 말로해서 뭣 하겠습니까?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내 손길이 필요한 이를 위해 나서는 일이 결코 쉽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내기가 어쩌면 죽은 만큼 힘든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꿈과 희망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작은 길이 보푸라기 같이 가늘고 모양새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훗날 희망의 큰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큰 길을 놓기 위해서는 희망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야 든든한 꿈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랑과 자비의 꽃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참 서툽니다. 야산의 이름 모를 작은 들꽃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달래며 다잡고 연민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산길의 작은 들꽃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멀리 보며 느릿느릿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예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죽을 때까지 애민섭수 하셨듯 붓다께서 파놓은 중생사랑의 그 조붓한 길을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면서 더 큰 길을 내어서 부처님 닮아 가는 길을 해야 합니다.

맑고 순수한 사람은 물처럼 바람처럼 낮은 곳을 선택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계곡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끝내는 다시 우리 곁이 듯 이 순간에도 저마다 맡은바 소임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눈망울 선한 미래의 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가고 새로운 임진년 봄이 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먼 길 가시지 말고 주먹밥이라도 준비해서 쑥과 냉이를 캐러 갔으면 합니다. 맑고 밝은 웃음을 동반해서.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더불어 함께 살아감이 행복의 길잡이

‘익산불교의 밤’ 봉행



신묘년 한해 동안 익산지역 불교활동을 마감하고 임진년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는 ‘익산 불교의 밤’ 행사가 12월 11일 익산 연리지웨딩컨벤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가 주최하고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숭림사 주지) 후원으로 열렸다.

‘익산 불교의 밤’에는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신도국장 법상 스님과 지역 사암의 스님들 및 임희웅 중앙포교사단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종대 익산시의회 의장과 불자 8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일년 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지역불자들을 위로하고 내년에도 익산불교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익산 사암연합회 지광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사회는 심성과 신체의 자질이 저하되고 무책임적인 사고와 무의식적 행위 등으로 귀중한 생명이 천시되고 물질만능주의와 전통문화가 무시되고 있는 오탁악세의 세상이다”며 “익산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진실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성의 밝은 본성이 드러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근 회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행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행에 최선을 다한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엄을 익산에 모셔올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바른 안목 속에서 정견을 통한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지혜와 행복의 길잡이다”고 전제하고 “21세기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역, 종교, 계층을 넘어 모두가 소통하며 긍정적인 사고 속에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 동참한 불자들의 향기로 모두가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은 숭고한 불교사상 실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사상신행단체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1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다.

12월 10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본부장 현지 스님과 흥룡사 주지 상운 스님, 금선사 주지 일명 스님,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관음암 주지 인성 스님 등 임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후원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광주생명나눔은 1년간 활동을 해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헌혈증서 5000매에 대한 전달식을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공로패는 주권기 홍보이사와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수여됐고, 감사패는 박주정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공로상은 김명선 주권기 팬카페, 감사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게 각각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불교스카우트 범어 수효단 창단

제14교구 본사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가 12월 10일 설법전에서 불교스카우트 범어수효 지역단을 창단했다.

이날 행사에서 단위원장에 교무국장 법귀 스님과 단대장에 금정중학교 이석언 법사와 정진완, 여보선, 한재룡 대장의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발대식에서 학생대원 30명은 활동을 서약하는 선서식과 함께 불전에서 점화한 12가지 스카우트 규율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육성단체장 정여 스님은 “화랑도 수련활동과 유사한 스카우트활동을 통해 밝고 희망찬 젊은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세계 청소년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스카우트에서 불교연맹을 만드는데 범어 수효단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린이회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단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아름다운 해조음, 부산전국불교합창제 개최

제3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윤순) 주최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12월 7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 목포 · 진도 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해 대전 · 충남, 충북, 경남 한마음선원,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주, 부산불교 합창단원들이 참가해 아름다운 불교 합창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김윤순 회장은 대회사에서 “부처님께 귀의한 모든 분들이 금정문화회관에서 띄우는 해조음을 듣고 용기 충천하시어 이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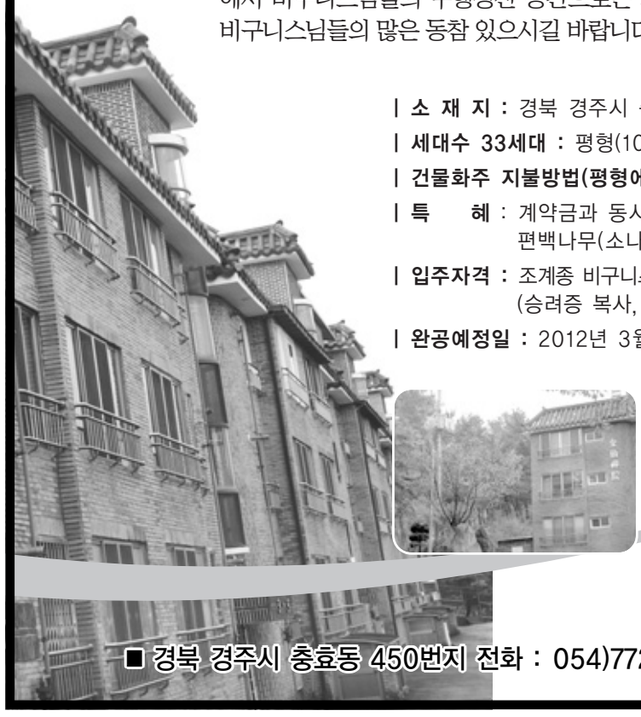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 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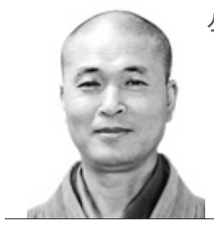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특 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 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언제까지 생각의 노예가 되려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변신보살은 왜 여래의 정상을 볼 수 없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는 사리(闍黎)야."

問 無邊身菩薩 爲什麽不見如來頂相 師云 你是闍黎

무변신보살은 열반경 서품에 동방 불국토에 있는 보살로, 그곳에 있는 일체 보살들을 인솔해 사바세계 석가모니불의 설법을 듣기 위해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무변신보살만 아니라,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도 부처님의 정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전한다.
정상은 석가모니불의 머리 정상에 상투처럼 돋아난 살을 말한다. 마야부인이 아기를 낳고 아기의 정상을 보려고 고개를 들자 정상이 한 자나 더 높아졌다. 고개를 더 높이 쳐들고 그 정상을 보려고 했으나 역시 또 한자나 더 솟아오르는 바람에 기어이 여래의 정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래의 정상은 '여래의 가장 높은 뜻' '가장 깊은 뜻' '참 뜻' 등을 의미한다.
여래의 법은 불가사의해서 그 누구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보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조사라고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너는 단지 너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사리는 아사리의 준말인데 '훌륭한 스님'이라는 뜻이다.

그 누구도 여래의 정상은 보지 못한다. 그대는 다만 그대 자신만 알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때, 그때에 석가모니불의 참뜻을 알 수 있다.

학승이 물었다.
"낮은 일광(日光)이라 하고 밤은 화광(火光)이라 합니다만 신광(神光)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일광과 화광이다."

問 晝是日光夜是火光 如何是神光 師云 日光火光

신광(神光)은 신비로운 빛을 말한다. 옛날 사람들은 에너지원 없이도 빛을 보이면 그것을 신광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유난히 밝은 빛이 나오는 곳이 있기에 가보았더니 알이 있고 그 알에서 아기가 나왔다는 전설에서 신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이나 성인의 몸에서는 자비한 빛인 둥근 일원상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신광이라고 불렀다. 또 야광주는 밤에도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여 신광이라고 한다. 어쨌든 신비한 빛을 신광이라고 하는데, 모를 때는 신광이나 알고 보면 별로 신비롭지 않다. 다 그런 이유가 있다. 특히 선가에서는 이런 신비주의를 배격한다. 철저히 인간주의이고 자연주의이며 법칙주의이다.
그런 선사에게 신광을 물으니, "신광? 그런 것이 뭐 그리 신비하냐? 일광(日光)과 화광(火光)을 보아라. 얼마나 사실적이고 신비하냐? 망망한 대우주에 떠 있는 일광, 저런 빛이 바로 신광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신광 같은 것에 유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신비주의를 좇는 사람들이 새겨 들어두어야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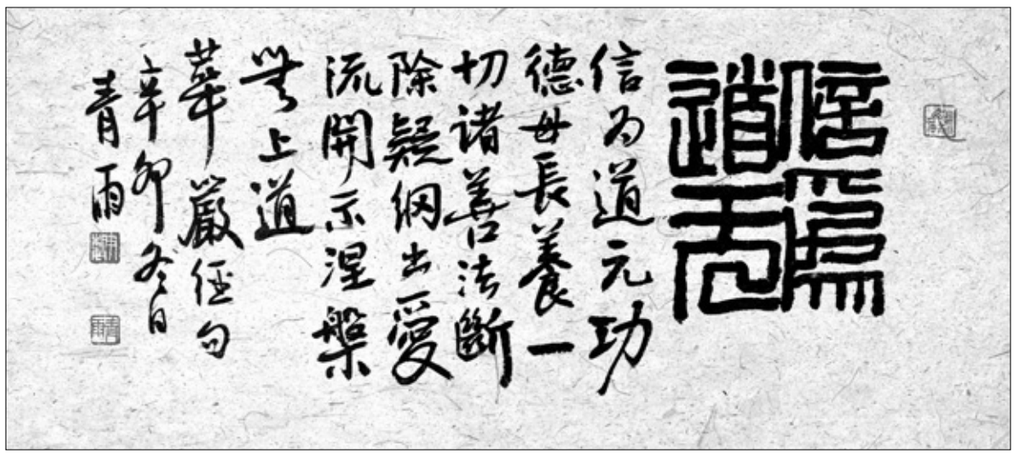
학승이 물었다.
"딱 알맞게 질문한 곳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그러졌느니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질문하지 않는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까 그 일구(一句)에서 알아차려라."

問 如何是恰問處 師云錯 云如何是不問處 師云向前一句裡辨取

가장 적합한 질문은 곧 어그러진 것일 수밖에 없다. 또 단 한 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또한 어그러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리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기쁨과 슬픔을 내는 당사자이다. 부처님은 주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평온한 마음을 쓰다가 가지만, 중생은 생각의 노예가 되어 마음이 어지럽게 끄달리다 생애를 마친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화엄경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신위도원공덕모 장양일체제선법 단제의망출애류 개시열반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의 좋은 일들을 길러낸다.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며 열반이라는 최상의 길을 열어 보인다.

養: 기를 양
諸: 모두 제
斷: 끊을 단
除: 덜 제
疑: 의심할 의
網: 그물 망
涅: 개흙 열
槃: 쟁반 반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안반수의경

선정의 실천방법을 설한 경전

선경류에 속하는 경전군으로서 불도수행의 기본이 되는 선정의 실천방법이 잘 설해진 것으로는 〈안반수의경〉을 비롯해서 주로 아비달마의 여러 부파에 속한 것들이 많다. 여기에는 간혹 대승적인 경전도 포함된다. 특히 〈음지입경〉과 같은 경우는 후대에 법수(法數)와 같은 형식이 포함돼 있어 일정한 수도체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선경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역출자들의 개인수행 경험과도 같은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중국에서는 천태종의 지관법문과 중국선종의 실천체계에 밑거름이 돼 왔다. 일례로 오정심관으로 불려진 안반수행은 5종의 수식(數息) 부정(不淨) 자심(慈心) 인연(因緣) 염불(念佛) 등으로 깊이 뿌리내렸다. 이후 선법의 호흡에서는 〈안반수의경〉의 수행법이 중시됐다.

마음자리 관찰범위를 확대
들숨 · 날숨 염하는 수식관
호흡법부터 효능까지 설명

안반(安般)은 안나반나(安那般那)로서 안나는 입식(入息)이고, 반나 곧 안반나(安般那)는 출식(出息)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나반나념(安那般那念) 또는 수식(數息)이라고도 한다. 출입식으로 선정을 일으키는 것을 안나념(安般念)이라 한다. 이것은 호흡을 중심으로 점차 그 관찰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안나반나 호흡법에 관해 그 수행방법과 효능에 대해 설한 것이 〈안반수의경〉이다. 본 경전은 〈불설대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 〈대안반경〉 〈안반경〉 〈수의경〉이라고도 불리운다. 후한시대 안세고의 번역으로 안반 곧 오정심관 가운데 특히 수식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나곧 출식과 반나 곧 입식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산란함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수식(數息) · 상수(相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 등 여섯 가지로 상세하게 상 · 하 2권에 걸쳐서 설하고 있다.

그런데 경설에 약간의 혼잡한 점이 보이는 것은 본 경전의 후서를 붙인 곳에 경문과 주(注)를 합해서 설명했기 때문이다. 경전의 제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표현된다.

이를 보면 이 경전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

	안(安)	반(般)	수(守)	의(意)
			도(道)	
1	신(身)	식(息)	금(禁 :不犯戒) · 호(護 :遍護一切無所犯)	도(道) · 식(息)
2	생(生)	멸(滅)	도(道)	인연(因緣)
3	수(數)	상수(相隨)	지(止)	
4	염도(念道)	해결(解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不墮罪]	
5	피죄(避罪)	불입죄(不入罪)	도(道)	
6	정(定)	막사동요(莫使動搖)	의(意)를 산란하지 않도록 한다[莫亂意]	
7	의(意)를 다스려 무위를 터득토록 한다[御意至得無爲]			
8	유(有)	무(無)		염유부득도(念有不得道) · 염무부득도(念無不得道) · 불념유(不念有) · 불염무(不念無)
9	본인연(本因緣)	무처소(無處所)	본래 온 바가 없음을 알고 소멸해도 처소가 없음을 아는 것[知本無所從來,知滅無處所]	
10	청(淸)	정(淨)	무(無) · 활(活)	위(爲) · 생(生)
11	미(未)	기(起)	이미기(已未起) · 이의기(已意起) · 이기의(已起意)	
12	수오음(受五陰)	제오음(除五陰)	각인연(覺因緣) · 무소착(無所著)	

경전제목 안반수의에 대해 설명한 도표

안반수행은 5종의 수식(數息) 부정(不淨) 자심(慈心) 인연(因緣) 염불(念佛) 등으로 깊이 뿌리내렸다. 이후 선법의 호흡에서는 〈안반수의경〉의 수행법이 중시됐다.

안반(安般)은 안나반나(安那般那)로서 안나는 입식(入息)이고, 반나 곧 안반나(安般那)는 출식(出息)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나반나념(安那般那念) 또는 수식(數息)이라고도 한다. 출입식으로 선정을 일으키는 것을 안나념(安般念)이라 한다. 이것은 호흡을 중심으로 점차 그 관찰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안나반나 호흡법에 관해 그 수행방법과 효능에 대해 설한 것이 〈안반수의경〉이다. 본 경전은 〈불설대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 〈대안반경〉 〈안반경〉 〈수의경〉이라고도 불리운다. 후한시대 안세고의 번역으로 안반 곧 오정심관 가운데 특히 수식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나곧 출식과 반나 곧 입식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산란함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수식(數息) · 상수(相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 등 여섯 가지로 상세하게 상 · 하 2권에 걸쳐서 설하고 있다.

그런데 경설에 약간의 혼잡한 점이 보이는 것은 본 경전의 후서를 붙인 곳에 경문과 주(注)를 합해서 설명했기 때문이다. 경전의 제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표현된다.

이를 보면 이 경전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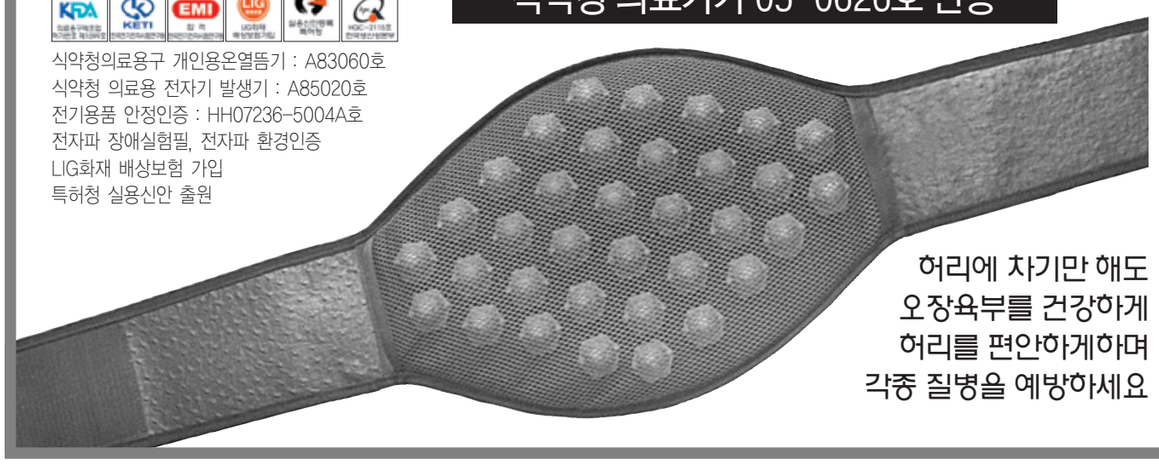
곧 호흡이 들고 나는 것과, 그 호흡을 통해 마음이 머무는 곳을 분명히 잊지 않고 의식해 여일하게 수행해 나아가게끔 하고 있다. 이 안반수의에서는 다시 열 가지 지혜 곧 수식(數息) · 상수(相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 · 사제(四諦) 등을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반수의의 중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제를 제외한 앞의 6가지이다. 이 6가지에 의해서 마음을 제어하는데, 각각 수식은 차의(遮意), 상수는 의(意), 지는 정의(淨意), 관은 이의(離意), 환은 일의(一意), 정은 수의(守意)를 말한다. 다시 이것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수식은 사념처이고, 상수는 사정근이며, 지는 사여의족이고, 관은 오근과 오력이며, 환은 칠각지이고, 정은 팔정도로서 〈37조도품경〉이 설한 것과 상응한다.

안나반나념삼매란 입식 내지 출식의 염과 함께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한적한 숲 속 또는 나무 아래나 빈 집 등에서 결가부좌하여 몸의 자세를 곧게 하고 사념을 전면(前面)에 둔다. 그리하여 정념으로 다음과 같이 출식하고 입식을 한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16가지 안반념은 출식과 입식을 분별하고 확충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정형화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념처경〉과 〈염처경〉 등보다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안반수의경〉과 〈수행도지경〉에서는 위의 16가지를 16특승(特勝), 16승(勝), 16승행(勝行), 16특승행(特勝行), 16안반나행(安那般那行)이라고도 하여 출입식을 염하는 16가지의 관법 곧 수식관을 확대해 불정관법이 소극적인 측면임에 비하여 특별히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특승이라 불렀다.

가령 파환승(破患勝)의 경우에 부정관은 다만 탐욕을 파하는 데에 지나지 않지만 파환승은 탐욕만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를 파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번뇌는 악각(惡覺)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출식과 입식을 염하여 그 악각을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지 단결승(斷結勝), 관광승(寬廣勝), 미세승(微細勝), 견고승(堅固勝), 조정승(調停勝), 소생승(所生勝), 소이승(所異勝) 등이 모두 부정관법에 있어서 그 뛰어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 여섯째인 조정승은 이 수행법에 있어서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15,000원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 해답 있어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2)

상좌부불교의 전통은 방어전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고 불살생계를 확고한 규칙으로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평화주의에 근접해 있다. 대승불교, 특히 동아시아의 대승불교는 정의의 전쟁론과 조건적 평화주의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대소승의 어떤 교설에 의해서도 전쟁에 참여하고 무기를 드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며 방어 전쟁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결국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을 만드는 입장이다. 또 다른 쪽은 오늘날의 전쟁이 개인과 집단의 존폐만이 아니라 국가와 그 속의 종교마저도 파괴하기 때문에 침략자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막기 위해 불교인이 방어 전쟁에 그리고 그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불경에는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양쪽의 주장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붓다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무엇이 정법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불경의 내용 중에서 붓다의 교법을 가려내려면 암베드카르가 세운 기준에 비춰보면 된다. 그것은 1)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2)인간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인가 3)모든 사항을 명확한 것과 불명확한 것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견해를 후자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붓다의 특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붓다는 교조적 규칙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폭력(Ahimsa)과 불살생을 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세상에는 예외가 없는 규칙이란 있을 수 없다. 현실세계에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처하는데 있어서 비폭력, 불살생이라는 가르침 하나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관되게 비폭력 불살생으로 대처하는 것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원래 '최고의 법으로서의 아힘사'(Ahimsa PermoDharma)는 자이나교에서 가르치는 극단적 교의로서 붓다의 교의는 아니다. 이 점을 갈퉁(Johan Galtung)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선 불교는 자이나교에서 주장한 아힘사의 개념을 다른 생명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비와 선행의 개념으로 재해석했으며 아힘사와 정의(justice)를 연계시켰다. 그럼으로써 불교에서 아힘사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가치를 갖게 됐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특정한 존재와 같은 몸으로 보게 되며 서로 연결된 사건들의 연속인 세계에서 다른 존재를 상관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인간 존재 사이의 상호연결을 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불교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의 관계라는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

아힘사에 관해 붓다는 "다른 생명의 살생을 원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이는 아힘사의 원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붓다에게 있어서 아힘사는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힘사에 대한 붓다의 입장은 '살생하려는 의지'와 '살생할 필요성'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붓다는 살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살생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살생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의지로 살생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다.

아힘사에 관한 이러한 붓다의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지켜야 할 건전한 도덕적 교의이다. 붓다 당시 브라만교는 살생의 의지를 허용했고 자이나교는 무조건 살생하지 않을 의지를 강조했다. 붓다는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중도를 유지했던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붓다는 원칙(principle)과 규칙(rule)을 구별했다. 붓다는 아힘사를 원리이며 생활방식으로 선포한 것이지 교조적 규칙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불가피하게 살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다. 반야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는 사람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 그러나 교조적 규칙은 그렇지 않다. 교조적으로 되면 사람이 규칙을 파괴하거나 규칙이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둑이 눈앞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있는데 불살생을 교조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규칙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비폭력과 불살생을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도적이고 불필요한 폭력과 살생을 피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붓다의 정법(Saddhamma)이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해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지혜를 담고 있고 선악이 늘 대치하고 있는 현실세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분명히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과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호국불교는 불교가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호국불교의 논리

한국에 불교가 도입된 것은 외침을 막고 나라가 편안하며 민생이 안정되기를 기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의 언급에서 볼 수 있다. 법흥왕의 뒤를 이은 진흥왕은 그 뜻을 받아 불법을 철저히 신봉하고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는 고구려를 쳐서 10부를 취하고 고구려의 고승 혜량을 데려와 신라의 승통으로 삼고 호국불교의 의식인 백고좌강과 팔관회를 실시해 한국불교가 호국불교로 발전해 가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묘법연화경〉〈인왕반야경〉〈금광명최승왕경〉 등 〈진호국가삼부경(鎭護國家三部經)〉은 나라를 진정하고 수호하는 삼부경이란 뜻이다. 곧 국가의 위난과 재액을 소멸하고 적을 항복시켜 국가를 태평하고 부강하게 위한 목적으로 읽는 경전이라는 것이다.

호국불교의 기본원리는 '호법(護法) 즉 호국(護國)'라는 것으로 불교의 정법(正法)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 과보(果報)로 국가를 안온하게 지키고 민생이 쾌락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호국 관련 경전에 나와 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조계종 군종법사들

호국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국왕이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하고 불사(佛事)를 크게 일으키면 국토가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된다.

② 국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보호되고 비법으로 다스리면 나라가 혼란하고 위태해 결국 망한다.

③ 자주 모여 국정을 의논하고 예와 의를 숭상하는 등 7불쇠법을 지키는 나라는 어떤 적도 침범할 수 없다.

④ 국내외를 어지럽히는 적은 죄 없는 백성을 해하고 학대하는 것이므로 무력으로 백성의 고통을 구해줘야 한다.

⑤ 정법을 지키고 호국의식을 행하면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이 지켜줘 외침과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 중에서 ①② 항목은 〈반야경〉을 읽고 의식을 행하며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호국이 된다는 교설은 정법을 존중하고 정법으로 다스리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어느 국가든지 자유, 평등, 평화, 우애 등 붓다의 정법을 받아 지녀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논지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덕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오늘날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치국의 원리이므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국왕들이 불교적 국왕의 전범인 전륜성왕을 본받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④번은 7불쇠법(나라가 쇠퇴하지 않게 하는 일곱가지 법)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면 어는 국가도 이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근본임을 설하고 있어 치국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⑤번은 붓다의 힘과 붓다의 정법을 지키는 여러 신장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정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에 대한 믿음이나 초자연적 것 것에 대한 믿음은 불교에서 정법이라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열거한 비법에 해당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④번 국내외 적이 백성을 위해함으로 무력으로 구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부분에서 대승열반경의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도 좋다. 그것은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교설과 같은 맥락이다.

호국불교는 이러한 교설에 의해 정당화돼 왔다. 신라 원광법사는 불교의 계율을 세속 생활에 적용하여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말하면서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하라"(殺生有擇)고 함으로써 세속생활에서 특히 국가 방위를 위해서 살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원래 계율은 붓다가 제정하는 것인데 원광은 스스로 살생유택을 포함한 세속오계를 제정했다. 이는 한국불교가 소승계율이 아니라 대승보살계 정신에 따르는 전통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천구(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7)

들뜸을 진정 시키는 사마타

샴(śām)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는 사마타(samatha, Sk. śāmatha)이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용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위빳사나(vipassanā, 觀)와 대응하는 사마타(samatha, 止)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아디까라나-사마타(adhikaraṇa-samatha)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다툼을 진정시켜 없애는 멸쟁(滅諍) 혹은 지쟁(止諍)으로 번역된다. 셋째는 산띠(santi)나 산따(santa)와 같이 번뇌를 소멸한 상태를 말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열반(涅槃) 혹은 깨달음(悟)의 경지를 의미한다.

위빳사나와 대응해 쓰이고 있는 사마타의 용례와 의미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마타(samatha, 止)와 위빳사나(vipassanā, 觀)는 초기경전에서 같이 다루어진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영지(靈知)의 일부이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위빳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위빳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無明)이 제거된다."(AN Ⅰ, p.61)

"나는 자기 내면의 마음이 사마타(cetosamatha)를 얻으면 증상혜법(增上慧法)의 위빳사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구들은 선법(善法)에 머물면서 모든 번뇌를 멸진(滅盡)시키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AN Ⅴ, p.100)

이른바 사마타란 마음(citta)을 닦는 것이고, 위빳사나란 지혜(paññā)를 닦는 것이다. 사마타를 닦으면 탐욕(貪欲), 즉 정의적(情意的) 번뇌를 떠나게 되며, 위빳사나를 닦으면 무명(無明), 즉 이지적(理智的) 번뇌를 떠나게 된다.

또한 약간 후대에 성립된 〈무애해도(無礙解道)〉에서 사마타란 심일경성(心一境性, cittasekaggatā)으로, 사선사무색정(四禪四無色定)에서 모든 장애나 마음 작용(尋伺)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반면 위빳사나는 무상관(無常觀)·고관(苦觀)·무아관(無我觀)을 말한다.(Paṭisambhidāmagga, pp.97~98, 172)

한마디로 사마타는 넓은 의미에서 선정(禪定) 가운데 정(定)에 해당되고,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에서 정(定), 즉 증상심학(增上心學, adhicitta-sikkhā)에 해당된다. 반면 위빳사나는 정(定)과 밀접하여 떨어질 수 없지만, 증상혜학(增上慧學, adhipāññā-sikkh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마타는 마음을 닦는 것이고, 위빳사나는 지혜를 닦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에 있어서 두 가지는 병행해서 닦아야 한다. 이를테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선정(禪定)은 불가능하고, 선정의 성취 없이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그에게 열반은 진정 가깝다."(Dhp. v.372) 이와 같이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에서도 "사마타와 위빳사나의 두 법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MN Ⅲ, p.289)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빳사나와 관련된 사마타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들뜸(掉擧, uddhacca)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불율의(不律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율의(律儀, saṁvara)를 닦아야 한다. 방일(放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방일(不放逸, appamāda)를 닦아야 한다."(AN Ⅲ, p.449)고 되어 있다. 들뜸, 즉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켜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사마타는 정(定), 즉 증상심학(增上心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마타는 어디까지나 수행도(修行道)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써 결코 구극(究極)의 깨달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사)한국불교 정토종 종회의장 설정스님께 질문합니다.

인천 계산동 덕수사 주지스님이신 성절스님 저 홍보살(윤표)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살아온 것은 당신(스님, 한보살,덕수사총무, 박보살)들이 나를 위하여 행동하였다는 말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 할 때가되어 이글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고 있는 스님을 저에게 소개하여 줄때는 잘살라고 소개를 하여주고는 불과 한 달도 안되어 헤어지라고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목스님께는 "홍보살이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이야기 하고 나에게는 스님에게 가면 고생을 안한다고 이중적인 말로 이간하면서 신을 먼저 받으라고 한 이유가 고작 스님의 신분으로 신도를 무당(박보살)에게 몇 푼의 돈에 매매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것입니까? 또 나는 모른다? 하고는 군자의 위선 뒤에 숨어 변명을 하고 싶은지요. 또 보살이(한 총무보살) 하는 일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여자 뒤에 숨고 싶은신지요. 아니면 나는 몸이 아파서 잘 모른다고 병 뒤에 숨고 싶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로 스님의 신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위선과 거짓말로 망쳐 놓고는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는 못 할 망정 "모든 것이 여자 한 사람때문에 스님들의 우정도 잘못 되고 스님도 망신들 당하였다고 말하지요" 저 때문입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시지요? 스님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꾸민 일을 모두 저의 잘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스님과 한 보살이 소개한다고 야단을 피워 소개를 받아서 서로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면서 소개를 잘못 하였다고 야단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라 하고 신을 받는 다고 하였으니 신을 빨리 받으라고 서둘러서 제가 신당을 꾸밀 돈도 능력이 없다고 하자 박보살(무당)이 신을 받고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하였지요? 스님도 알고 있지요. 박 보살 집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방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것도 부부가 함께 자는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하는 저는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지 한번 생각을 하여보세요. 어찌 하든지 스님(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그 악령속에 넣어 두고는 제가 남자 관계가 많이 있고 사생활이 매우 복잡한 보살인지 몰랐다고 세목스님께 이야기 하였지요? 그리고 스님이 중국을 다녀와서 나에게 한 모든 이야기도 삼자대면에서 그것을 외면할 목적으로 "내가 그랬나" 하였지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이야기한 것이라 분명히 답을 하였지요. 그때는 인정을 하고는 지금은 또 아니라고요? 군소종단의 종회의장이고 사찰 주지스님 이라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그리도 잘합니까. 그리고 신을 받는 날짜를 모른다고요? 한 보살은 직접 굿당에 와서 보고 당신은 수시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보고 받고는 모른다고 말합니까? 무당(박보살)은 내가 강화에도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스님도.

그리고 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어찌 침묵하시는지요. 내 돈은 그냥 먹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빨리 보내세요. 나는 무당(박 보살)에게 총 천칠백오십만원(17,500,000)주고 그중에 칠백만원 (7,000,000)을 한 보살(총무)과 함께 은행에 가서 찾아서 주었는데 그 돈이 내가 피땀으로 벌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남자와 남자끼리 대화한 말을 박보살 한보살에게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 하는 스님이 또 모르는 일이라고 위선 뒤에 숨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몇년 동안 사귄 도반을 배신하고도 뻔뻔하게도 자신의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정당화 하려는 설정스님을 고발 등 법에 호소할 것입니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또 이야기 하니 변명을 하고 싶으면 하시지요. 나는 공개된 장소면 어디라도 갈 것이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 마당에 내가 무슨 말을 못 할까요. 이것도 모두 당신들이 거짓말로 내가 피해를 보지만 두번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꼭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에 호소할 것이니 그때 보도록 하지요.

2011년 12월 16일 홍 보살

21세기 최대이슈 건강 부귀 장수하여 120세 살수있는 도전! 천지창조 대일여래, 부처님을 탄생시킨 화룡신선님의 도법의 잣대로 도인 신선 황제를 탄생시키는 경신도통 신묘년 루진통 및 2012년 임진년 대운맞이 대법회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대자연의 이소식은 도를 통한자만이 아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즉, 피라미트인 생명인 것이다.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며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신묘년 2011년 12월 30일 ~ 31일 루진통 경신일 자신이 도통하여 성불 받는 것이고 만장만상아율사 되는 것이며 천지개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 천장지비는 비부자요 비부자는 불용이니라 욕다즉패안이요 욕서즉개안 광명이로다. 지자는 능자요 부지자는 유안부지니라. 천왕포룡이며, 만장 아율사로 억조창생이니라. 만불조정이요 사불범접이며, 천탈사기하니 사기자멸이니라. 이시대에 이 소식 아는 자는 도통군자와 만장만상 아율사이니라.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민족의 얼과 혼으로 효도한자만이 무궁조화를 부리는 초능력을 얻어 불가사의한 힘으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시대에 그대를 초대하오니 동참하시여 생명의 자리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인공이 들어 다니는 현관을 찾아 견성득도하여 화룡신선 천마신공의 잣대를 얻어 만조백관 만인이 창달하는 루진통으로 부귀장수 건강 대운으로 120세에 도전하시어 일류 스승 되소서.
여래후 오백세 동안 방편 불교로 참선 염불 독경 정진 수행으로는 성불했다 하더라도 귀신마장에 지고마는 것은 현관인 자성을 모르기에 지는 것이다.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과 포교원을 경영하여 평생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자격을 얻어 일류수승 도통군자되는 신묘년 루진통 및 임진년 흑룡대운맞이 법회.

육경신 루진통을 수행한자만이 마음을 열어 자성인 성품이 다니는 현관을 열어 내 주인공을 본자라야 성불이 되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경지를 간자만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心 마음 심자로 쓸수있고 12인연을 보는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본문 한문 한글 강의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마음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에 일체의 고통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도천명을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조상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등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대법회 및 저승사자 면허증 반납하는 날이다.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현관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에 수행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것이고 120세에 도전하는 것이다. 본 종단 신분증 및 각종증명서 갱신공고

신분증 갱신 : 2012년 1월 갱신 없는 자는 일체 무효한다. 종정 태일

● 입제 : 양력 2011년 12월 30일(음 12월 6일 금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12월 31일(음 12월 7일 토요일)(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전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널목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과부산동시법회 :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 3동 경문사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보현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중 충 본산 환성 태일 합장

전통사찰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해

포장(2) 좋지 않은 사례

전통사찰에서 일어나는 수리행위는 건축물이나 석조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포장을 비롯해 계단, 석단, 담장 같은 조경요소들의 수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건축이나 조경요소의 수리 혹은 신설시 반드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수리나 신규설치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의 포장은 맨땅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별히 처리한다고 해도 주변의 돌을 가져다 깔아놓는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사찰에서 이뤄지는 포장은 과다한 장식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전통사찰의 원형적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포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은 전통사찰의 진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장식성을 보이는 사례

포장의 본래적 기능에는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이 있다. 기능적인 면은 보행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침식성을 방지하는 것이 주가 되며, 심미적인 면은 포장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주는 것으로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 수리하거나 신설하는 포장의 경우 지나치게 장식적 측면을 강조하여 산사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화강석 통돌을 다듬어 포장해 장식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벽돌은 흙을 재료로 했지만 색채나 질감이 사찰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첫 번째 사례로 일주문에서 삼문을 거쳐 진입하는 절 안의 도로를 화강석 통돌로 포장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장중한 미를 보일뿐만 아니라 비가 온 다음의 질척거림이나 길이 파이는 등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어도 사찰이 가지는 원형적 경관성과 심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사찰이 가진 진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친화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주불전 마당 전체를 화강석으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관리가 편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 좋은 점도 있지만, 화강석 색채와 질감이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많아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만들게 된다. 더구나 우리의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마당의 본래적 이미지와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이러한 포장 역시 전통사찰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보이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재료를 잘못 사용하여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사례

전통사찰에서 조화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디자인적 요건이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전통사찰에서는 다양한 부조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형태적 부조화, 재료의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포장의 경우에는 재료를 잘못 사용하여 사찰이 가진 원형적 경관을 헤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찰에서는 포장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포장재료를 잘못 사용하여 경관성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 쇄석이나 석분을 까는 경우이다. 쇄석은 발파석을 잘게 파쇄해 만든 면이 날카로운 작은 돌이고 석분은 석산에서 쇄석을 만들고 난 후에 남는 미분석을 말한다. 쇄석이나 석분은 본래 포장재료가 아니고 레미콘에 사용하거나 다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비교적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최근에 마당이나 길의 포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게 됐다. 전통사찰에서도 쇄석과 석분을 절길이나 마당에 까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전통사찰의 경관성을 크게 헤칠 뿐 아니라 걷는 데에도 불편하여 좋은 재료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냇가에서 채취한 콩자갈을 마당에 포설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쇄석이나 콩자갈 같은 것으로 포장할 경우에는 보행시 좋지 않은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당에 콩자갈을 깔아 소리를 내도록 한 것은 일본 무사의 집에서 닌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소리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일본식 포장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흙다짐 포장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쇄석을 깔아놓은 절 마당. 이처럼 포장 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경관을 저해하게 된다.

전통사찰 포장 특징은 맨땅 그대로 두는 것

최근 사찰 포장은 기능보다 장식 강조 추세

화강석 통돌 포장-전통사찰 색채와 부조화

쇄석·석분은 보행에 불편, 콩자갈은 일본식

최근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구역이나 보호구역의 포장에 흙다짐 포장을 권장하고 있어 많은 시공사례를 보이고 있다. 흙다짐 포장이라는 것은 마사토에 시멘트와 고화제 그리고 물을 혼합·포설하는 것으로 재료의 혼합비율이나 기층의 다짐상태에 따라 품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색채가 너무 진하거나 흐릿할 경우에는 본래 의도했던 자연친화적 효과를 잃을 수도 있고,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파손돼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통사찰에서도 절길이나 마당에 흙다짐 포장을 하는 경우를 간간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적인 흙길과는 색채나 질감이 같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해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차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흙길을 그대로 두어서는 노면의 훼손정도가 심해지고 먼지도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기는 하나 산사에 가는 길까지 철저하게 인공적이 되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재료이다.

네 번째로 벽돌을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석재·목재가 주된 재료이다. 벽돌은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진 색채나 질감이 전통사찰 주재료인 석재·목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또한 포장패턴 역시 전통경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주게 되므로 벽돌을 사용할 경우에는 엉뚱한 경관을 만들어낼 소지가 많다. 최근에 점토를 소재로 만든 점토벽돌이 생산돼 자연친화적 경관성을 보이기는 하나 이 재료 역시 전통사찰의 석재료와 목재료와는 어울리는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절 마당에 잔디를 까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잔디가 복사열을 차단하기도 하고 자연친화적이라는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잔디는 한편으로는 매우 인공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히 권장할만한 재료는 아니다.

전통사찰의 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전통성을 가진 사찰의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비싸고 공들여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사찰의 진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전통사찰의 포장에서 중요한 것으로 배수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포장의 기능성이나 심미성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 (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서류마감 : 2012년 1월 10일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팔만대장경 속 우화 ②

- 장님 부부 -

구성-김흥인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고타마를 유혹한 마왕 파순의 딸들


삽화 김영수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왕 파순의 행동은 같은 천신의 입장에서는 비난하기 몹시 애매했기 때문에 다른 천신들이 감히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왕 파순의 이런 방해 공작을 경계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마왕 파순의 아들과 딸

마왕 파순의 아들 이름은 살타(薩陀)이다. 살타는 보살 즉 보리살타의 살타와 같은 뜻으로 중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왕의 아들 이름이 살타(薩陀)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마왕의 자식이라기보다 부처님의 제자에 훨씬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살타는 부처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만류한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정법(正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살타가 아버지 마왕 파순과 적대적인 관계로 갈등을 하며 천륜을 거스르는 불효를 했던 것은 아니다. 살타는 아버지 마왕 파순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보리수 아래에 선정에 든 부처님에게 최후의 훼방을 놓을 마왕 파순의 계획을 알게 된 살타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를 말렸던 것이다.

반면에 마왕의 세 딸 염욕(染欲), 능열인(能悅人), 가애락(可愛樂)은 아버지를 돕는다. 이들은 마왕의 딸이자 동시에 용모가 아름답고 요염하며 항상 화사한 향을 풍기는, 천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천녀였다. 이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다 써서 유혹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천녀의 유혹을 이겨낸 부처님은 훗날 부처님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여인을 만날 때마다 가차 없이 독설을 날리는데, 그때 마왕의 딸들은 좋은 사례가 되어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파리스와 고타마, 여인을 대하는 차이

비슷한 상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진행되는 이야기와 결과는 전혀 다르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채 양치기로 있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어느 날,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와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미(美)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나타난 세 여신은 파리스의 표를 얻기 위해 불법 선거 유세도 서슴지 않는다. 아테나는 자신을 선택하면 전쟁에서 무적의 힘을, 헤라는 소아시아 전체의 통치권을,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했다. 세 여신의 외모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들의 제안을 꼼꼼히 들은 파리스는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따른 선택을 한다. 그의 선택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아프로디테 여신이었다.

선택을 받은 여신은 기뻐하며 그에게 유부녀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소개한다. 여신의 힘으로 파리스에게 한 눈에 반한 헬레네는 그 길로 나라와 남편을 버리고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야반도주한다.

이 과정들은 물론 애틋하고 로맨틱하다. 하지만 욕망에 따른 파리스의 선택은 그리스와 트로이의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져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트로이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낳게 된다.

여신의 유혹은 사실 파리스보다 부처님이 훨씬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결과는 정반대이다. 경전을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읽어보면 미모에 약한 흔한 남자 파리스보다 무려 여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 부처님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청동주조의 명가 天鐘社



40여년을 부처님 조성불사에 혼신을 기울여 2010년 대한민국 주조명장의 자리에 오른 천종사 대표 송창일

항상 최선을 다해 후대에 길이 남을 부처님 조성 불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의종 2000관


부산흥법사 아미타대불 26m


진부 부석사 천수천안 부처님


광법사 삼존불(청동,순금)


천우사 청동탱화(순금,채색)

취급품목
☆ 범종
☆ 청동불상
☆ 청동탱화
☆ 단청
☆ 순금불사
☆ 조형물조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418번지 031)763-7435,765-8321 / 팩스 : 031)797-3296 www.천종사.com NAVER 천 종 사 검색

보조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꽃피운 산실

한국불교중흥조 보조국사 선양의 요람…송광사분원 서울 법련사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수많은 수행자가 배출됐다. 고구려의 승랑, 백제의 겸익, 신라의 원광·자장·원효·의상.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업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고려와 조선시대 역시 많은 수행자가 배출돼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불교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르렀다. 모두 고개 숙여 예경해야 할 선지식이다.

한국불교사를 공부하면서 고승 가운데 어는 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 고민해봤다. 처한 시대와 활동이 모두 다르고 당시의 영향을 생각하면 모두가 강호의 맹장이라 구별이 어렵다. 중생의 분별심으로 구분해 보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영향력에 있어 보조국사 지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송광사를 중심으로 계승된 보조사상을 보면 역사적 유구함이 크다. 고려시대에는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을 시작으로 면면히 이어져 200년 넘도록 계승됐고, 배불이 심했던 조선조에도 불교의 규범만큼은 보조국사를 따랐다. 중기까지 서산·휴정에 의해 보조가 추구했던 돈오점수, 간화선, 선교일치 등이 계승됐다.


보조국사 진영


승보종찰 송광사 분원 서울 법련사 전경. 경복궁 옆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이다. 법련사 영산대법전은 기도수행처에서 포교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심사찰 건축의 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법련사에는 불일서점과 불일미술관이 있어 문화의 거리 삼청동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법련화 보살 희사 1995년 현호스님 중창
전서간행, 학술대회 등 불교학 발전기여

근대불교에서 가장 보조의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을 재흥하고자 노력한 수행자는 경허였다. 그는 근대불교의 중흥조로 쓰러져 가는 불맥을 유지하기 위해 해인사 조실로 주석하면서 수선사를 결성하고 선의 중흥을 도모했다. 그에게서 법을 배운 만공·한암 역시 결사를 조직하고 선풍을 진작시켜 보조국사의 사상을 계승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종풍 계승은 면면히 이어졌다. 그 중심인물이 효봉이었다. 그는 불교 중흥과 선풍진작의 뜻을 세웠고, 필요한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2의 정혜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송광사 삼일선원에서 3년의 정혜결사를 시작했다. 이런 결사정신은 구산에 의해 계승돼 송광사에 수선사를 재건, 결사 정신을 되새기는 데 주력했다. 고려·조선·근현대를 걸친 영향이 아닐 수 없다.

보조국사 지눌 이외에도 한국불교에 영향을 끼친 고승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국사를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국사의 행적과 사상이 현대화 돼 그 누구보다도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조국사의 현대화·대중화에는 법련사의 역할이 크다.

법련사는 경복궁 오른쪽을 돌아 삼청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곳의 사격은 오래되지 않았다. 1973년 11월 13일 金富全[法蓮華]보살이 종로구 사간동의 대지와 건물을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로 희사하면서 시작됐다. 1996년 5월 이후 지금의 대웅보전을 갖췄으니 이런 연혁만으로 보면 서울의 여느 사찰보다 미약하다. 그러나 법련사에 담긴 사상적 의미를 음미하면 결코 작지 않다.

이곳은 송광사 서울분원이다. 송광사가 어떤 곳인가? 한국불교의 승보사찰이다. 보조국사 지눌이후 16국사가 배출돼 한국불교 수행의 대명사가 된 곳이다. 이런까닭에 법련사 역시 그 연원은 짧지만 보조국사의 사상적 유훈을 널리 알리려 노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조사상연구원의 활동이다. 연구원은 1987년 2월 송광사에서 창립됐지만 활동 대부분 이곳 법련사에서 이뤄졌다. 그런 까닭에 송광사가 고려·조선·근대를 거쳐 지속된 전통을 계승한 곳이라면 법련사는 그런 보조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고 그 내면을 성찰하는 학술적 꽃을 피운 곳이다.

1987년 2월 22일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불일보조국사의 사상과 가풍을 연구 계발해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보조사상연구원을 개원했다. 이것은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통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도적 자세였다. 실제 연구원 설립의 취지를 담고 있는 취지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연구원은 자기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우러르는 자주성을 망각한 사대적 경향 때문에 자기네 조상에 대한 학구적인 관심마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런 자세에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대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천명됐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과 물질 만능의 그릇된 풍조 속에 인간의 진심을 잃은 채 뒤바뀐 가치의식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세계의 정신영역 모두가 감각적인 세속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삶의 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사상의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고 그것이 이 땅에 정립되기를 서원했다. 그러면서도 보조를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사상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했다.

연구원은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방향에 있어 첫 번째 보조국사의 사상과 종풍의 연구계발 및 선양을 위한 일과, 보조국사 전서의 간행과 연구논문집의 간행 및 번역 학술발표 등을 했다. 그 결과 1989년 〈보조전서〉가 간행됐다. 이때 간행된 전서는 지금까지 간행된 보조 저술의 여러 판본을 대조 교열하고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아 하나의 정본(定本)을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특기할 것은 수많은 전적을 들추어 가면서 본문에 나오는 인용문의 출처를 밝혀 보조사상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

이후 연구원에서는 1987년 11월 학술지 〈보조사상〉 제1집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 제36집까지 발간하고 있다. 매월 진행된 학술발표회는 100회에 이르렀고, 매년 가을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도 23차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역시 여러 차례 개최되어 보조사상은 물론 한국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보조사상연구원의 활동 때문에 보조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양과 질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1990년대에 이르면 보조를 연구하는 학자의 층이 두터워져 박사학위 논문이 12편이 제출됐다. 그리고 이 시기 연구논문 역시 152편이 발표돼 한국불교계에 보조연구의 정점을 이루었다. 연구된 내용을 보면 선사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사상의 비교, 돈오점수, 보조의 역사적 위상, 보조와 다른 사상과의 비교연구, 정혜결사, 조계종 법통에 관한 연구 순이다. 이때 연구의 담당자 대부분이 젊은 연구자였다. 이들은 1987년 설립된 보조사상연구원이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199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불교학자 특히 젊은 학자들에게 보조 연구가 왕성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불교 내에서 보조사상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현대에 이르러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와의 논쟁에서 보조의 선이 돈오점수를 지향했다고 해서 그 가치를 하향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는 현대 불교 학자들에게 영향을 줄만큼 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1990년대 이르러 한국불교에서 일어난 비승가적 모습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보조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했을지 모른다. 보조는 무인정권 시대에 권력지향적인 불교계에 자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가치는 8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가장 절실한 가치로 인식되어 미래에도 한국불교의 좌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불교가 현대화되고 대중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화, 대중화는 옛 전통을 박제된 모습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언어로 그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련사는 24년의 노력으로 800년 전 인물인 보조국사 지눌을 현대의 대중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한 사찰이다.

한국불교사에는 고승이 많다. 그 고승이 활약한 사찰도 많다. 어느 곳이던 30년 지속해서 연구하면 한 인물이 현대화, 대중화 된다. 어떤 불사보다 뛰어난 불사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당신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



굽은 나무 이야기

아버지는 형제를 앉혀 놓고 비장하게 입을 뗐다.

"각자 제 갈 길을 선택해라. 너희 둘 다 대학 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집안 말아먹고 온식구가 함께 길거리로 나 앉는 길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 등록금은 하늘이다. 과거에는 더 심했다. 자식의 불투명한 신분 상승을 위해 부모는 온몸을 불구덩이에 던져야했다.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을 우골탑이라 부르기도 했다. 상아탑(象牙塔)이란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잠기는 고고한 경지를 일컫는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생트뵈브가 낭만파 시인 비니의 태도를 비평하며 쓴 데서 유래했다. 그 상아탑이 한국에 와서 우골탑(牛骨塔)으로 바뀐 건 1969년이다. '논밭은 물론 아끼던 소를 팔아 자식 대학에 보냈더니, 대학은 등록금으로 성탑 같은 건물이나 지으며 돈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야유, 비판이었다. 40년도 지난 얘기지만 어쩐지 요즘 세태와 비슷한 감이 든다. 사립대 비대

나무를 골라 심은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 따라 굽거나 곧아져
쑥쑥 곧은 금강송은 잘려나갈 삶
굽은 나무는 조경수돼 보호 받아

화와 고액 등록금, 부정도 서슴지 않는 역사의 뿌리가 결코 짧지 않다.

고3과 고1인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몰랐다. 다만 대학이란 추상명사는 실체를 알 수 없지만 같은 또래들이 대단히 선망하는 로망임은 알고 있다. 시골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합법적 방편이 서울 유학이다. 시골 생활은 10년 후, 20년 후가 뻔히 보인다. 검고 굵은 주름 패인 아버지의 모습이 증거다. 퇴약볕과 똥지개, 검불더미와 보릿고개를 묵묵히 감수해야 한다.

서울로 유학가면 그것들과 결별할 수 있다. 말쑥한 차림으로 별천지의 별들과 함께 유영하며 고향 마을의 궁기와 참상을 잊을 수 있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베잠방이 대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가 친구다. 그래서 대학은 추상이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목마른 갈망이다.

"결심이 섰느냐? 난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둘 다 대학 보내진 못한다. 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너희 중 하나는 대학 공부 시켜주마. 소를 팔든 땅을 팔든 등록금은 대주마. 단 대학 4년 등록금 대주는 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부턴 알아서 살아라. 여기 남아서 나랑 농사를 짓겠다면 몇 뙈기 되지 않지만 논밭을 물려주마."

아버지는 가라앉는 음성으로 역접부사를 많이 사용했다. 누군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좋으련만, 어린 것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괴로운 침묵의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결국 형이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뗐다.

"제가 여기 남아서 열심히 농사짓겠습니다. 동생이 머리도 더 좋고 똑똑하니 대학 가야합니다."

불편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그렇게 정리되었다. 그날 밤 형제는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다독거렸다. 상황은 예측대로 진행되었다. 형은 시커먼 농사꾼으로 살고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여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뽀얀 얼굴의 샐러리맨이 되었다.

세월이 30년 쯤 흘렀다.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세상의 변화가 힘차게 몰려왔다. 동생은 고만고만한 샐러리맨으로, 결혼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여 아들 둘 낳고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다.

농부인 형은?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았다. 논밭이 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되고 공장이 되고 식당이 되었다. 수백억 대 부자가 되었다. 다행히 그들 형제는 다툼이 없다.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그대로 살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유학 온 대학 동기 M군의 실화다. 양평 근처를 지날 때마다 M이 들려준 사연이 생각난다. 그는 지금 사업차 중국에서 산다. 가족은 한국에 있다. 1년에 두세 번 귀국해 술잔을 나눈다. '형님에게 한 뭉텅이 썩둑 잘라서 도와달라고 해봐'라고 농담을 건네면 그는 씩 웃기만 한다. 다른 동기 녀석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에 산다는 영양가 없는 상표를 제외하면 시골 친구들보다 나을 게 없다. 붙박이 장롱처럼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놈들의 삶의 질이 훨씬 양호하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한다. 처음부터 곧은 나무, 굽은 나무 따로 심은 게 아니다. 환경에 따라 어떤 것은 곧게 자라고, 어떤 것은 굽어졌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후손들이 선산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베어가 집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팔아넘기기도 한다. 굽은 나무는 쓸모가 적다는 이유로 그냥 놓아둔다. 선산에 남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굽은 나무를 보면서 인간사도 마찬가지 원리임을 깨닫는다. 쑥쑥 곧은 금강송은 잘려나가길 대기하는 시한부 삶이다. 비틀어지고 굽은 나무는 팔자가 바뀌어도 조경수가 되어 애지중지 보호를 받으며 천수를 누린다.

많이 배우고 출세한 후손은 어쩌다 선산을 찾아오지만, 조상의 묘를 가꾸고 돌보며 나름대로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남아 농사일을 하는 가난한 후손들이다.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은 좋은 일자리가 나면 얼마 안 가서 이직을 하는 등 충성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는 채용을 꺼린다. 오히려 우직한 중위권이나 지방대학 출신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당신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지는 것 두려워말고 즐겨라 그것이 프로의 길이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 특강

신문선 명지대정보과학원 교수(前 MBC · SBS 축구해설위원)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에서 ‘나의 축구인생과 삶’을 주제로 12월 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신문선 교수는 축구계 부패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축구인생과 수많은 좌절과 극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나의 축구인생과 삶’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정정 당당히 경기하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축구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에 20년간 글을 써왔고,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글을 쓰면서 한국체육회를 향해 쓴 소리와 부정부패에 맞서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쓴 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평생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체육계, 특히 축구계의 부정부패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축구는 최근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광래 대표팀 감독 경질만 보더라도 대표팀 감독의 경질 과정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 감독은 저에게 “조기축구감독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광래 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대표팀 감독이 인격적으로 존중 받지 못하는 한국축구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광래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면서 후임감독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축구협회의 답답하고 안일한 처사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한국축구는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고 이용당하는 부분에 가슴이 아픕니다.

축구는 국민 화합의 문화콘텐츠

축구는 거대한 사업이고 국가의 오락적 영역 또는 애국의 도구로써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축구는 20년 넘게 꽃만 따오고 있습니다. 꽃만 따오고 있다는 뜻은 대표팀에 모든 것이 집중돼서 대표팀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축구는 뿌리가 썩고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승부 조작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60여 명의 축구선수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스포츠의 가장 숭고한 정신인 정정당당한 승부를 뒤로 한 채 돈을 매개로 한 거래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부조작이 올해에만 일어난 국한된 사건일까요? 이미 승부조작은 20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해관계에 의해 주전선수를 빼거나 일부러 져주는 것이 한국축구계의 악습이었습니다. 이런 악습을 누구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 악습을 이용해 대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축구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잘못된 악습 때문에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운동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중병에 걸린 한국축구는 머지않아 아시아에서 삼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축구팬들이 축구를 소비하지 않고 축구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축구가 병들게 되면 단지 축구선수들과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축구 그 자체였습니다. 20년 넘게 축구의 대중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축구 저 뒤편에는 넓은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적 가치와 마케팅은 상상을 초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비슷한 이벤트를 정부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2월드컵에서 우리는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한국선수들의 선전으로 국가 이미지와 한국 상품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축구는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도구로써 그 힘은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페인 축구명문 레알마드리드 마케팅 담당자에게 “레알마드리드와 바로셀로나는 해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매년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표는 늘 매진될 정도로 구단의 인기는 높다. 그래도 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세계 최고 선수들을 끌어 모으는 이유는 스페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버리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국축구가 병들고 지친상태에서 이대로 무너진다면 축구의 사회통합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부패한 축구계에 좌절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축구를 비판하며 ‘쓴 소리꾼’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저는 어느 날 큰 형이 가져온 신문에 정부가 설립하는 특수학교 신입생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지원해 체육중학교에 입학했고, 육사와 같은 엄격한 환경 속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입학생 210명 중 졸업생은 121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제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활은 고교 3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국에서 삼관왕을 했는데 체육학교가 시합에 나가면 운동장에 2~3만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부하는 축구선수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고교 시절을 거치면서 갖게 된 생각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 후 명문인 연세대 축구팀에 들어갔으나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꿈과 경험, 노력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세대는 대한민국 최고선수들의 집합지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의 텃새로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제 꿈이었던 대표선수도 실력보다는 돈과 배경이 있는 선수들이 선발되는 것을 보고 크게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대학생활도 중고교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수업에 들어가면 연습을 게을리 한다며 선배들에게 혼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학교를 한 달간 나가지 않은 채 부패에 가득 찬 축구계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대 원로선배님들이 저를 찾아와 설득을 했습니다. 선배님들은 “축구를 그만두면 인생에서 지는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선배님들의 격려에 힘을 얻은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젊음과 낭만을 뒤로한 채 치열한 고민 속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1981년 프로팀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좌절을 겪으면서 저는 내가 훗날 축구계에서 힘을 갖게 되면 돈 없고 배경이 없어도 능력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의 쓴 소리꾼으로, 체육계의 독설가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짐은 프로팀 선수로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체육학교를 다닐 때 “너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부했으니 나중에 네가 받은 혜택을 선생이 돼서 후배들에게 꼭 돌려줘라”는 선생님들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선수 활동 중인 1984년 연세대교육대학원에 진학했고 학위를 마치기 위해 1985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프로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 팀에 가든 늘 주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였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일찍 은퇴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외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86서울아시안게임’이 시작됐고 방송 인력이 부족하다며 스포츠원고를 써달라는 MBC의 청탁으로 축구관련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돼 방송 축구해설가가 됐던 것입니다.

> 축구는 국민 하나로 만드는 콘텐츠
> 이해관계 따라 져주는건 오랜 악습
> 축구의 부패지수 사회와 일치해
> 축구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져

제 인생은 축구였고 축구를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거름이 될 때도 있었지만 독화살이 돼 날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축구가 건강해지려면 축구를 보는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야합니다. 그래야 한국축구가 건강해집니다. 한국축구의 부패지수는 한국정치, 한국사회의 부패지수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갖 사회적 부정한 거래를 용인해 왔습니다. 밀실 거래를 했던 사회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축구가 건강해지면 정치와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룰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경기를 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자를 위로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을 다시 한 번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경쟁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프로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입니다. 결코 게임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승률 높은 프로가 돼있을 것입니다.

신문선 교수는 …

대학시절 1979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고 1981년 대우축구단 입단으로 프로 축구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이 후 1985년 프로선수를 은퇴하고 연세대학원 체육교육과에 들어갔다. 1988년 MBC축구해설위원, 2001년 SBS축구해설위원, 2011년 MBC스포츠플러스 축구해설위원과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바삐 기도 쫓아 다니다 보면 극락 지나쳐 버려요

대도행 배차년 보살 (2)

"제발 절에 와서 불상한테 엎드려 빌기만 하지 말고, 공부하는 은영이 잘 돌보고 처사님 공양 잘 하세요" 법정 스님은 배차년 선생(80)을 보기만 하면 타일렀다.

"자꾸 기도를 쫓아다니니까 오죽하면 스님이 보살님처럼 그렇게 바삐 다니면 극락을 지나쳐버린다면서, 적당하게 다니다가 극락이 보이면 안으로 싹 들어가야지. 지나쳐 버리면 헛것이니 기도 그만 다니라고. 보살이 먼저 성불해서 가부좌 탁 틀고 앉아 있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내가 얼마나 죽을 맛이겠느냐. 그러니 날 위해서라도 제발 그만 좀하라고. 아이고. 날 주저앉히느라 스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절에 못지않게
자성사(自性寺)에도
환히 등 밝히도록 하십시오

…초파일에 여기저기 등을 밝히는 일은 잘 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다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절에 못지않게 自性寺자성사에도 환히 밝히도록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은영이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군요. 은영이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그러우신 처사님께 문안 사뢰어주시고 착한 은영이한테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四월 五일 山에서 合掌

"스님 말씀마따나 우리 처사님이 부처에요. 부처. 결혼하고 만 11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별 소리를 해 싸도 끄덕도 안 해. '사람을 하나 들여서 애 낳았다고 당신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살겠나? 그렇다고 애 낳은 사람을 밀어내고 당신하고 살겠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진짜 귀한 딸이지요. 그런데도 만날 애만 집에 놔두고 기도한다고 쫓아다니니까, 스님이 제발 애를 돌보라고. 보기만 하면 그러셨어요. 영감님이 싫어하면 못 그랬을 텐데 '오전에 봉은사 갔다가 오후에 법련사 들려서 저녁 늦게 몇 시나 되어야 들어오는데 괜찮겠느냐' 고 물으면 재미없는 목욕탕에도 일곱 시간씩 앉아있기도 하는데, 그 재밌는데 가서 빨리 올 수 있겠느냐며 잘 놀다오라고. 그땐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통행금지에 걸리지만 않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불일암에 오르내린지 그럭저럭 세 해쯤 지나니까 불일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님은 그이들을 불일권속이라고 불렀다.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선생은 그 뒤로는 한 해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곤 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이 대학교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스님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좀 실컷 울려고 딸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때 마침 우리 집 처사가 집에 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딸이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취직이 되더라고요."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스님은 은영이한테 "네가 시험이 되고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네 등록금 누가 대겠느냐? 한 해 쉬면서 재수 잘 하면 다른 사람이 2년이나 3년 한 공부를 앞지를 수 있다. 그러니 재수생활 잘 하라"고 하면서 "은영이 시험 잘 떨어졌다. 은영이 시험 잘 떨어졌다."고 울적한 기분을 풀어주려는 마음에서 농을 건넸다. "스님 말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미 마음은 그게 아니라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위로받으러 갔다가 화만 실컷 내고 올라왔어요."



공부할 때
책과 눈 거리를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스님은 "은영아. 네가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밥이 저절로 넘어간다"며 은영이를 귀여워했다. 편지, 편지마다 아버지가 딸한테 당부하듯이 구구절절이었고, 선생에게 하는 편지에도 늘 은영이 안부를 잊지 않았다. "우리 딸은 스님한테 돈도 많이 얻어 썼어요. 불일암에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은영아 방 좀 닦아라' 그러시고는 은영이가 걸레를 들고 가서 방을 닦으면 아이고 저 조막만한 손으로 닦으면 얼마나 닦겠느냐면서 책을 한권 주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집에 와서 펴 보면 책갈피에 돈이 들어있어요."

은영에게

잘 쓴 편지 잘 받았다. '일순이' 보다는 '삼순이' 가 훨씬 좋다. 앞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좋은 거다. 요 며칠 동안은 날씨가 많이 풀려 봄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 밤이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다람쥐도 엊그제부터 나다니고 있단다.

나는 음력 선달 그믐께부터 계속 찾아오는 방문객들 때문에 일에 크게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다가는 더 깊고 험한 산골로 들어가야 할까 보다. 사람도 가끔 만나야 반갑지, 날마다 대여섯 사람씩을 대해야 하니 피곤하고 할 일을 못해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아무래도 이번 달은(2월) 그런 달인 모양이다. 한 달이 아무 일도 못한 채 휘딱 지나가 버린 것만 같다.

봄방학에 오고 싶어 했다니 무척 미안하다. 여름방학 때 차분한 마음으로 오너라. 은영이 다리를 좋아하는 모기들도 좋아할 거야.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더러는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서 먹기도 하여라. 그리고 공부할 때 책과 눈 거리를 알맞게 유지하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눈은 한번 고장 나면 평생 고칠 수 없단다.

그럼 늘 건강하고 계속 '삼순이' 가 되기를 바란다. 2월 26일 산에서 스님이

그 시절 스님이 어른들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세로쓰기인데, 은영에게 보낸 편지는 다 가로쓰기다.

어느 해 여름, 은영이와 함께 불일암을 찾은 선생이 방청소를 끝내고 잠시 덧버선을 벗고 다리 뻗고 쉬었다.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은영아, 아버지가 엄마 발가락에 매니큐어 바르는 것 좋아하시니?"하고 물었다. 은영이가 "아니요.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바른데요." "손가락 발가락도 다 숨을 쉬는데 그렇게 발라놓으면 숨이 막혀서 안 되지."라고 한마디 했다. "그 뒤로 손가락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는 스님 말씀 듣고 법대로 살려고 원력 세우고 애써 살았어요."

국수를 좋아하는 스님은 국수를 삶으면 부엌에서 밑에 있는 물가로 냄비를 들고 빨리 뛰어 내려가야 하니까, 보살님이 뛰다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당신이 물가로 뛰어 내려가 찰랑찰랑 씻다가 "보살, 보살!"하고 불렀다. "쫓아 내려가면 헹군 국수사리를 손으로 한 움큼 쥐어 손바닥 위에 놔 주면서 빨리 먹어보래요. 국수는 이때가 가장 맛있다면서. 한 번은 딸 여름방학 때 짜장면을 한다고 서울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함께 내려갔어요. 가방에 양파를 세 개 넣어 가지고 갔는데 찾으니까 없어요. 막 찾으니까 스님이 아, 그건 절간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빼놓았다면서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그때 스님이 새로 옻칠 한 발우에 담아 드셨는데 다 드신 뒤에 보니까 옻이 올라가 입술이 퉁퉁 부르트셨어요. 어찌나 우습던지. 거 보세요. 좀 식혀서 드셔야 할 텐데 빨리 잡숫자고 해서 그랬지 않느냐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요. 그러시더라고."

중생에게 매달리면 허망
관세음보살 정진을 하셨다니
참 잘 하셨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큰길로 다니면
진짜로 대도행 됩니다

大道行 보살님께

긴 편지 반가이 받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옛단골"을 찾아 묻지 않고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려 정진하셨다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佛教를 밖으로 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매달리면 잘못되거나 허망한 일을 겪게 되지만, 관세음보살 같은 聖賢에게 歸依하면 항상 믿음직해서

한 해 동안 힘드셨죠?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



내 안의 다섯 살 아이에게 건네는
치유의 선물

- "책을 덮고 나면 내 속에도 있을 그 아이를 향해 말을 걸고 싶어진다. 미소를 보내고, 손을 잡아 주고 싶어진다. 괜찮다고, 이젠 다 괜찮다고. 그때의 너는 작고 상처받기 쉬웠지만, 지금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 조선일보
- "화와 상처를 치유하는 틱낫한식 심리처방전으로, 상담심리가나 정신치료사들에게도 유용하게 읽힐 내용들이다." – 문화일보
- "마음속 응어리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틱낫한 스님이 전하는 심리 처방전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지혜와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준다." – 한국경제

인문 베스트셀러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 부록 : 명상유도 CD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스님이 들려 주는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도법 지음 | 280면 | 13,800원

든든할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큰길로 다니도록 정진할 때 보살님은 진짜로 大道行이 되는 것입니다. 大道行이란 말은 곧 正法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남해에 다녀가실 때 우리 佛日庵에도 들르십시오.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욕심스럽게 느껴집니다. 山에 오시면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신 〈반야심경〉을 해설해드리지요. '고참단골' '햇단골'이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 시장도 아닌데. 부처님 법 가운데서도, 아무리 오래 절을 다녔어도 잘못 믿거나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햇단골'이고, 어제부터 불교를 믿더라도 바르게 믿고 그대로 행하면 '묵은단골'(보살님 표현에 따르면 고참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山에는 날마다 바람소리가 요란합니다. 처사님, 은영이 세 식구 다 늘 건강하기를 빕니다.

一월 二十五일 合掌

'햇단골'이 많아 찾기가 조심스런 불일암 '고참단골'인 선생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불일암'을 찾지 않고 관세음보살 정진으로 평정을 찾았다는 이야기에 산에 들르면 〈반야심경〉을 해설해 주겠다는 정이 담뿍 담긴 화답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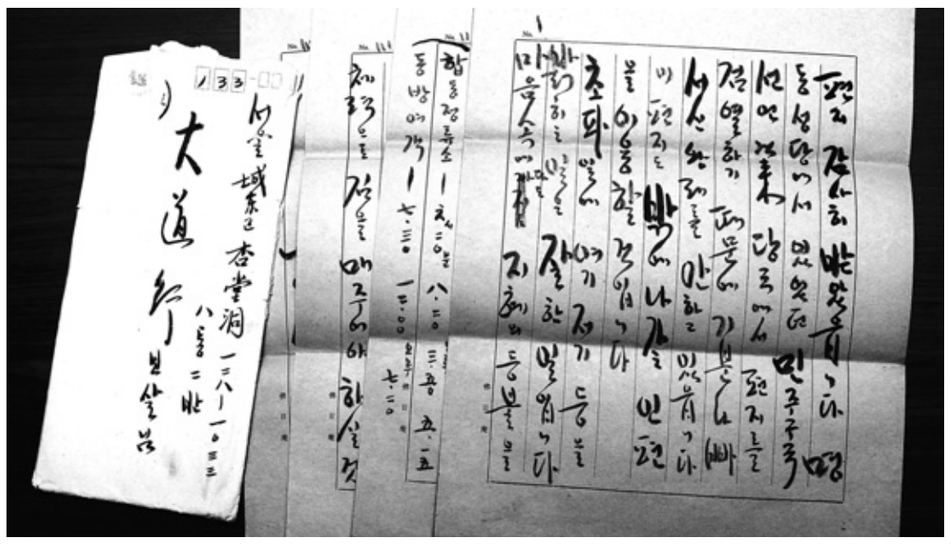
불일암을 찾지 않은 뒤에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 도반들 하고 지금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사시던 김천 수도암修道庵엘 붙었어요. 내가 갈 적에는 수도암 불사가 중간쯤 진행이 되어 아직 선방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서울 사람들이 붙어서 수도암 불사가 거의 완성을 볼 즈음, 스님들이 6년 결사를 한다고 해서 보살 한 분하고 내가 둘이서 화주 보살을 했는데, 같이 하던 분은 중간에 가버리고 혼자 6년을 마쳤어요. 거기 땡길 적에 우리 딸에 대학에 재수를 할 때라서 수도암 스님(법전)한테도 가서 사정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 법전 스님이 선생에게 이제 자잘한 집짓는 불사는 그만하고, 스님을 알선해 줄 테니 보살들 공부를 시키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선생은 회장 맡지 말라고 했던 법정 스님 말씀이 떠올라 편지를 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회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이젠 괜찮다면서 '사람방생을 하신다니 참 잘 하셨습니다'고 답을 주셨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를 불자 만드느라 법정 스님이 고생했어요. 내가 말도 잘 안 듣고 하도 고집을 세워 싸니까 한번은 아침 잡숫고 부처님 앞에 앉으셔서 가사 장삼을 수하고는 당신보고 절 세 자리 하래. 그래서 삼배를 하니까 〈금강경〉을 펴놓고 15편까지 해석을 해줬어요. 뭘 알아야 그게 머리에 들어가지요. 그래도 그 인연공덕으로 아침마다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아파서 못 일어나면 누워서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복으로 이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법정 · 서암 · 일타 · 법전 · 청화 스님 같은 큰스님들이 대도행 왔느냐고 반기는 대접을 받고 살았나 싶어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어깨 힘이 들어가요. 부산 올케가 하는 말이 '우리 형님 저 성질을 가지고 불자가 되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었을꼬?' 그럽니다."

선생은 길상사 개원하고 처음엔 가지 않았다. 나아니라도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불일암에서 스님 시봉을 좀 했다고 얼굴 내밀며 스님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님



1970년대 후반 불임암에서 찍은사진 (왼쪽부터) 대도행 보살, 법정 스님, 운허 스님, 현호 스님, 수련화 보살



법정 스님이 대도행 보살에게 보낸 편지

이 와서 계시는데 왜 안 가느냐고 보채는 이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서 먼발치에서 법문만 듣고 그냥 오곤 했다.

"나이 일흔 다섯에 심장병, 당뇨가 한꺼번에 오더니만, 일흔 여덟이 되니까 무단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이래요. 수술도 하고 아프니까 한 해 동안 집에만 콕 틀어박혀 바깥나들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부산 사는 올케가 형님, 스님이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요. 그럭저럭 소문이 난 지가 한 해는 넘었는데 스님이 길상사에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갔어요. 먼발치서 봐도 살이 다 빠지고 많이 수척했어요. 그래도 먼데서만 뵙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2009년 4월 봄 법회. 스님은 전에 뵐 때보다 눈에 띄게 초췌했다. 법회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양을 하러 내려가는 스님을 뵈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님을 꼭 뵈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졌다. "살살 따라 내려가서 비빔밥을 한 그릇 얻어가지고 얼른 먹고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스님들이 나오는지 웅성웅성하더라고. 가까이 가려니까 어깨띠를 두른 분들이 막아서면서 '보살님 오늘은 스님 친견 못합니다'고 막아서요." 마음을 다잡은 선생은 나는 오늘 세상없어도 스님을 친견해야 하니 막지 말라고 세게 나갔다. "얼추, 스님들이 다 나오고 나서야 스님이 나오세요. 쫓아가서 '스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동갑 보살 왔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은영이 소식을 물어요. 스님 뒤를 바짝 따라 행지실로 올라가보니까 스님들이고 보살들이고 방에서 진을 치고 앉았어요. 곁에 앉아서 찬찬히 스님을 살피니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 어른한테 딱히 드릴 말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스님이 귤을 하나를 밀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됩니까



동국대 선학과 교수

석공을 보면 마치 바위가 말을 하고 목수를 보면 나무가 간절히 말을 건네듯이 펜과 종이를 대면하다 보면 그들의 말이 들린다. 나를 써봐요. 그러면 나는 위대한 문장이나 저술로 탈바꿈 할 것이니. 바위는 석공에게 '나를 사랑하고 다듬으면 걸작품이 나올 것이오'라고 귀띔도 한다. 나를 석불님으로 만들어 주시오. 목수에게는 '나를 치장하여 목불님으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한다. 그렇다고 종이가 다 명작으로 환생하여 서재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바위도 석공의 무수한 손질과 장인의 혼을 불어 넣어야 불단에 올라 장엄한 석불님이 된다. 숱한 나무 가운데 모두 목불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인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목불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걸작이나 거룩함이란 찾아 볼 수 없던 종이나 바위, 나무에서 걸작이 되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태어났으니, 그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가. 거룩함은 정견에서 오는 것이다. 거룩함은 열정에서 오고 여백에서 온다.

옛날 마조도일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대분심을 일으킨 마조는 매일 열심히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 가까이 남악회양 선사가 찾아와 말을 건넸다. "그대는 좌선을 해서 뭣하려는가?" 마조는 "부처가 되려고 좌선합니다."라고 답했다. 생각해보면 마조는 좌선 그 자체가 성불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고서 좌선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성불이라는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자 회양 선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마조가 좌선하고 있는 면전에서 쓱쓱 기와를 갈기 시작했다. 마조가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됩니까?(磨塼作鏡)"

이때 회양 선사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그럼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마조는 비로소 '이 사람은 도를 통달한 사람인가보다' 생각하고서 간절한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회양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수레를 타고 갈 때 도중에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타고 가는 수레를 때리겠는가, 아니면 수레를 끌고 가는 소의 엉덩이를 때리겠는가?"

마조는 이 물음에 답할 바를 몰랐다.

여기서 회양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좌불을 배우는가?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불(佛)은 고정된 상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머무는 곳이 없으니 취사(取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좌불한다면 곧 그것은 불을 죽이는 것이고, 만약 좌상(坐相)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회양 선사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좌 그 이상의 것이므로 '좌(坐)'라는 형상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부처는 절대의 존재이므로 '좌'라는 일정한 형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진리라는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형식적으로 취사분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고정됨 없으니 구하면 멀어지고
부처 되겠다 의식해도 부처서 멀어져
무념무상 심리상태가 좌선은 아니다
새 종정 스님 가르침으로 예지 열리길

부처가 되려고 의식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부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상대적인 부처를 죽이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좌라는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언제까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진실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상(有相)의 부처를 구한다든가 혹은 진실한 자기를 고정적인 실체적 존재로 간주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생각으로 좌선을 하면 종국에 가서 삼매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냄새가 나서 코를 쳐들 수 없는 선취(禪臭)가 진동할 염려가 있다. 마조가 빠져있는 개념은 '무념무상(無念無想)'이라는 일종의 심리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좌선이라고 오해하는 점이다.

이번에 선출된 조계종 종정 진제 선사의 큰 가르침을 통해 전 종도들의 정견의 예지가 열리길 기대한다.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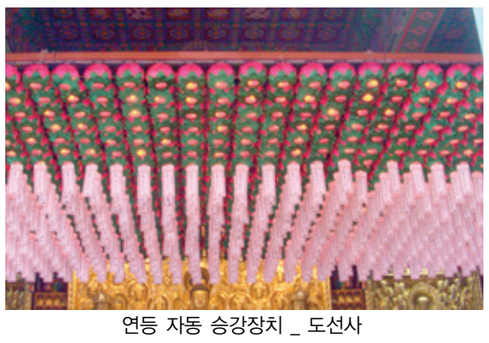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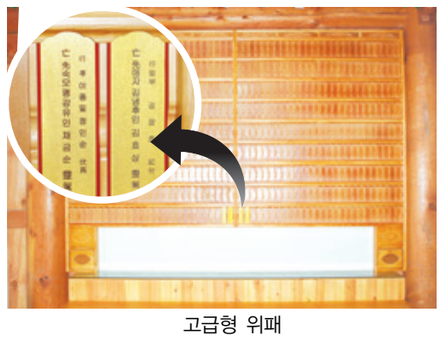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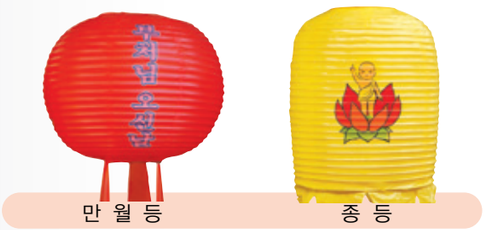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 만월영가등



공 단 등 / 오색공단등



만 월 등 /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4)

장준하 선생을 흠모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진관 스님은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다. 농성이 있어도 저녁이 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가정이 없는 진관 스님은 현장을 지켰다. 한 두 번이 아니다. 항상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기자들을 만난다. 인터뷰도 많이 했다. 진관 스님이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했던 이유이다. 민주화가 진척된 이 시대에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암울했던 시절, 중생들의 안위를 위해 고된 길을 걸었던 진관 스님의 기억을 통해 당시로 돌아가 본다.

"나도 법정 스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상계〉도 읽고 어 또 정치하는데 참여도 하고 이제 요렇게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1968년 그 장준하 선생 강연 신민당 〈민주전선〉을 읽고 (장준하 선생의) 〈사상계〉를 읽으면서 인제 방향을 회전하게 되는 거죠."

진관 스님의 목표는 시인이 해야 할 일에 맞추어져 있다.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시인이라고 단정한 진관 스님은 선학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치 행사를 그냥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촌 봉원사를 찾아 염불을 배우려 했다. 나지명 스님과 함께 갔다.

"(불교) 정화에 인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기에 그 때 '인제 뭣허러 왔느냐' '염불 범패 그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둘은 안 된다.' 만일에 거기서 범패를 받아줬더라면 지금쯤은 범패의 전수자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거그서 안 받아주는 바람에 염불을 접게 됐던 거죠."

비구승이라서 염불학원에 퇴짜를 맞았다. 이후 자신이 좋아하던 염불과 인연이 멀어졌다. 멀어졌다기보다 정치 현실에 뛰어드는 일이 잦았다. 야당 인사들의 연설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참석하였다. 연설을 듣고 있던 지관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 아는 것이 없었다. 아니 옆을 바라보니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스무살이니까 어디에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아는 것이 있어야 참여를 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인제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고 때에 인제 뭘 했냐면은 이 전국에 인제 불교 학교가 있는가 없는 간데 요걸 생각을 했죠. 스무살 때 아무리 봐도 학교를 가야지. 전부 거긴 대학생들만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 내가 대학을 못 나와 가지고 저 아이들 허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냐 그럼 대학을 가야되겠는데 어허허 이거 어떻게 허허허허 그래서 고 때 학원에 갔지 학원에. 검정고시 학원에 고 때 검정고시학원에 같이 간 같이 다녔던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누구냐 나하고 인제 여기 한국일보사에 한국학원이라고 있었어요… 1968년 1969년 인제 요렇게 됐는데…."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목표를 세웠지만 늦깎이 공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승가에서 유행하던 태권도를 배웠다. 정치든 뭐든 그만두고 태권도 도장이나 차려야겠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태권도를 했다. 학원을 그만두고 2년간 도장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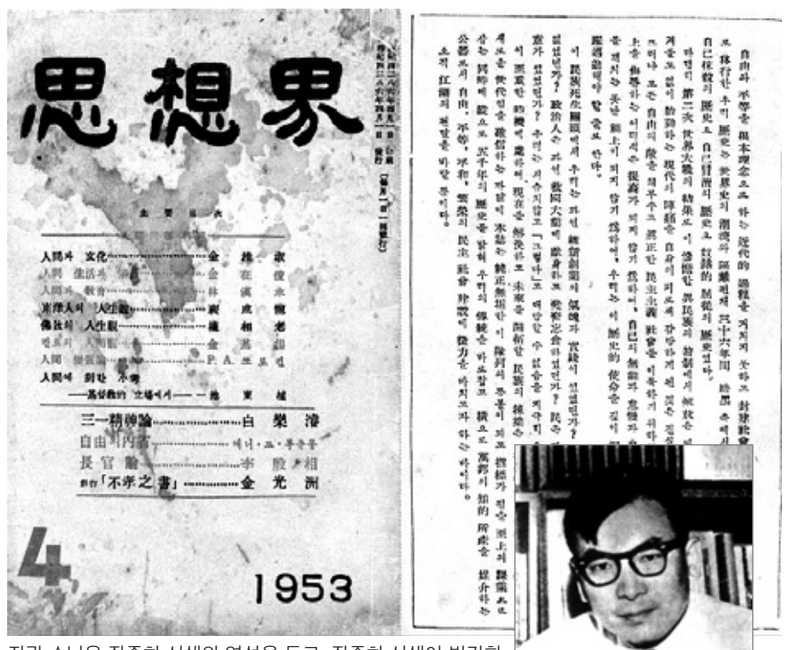
야당인사 연설에는 어김없이 참석
'사상계' 탐독하면서 대학에 진학

"조계사 앞에 있는 교회 터가 태권도 도장이야. 그래서 아 내가 그럼 태권도 선수가 한 번 돼야 되겠다. 선방에서 그 그 날라다니는 기술 요거 이걸 익혀가지고 그러믄 선 그 선 예술 선 선무도 선무도가 그게 또 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인제 이 년간을 고걸 했죠 내가. 태권도 도장에 그래서 그 때 학원을 때려 치고 허허."

그러나 야당 인사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사상계〉나 〈민주전선〉의 잡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승복을 입고 연설회장에 갔다. 승복을 입고 온 진관 스님을 본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라고 웅성거렸다. 매체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승려로서 야당 행사에 나타난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진관 스님을 법정 스님으로 오해한 일이 많았다.

"내가 인제 거기 딱 승복 입고 가니까 대학생들이 먼저 얘기 하는 것처럼 어 저기 법정 스님이 왔다. 법정 스님 요렇게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서 실은 뭐 내가 법정이 아니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야 저 어 법정 스님이 저렇게 학생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 이것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부러워서 인제 장준하 선생이 집회를 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거기에 인제 가게 돼 자주 가게 되고."

흠모하던 법정 스님이었으나 자신을 법정 스님으로 오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싫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법정 스님의 등급까지 올라가 있다는 점을 착각하기도 한다. 진관 스님은 태권도 사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다시 펜을 잡고 시를 썼다. 기어코 〈불교신문〉에 자신의 시를 실었다.



진관 스님은 장준하 선생의 연설을 듣고, 장준하 선생이 발간한 〈사상계〉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장준하 선생이 쓴 권두언이든 기사든 모두 읽었다. 사진은 〈사상계〉표지와 창간인 장준하(1918~1975) 선생

"아 나도 시 한편을 〈불교신문〉에다 한 번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어느 기잔가 누군가가 왔걸래 나도 시 썼으니까 신문사에 실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시를 인제 한편을 실렸어요."

"〈사상계〉 찾아가가지고 내 시 실어 달라. 요렇게 하니까 〈사상계〉에서 응모하라 응모해야지 기양 실어주는 게 아니다 아주 호령을 해서, 자존심만 상하고 인제 요런 과정이 인제 선학원에서 얽히면서 장준하 선생을 동경하게 되고 장준하 선생이 권두언을 썼는데 장준하 선생이 또 옛날에 김구 선생하고 그 중국을 막 돌아다녔던 고런 게 인제 그 꿈에 우리가 부풀었죠. 그래서 아 대학생이 됨으로써 장준하 선생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요걸 그 때 절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장준하 선생의 연설을 듣고, 장준하 선생이 발간한 〈사상계〉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장준하 선생이 쓴 권두언이든 기사든 모두 읽었다. 장준하 선생이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사회운동가, 잡지발행인임을 알았던 터이다. 적극적으로 정치문제와 사회 문제에 뛰어든 모습을 존경했다. 장준하 선생의 연설을 듣기 위해 대학을 지원한 셈이 된다. 조계사에서 살면서 공부할 요량이었다.

"조계사에 인제 방부를 들였는데 그 조계사에서 살면서 인제 그 학원에 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에~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저 대학을 가야 되것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저 학생들과 내가 이 지금 말하면 소통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꿈이 한 가지 무엇이냐 꿈을 다 가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학원에서 이루지 못했던 걸 조계사에서 방부를 들였으니까."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했다. 다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스스로 학업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장준하 선생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었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공부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또한 장준하 선생이 연설하는 그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이 부러운 것은 당연했다. 서울에 오면서 공부하려는 희망이 있었지만, 정치현실을 가까이서 본 진관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검정고시를 목표로 했고, 기어코 고교 과정을 끝낸다.

동국대 불교대학 외래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시성(詩聖) 사이교(西行) ㊤

정토를 희구했던 풍류가


사이교 초상, 시즈오카현 MOA미술관 소장

고대 말 토바(鳥羽) 천왕이 아들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있을 때, 상왕의 처소인 원(院)의 북문을 지키는 무사 가운데 사토 노리키요(佐藤憲清)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왕을 호위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의장 역할을 했다. 풍류가로 알려진 노리키요는 황실 주최로 열리는 시가(詩歌)를 읊는 연회나 활쏘기 등의 연회에는 꼭 초대됐다. 그런데 그는 일찍부터 불도에 뜻을 두고 출가하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노리키요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이 출가를 생각하던 친척 노리야스(憲康)가 급사했던 것이다. 죽기 전날, 노리야스는 노리키요에게 "이 세상은 꿈처럼 무상하기 때문에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리키요는 결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 저녁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언제나처럼 4살짜리 딸이 다리에 달라붙었다. 그는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지금까지 출가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식 때문이다. 딸년이야말로 방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발로 차버렸다. 딸은 물론 집안의 사람들 모두 놀라서 울었다. 단지 처만은 남편의 출가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그 후, 노리키요는 굳게 결심한 대로 힘껏 자신의 상투 밑동을 잘랐다. 자른 머리카락을 부처님을 모신 지불당(持佛堂)에 던져버리고 집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대로 서산(西山)의 승려 문하에 들어가 출가했다. 사이교(西行)라는 불명을 받았다. 그는 속진을 벗어나 불도에 들어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초암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고 자유자재
둔세의 삶 일관, 2090수 시 지어

이 이야기는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사이교(1118~1190)의 전기를 그린 것으로 13세기 중반에 나온 〈사이교 이야기(西行物語)〉 전4권 가운데의 일부분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심금을 울린다.

사이교는 고대 말에서 중세 초에 걸쳐 활동한 승려이자 가인(歌人)이다. 무가의 자제로 태어나 실제로 왕실의 호위병으로 관직에 올랐다. 그러던 중 갑자기 1140년 22세에 출가했다. 출가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 말고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쟁에 대한 실망 또는 궁중 여인과의 실연 등 여러 설이 있다. 원래의 불명은 엔이(圓位)였지만 후에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사이교로 고쳤다. 그만큼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기쁘게 구하는 '염리예토 흔구정토(厭離穢土 欣求淨土)' 의 생각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이교는 평생을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고,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둔세의 삶을 일관하면서도 전국을 돌며 2090수의 시를 지었다. 그 가운데 265수가 왕명에 의해 편찬된 시가집인 칙찬집(勅撰集)에 입선됐다. 그의 가집에는 〈산가집(山家集)〉,〈문서집(聞書集)〉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앞의 〈사이교 이야기〉 처럼 그의 전설을 담은 이야기책들이 나왔다.

출가 후 지은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언제 긴 잠의 꿈에서 깨어 놀라울 것도 없게 될까나." 놀라울 것도 없다는 것은 만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심지를 말한다. 즉, 무명의 미몽에서 깨어 언제나 불도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읊은 것이다. "세상을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마음,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몸이여."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했음에도 지난날 추억이 서린 서울에 대한 번뇌망상이 내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집착을 버렸음에도 주변의 벚꽃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시들을 읊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경기도 포천 금룡사 자연산 된장
신토불이 우리 된장 맛보실래요?
경기도 포천군 금주산 금용사에서 약수물로 담근
우리 전통된장을 불자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된장은 700m 고지에 있는
바위틈에서 나온 약수물로 간장을 빼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맛좋은 된장입니다.
맑은 공기와 오염이 전혀 없는 자연 속의 햇빛으로
빚어진 전통 재래식 된장을 멀리까지 오시지 않고
택배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로 된장은 10~20년 동안 숙성된 된장입니다.
된장 1Kg 1만원 (택배비 별도)
국민은행 034-01-0005-134 예금주 임성환
문의 전화 010-5261-4405/031)533-4405

화제의 신간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各各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子平眞詮 精解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 744쪽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법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법사(法師) 양성에 교학의 열정이 피는 곳

"바닷가 조약돌이 고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속에 파도와 어울리며 함께한 결과이듯이 법사(法師)라는 명칭 사용과 행보도 많은 역경을 견디어 낸 결과로 오늘날 일반 불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또 법사 명칭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 포교가 확충된 것이고 더불어 불심견고와 선근 불사가 잘 다져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불교 법사양성에 혼과 열을 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학장 지일 스님)은 1991년도 처음 개창하여 올해로 제20기 법사 학인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당시 불교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교계에 훌륭한 대덕 스님들과 법사 관계자들이 지지하고 주축이 되어 함께 의견을 모아 불교가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절실한 시대정신에 부합 하고자 법사 양성에 뜻을 모으고 1991년도에 처음 법사 학인을 모집한 것이 설립 배경이다.

소재지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 건학이념은 대승불교 정착을 위해 선도와 구현의 길을 열어가는 불교지도자인 법사양성을 위한 것이며 대학의 모토는 깨달음의 법(法). 전법하는 사(師)로 되어 있다. 그간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에서는 졸업생이 약 2500명에 이른다. 학제 편성은 법사과정 1년, 대학원과정 2년, 불학연구원과정 5년, 불교석학과정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과정으로는 불교의식과정이 있다.

또한 서울 본 대학 본원을 비롯하여 지방거주(통신)학인들을 위한 학습강좌 교육원이 부산 · 제주에 갖추고 있으며 참선실수를 하는 중앙 참선도량인 산중사찰 삼봉사가 서울 정릉에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오직 법사가 되는 자질향상과 불교 지성인의 인격을 갖추는 교육으로 지도 교수하고 일반 불자의 교양수준을 넘어 전문화된 법사교육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학문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론과 수행이 겸비 되게끔 교육 하며 특히 사찰 기본의식습의가 되어 법사의 정신과 책무를 자족자수 되어 지도록 하는 교육적 탁마 자세를 의식화 하는 내용의 특성화 교육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설하는 학장 지일 스님은 시대변화에 불교가 대처하는 방안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을 법사 양성을 통해 불교의 책무와 역할이 성취된다고 하였다.

20년 전만해도 법사(法師)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게 느껴져 일반 불자들 사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교신행에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불교의 역할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을 선도적으로 부응해 나아가야 하는 대중불교 · 생활불교가 되어짐에 따라 불교에 대한 신해와 행증의 앎도 매우 폭 넓게 열려 있다.

이러한 불교의 책무를 생활 속에서 펼쳐나갈수 있는 담지자를 양성하는 절대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에서는 법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2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오직 법사양성에 교학의 열정을 펴고 있으며 법사 자격을 갖춘 본 대학 동문들의 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연꽃의 향기를 피우고 있다.

본대학 교무처 : 02)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0기 법우들의 하계수련회 모습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인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법사양성을 위해 20년 세월을 엮다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

"이제는 우리 대학이 법사 양성 교육도량으로서 공적인 입지 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어 졌고 법사양성 교육 단체로서도 위상 선두에 손색이 없을성 싶습니다."

불교 법사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오직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법사교육에 헌신 일로한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 학장 지일 스님은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의 위상 선두에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법사양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불교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은 오래전부터 불교계에 널리 알려져 호평이 자자한게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법사양성교육이 독특한 교육방법으로 전문화, 특성화 되어 있어 출가 · 재가를 구별치 않고 불교학문교학을 통해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불교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수 있고 나아가 불교에 대한 이론과 체계를 정립하여 학문적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배움의 도량으로 그 중심에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불교법사대학만이 보유한 오랜 경륜의 힘과 교육적 체계의 내실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에 그러함인 것이다. 특히 법사양성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기에 더더욱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의 입지 가치와 존재 역활을 통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법사양성은 곧 무위불사 입니다. 사사불사(事事佛事)도 중요 하지만 법사양성을 통해 불심의 씨앗을 널리 심는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보리장엄(菩提莊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에 의해 뛰어난 이수자가 탄생 되듯이 법사관련 학문연구자료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것은 한국불교법사대학만의 독특성 이라고 학장 지일 스님은 역설하고 있다.

학장 지일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불교학문 연구를 위해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수학중이다.

신간

'천자문은 광활한 우주'

철학 · 불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한자 이론

고려 · 조선시대 보다 오히려 오늘날에 이르러 한문 학습자들에게 천자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무수한 천자문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 고대전통침구학자인 천명일의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은 기존에 발행된 천자문 서적 중에 단연 돋보이는, 오랜 시간 동안 천자문 관련 서적 무리 중에서 군계일학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을 명저임에 틀림없다.



우선 이 책에는 독자들이 전율할만한 저자의 박학다식한, 지적인 내공이 녹아들어 있다. 부산불교경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불교연구가이자 불교이론과 철학과 관련한 수많은 저서들을 남긴 저자는 불교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동양고전과 사상, 의술, 침술, 역학 등으로 천자문을 풀어내며 4자 1구 250수로 이뤄진 천자문의 요체를 밝힌다. 여러 우화들을 예로 들어 심오한 철리가 숨겨져 있는 천자문의 글귀들을 쉽게 풀어내며 천자문의 진정한 대중화를 돕는다. 불교 지식 이외에도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 다양한 종교에 대한 단상 등이 천자문과 함께 글 속에 녹아있다.

천명일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옛 고대 성인들의 해석과 오늘날의 학식, 지식, 상식으로는 현대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천자문에는 초월적, 3차원적,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천자문을 책으로 엮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 가치이기도 한 초월적 · 3차원적 · 영적인 세계들은 종교나 사상을 떠나 매우 보편적으로 와 닿는다. 이유가 무얼까? 그것은 저자가 오로지 온 인류의 본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데서 기인한다. 저자는 비록 "너를 알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좇아 천자문을 풀었지만 지혜와 철리를 종교적 틀에만 가둬두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이다 불교적이라며 표현하는데 참 답답하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 등 무궁한 세계가 있다. 예수와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을 논한다. 그러나 종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과 의식의 문제 아닌가?"

천명일 지음 | 지혜의나무 펴냄
신국판 | 533쪽 | 값 18,000원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법화경 해설)

사람답게 살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 법화경 해설.

불교 경전하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법화경 해설)」은 그런 독자들에게 희망이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황명찬은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던 노하우와 30여 년간에 걸친 불교공부를 접목하여 불교경전 법화경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요점을 정리하고 비유와 반복을 통해 경전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수행에 접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동중우의 사진 30여 장이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한 법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비로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지혜(佛智慧)를 가지고 있어 본래 부처이고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즐거운 곳이라고 설한다. 우리 마음에서 시비분별을 버리고 아상을 비롯한 모든 상을 버리고 나면 이곳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행복의 땅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강이 바다로 귀일되듯이 법화경 이전의 모든 가르침은 〈법화경〉이라는 큰 바다에 귀일한다.

법화경에서 붓다는 말법시대의 사람들에게 법화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우선 우리는 말법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법화경〉이 그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되는지 알아야 하겠다.

황명찬 지음 | 동중우 사진
지혜의나무 펴냄 |
신국판 | 240쪽 | 값 12,000원

감사의 표현, 포교용으로 좋은

2012년 불교 다이어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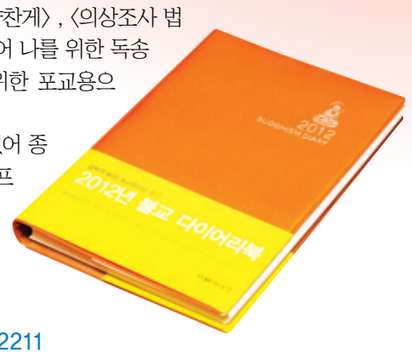
불자라면 누구나 기도와 교리 공부에 충실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 누가 물으면 말문이 막힌다. 사천왕과 보살들 그리고 간단한 불교 상식들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말을 못한다. 그럴 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다. 바로 불교 다이어리북이다.

매일 매일 음력과 간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구들이 하루하루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일간격으로 불교 상식이 소개된다.

또한 불자 독송집처럼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과 정근〉,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화엄경 약찬게〉 , 〈의상조사 법성게〉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나를 위한 독송집이며 다이어리로, 타인을 위한 포교용으로 손색이 없다.

절에 가는 날이 표현되어 있어 종교활동에 활용성이 높고, 스프링으로 제본되어 있어 펼치고 접어서 쓰기에 편리하다.



값 8,900원 /
지혜의나무 발행 (02)730-2211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27cm
④ 약쑥초 밀대 4.7∮×25cm
⑤ 약쑥초 1호 5.9∮×18cm
⑥ 약쑥초 2호 5.9∮×14cm
⑦ 약쑥초 3호 4.7∮×13cm
⑧ 약쑥초 4호 4.7∮×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타인 향하던 눈을 내게로

틱낫한 스님 '화해' 통해 지혜와 수행법 전해



'화해'는 건강한 현대인에게 필수 덕목처럼 여겨지는 단어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화해'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화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남을 용서하거나, 남에게 용서받기 위해 '화해'를 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틱낫한 스님은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에서 나 자신과 '화해'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내가 항상 화를 내고,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까닭없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다섯 살짜리 아이 때문이라는 것.

스님은 이 아이가 상처를 지니고 있어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화해'를 위해 타인을 바라보던 눈을 우리는 이제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달래주는 편지를 써야한다. 타인의 마음 속 아이의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에서 마음속 응어리와 트라우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8가지 지혜와 7가지 수행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결국 스님이 전하는 일종의 심리 처방전인 셈이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 내면의 아이는 "나 여기 있어. 나를 좀 돌봐줘"라며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 빠져 있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틱낫한 스님은 한 번의 고요한 호흡, 한 번의 고요한 발걸음을 권한다. 이를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태에서 잠시 빠져나와, 밖에서 구경하듯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면의 아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의 아이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어릴 적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내 안의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후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다시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틱낫한 스님은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에서 이런 상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를 이어온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부모와 갈등하지 않게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타인과 더욱 조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 안의 아이를 치유하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상처까지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배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화는 나를 찾아가는 행위

불화(佛畵)는 단순한 그림이전에 구도이자 공양이며, 수행의 과정이다. 불화는 '오방색(五方色)'이라 불리는 5가지 남짓한 색으로 그려지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그림이다. 단순한 도상과 색채로 변화무쌍한 현실세계를 무화(無化)시켜 피안(彼岸)의 세계를 표현한 철학적인 그림이기 때문이다.

저자 양선희(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작가는 불화 전통의 바른 계승과 불화가 현대사회에 지혜와 자비의 꽃으로 나투길 염원하며 〈불화, 출초에서 이운까지 법화의 세계〉를 펴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불화의 전통적 기법을 충실히 재현하는데 주력했다. 수많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불화의 출초에서 이운까지, 전통 기법에 따른 불화 제작 전 과정을 책을 통해 생생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만봉 스님(1909~2006)을 은사로 모시고 공부하면서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교육조교가 된 이래, 지금까지 불화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재현의 연구 · 작업에만 몰두해 왔다.

저자는 "불화란 나를 찾아가는 행위로, 불화 조성을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야한다"며 "불보살의 형태에 변함없이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며 가장 성스러움을 가장 단수한 선으로 표현하는 자가 진정한 불모이다"고 밝히고 있다.

불화, 출초에서 이운까지 법화의 세계 | 양선희 지음 | 동재 펴냄 | 1만7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영어로 읽는 대행 스님의 마음법

수행의 참된 의미 제시
한영 합본 개정판 발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애고와 병고, 우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번뇌에 빠져 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큰스님은 일상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실천하는 묘리를 일러준다.

대행 큰스님의 말씀은 한국어와 영어 합본 시리즈로 출간돼 〈생활 속의 참선 수행〉 시리즈 5권으로 최근 개정 · 발간됐다. 이로써 지난 해 발간된 제6권 〈온 우주를 살리는 마음의 불씨〉까지 6권의 한영 합본 시리즈가 출판됐다.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한영 합본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은 이번 시리즈와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가 유일하다. 한마음국제문화원과 한마음출판사는 앞으로도 계속 한영 합본 시리즈를 출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출판된 한영 법문집은 제1권 〈죽어야 나를 보리라〉 제2권 〈함이 없이 하는 도리〉 제3권 〈맡겨놓고 지켜봐라〉 제4권 〈마음은 보이지 않는 행복의 창고〉 제5권 〈일체를 용광로에 넣어라〉 등이다. 이 책들은 큰스님 정기법회 중 스님의 뜻을 잘 함축하고 있는 법문들을 엄선해 영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큰스님은 책 속 법문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세 번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스님은 또 무한한 에너지와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공덕이 무엇인지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에 모든 것을 던져 넣을 수만 있다면 구정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악연도 선연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대행 큰스님이 말하는 마음법의 묘리이다.

큰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떠올리며 책을 읽다보면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가야하는지, 진정한 수행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쉽게 떨치기 어려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감사와 겸허의 삶을 살아가는 길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 발간된 5권의 책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꾸준히 출품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러시아와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국가의 출판사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올해 10월 독일 유수의 출판사 테조이스(Theseus)에서 〈Wache Auf und Lache(깨어나 웃어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또 내년에는 미국의 유명 출판사 Wisdom Publications에서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영문 번역과 편집을 담당한 한마음국제문화원 관계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종교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참선이 되며, 생명력 넘치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 대행 지음 | 한마음국제문화원 펴냄 | 각 5000원

박기범 기자

선수행의 ABC가 여기에



지관수행
천태지의 지음
송찬우 역해
비움과소통 펴냄
1만8500원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닦아 체득함을 강조한다.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의(538~597) 대사가 지은 〈수습지관좌선법요〉는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 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이다.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근 〈수습지관좌선법요〉를 강의 · 정리한 〈지관수행〉을 펴냈다. 책은 〈수습지관좌선법요〉에 따라 지관수행의 점차를 ▷인연을 갖추어라 ▷욕구를 꾸짖어라 ▷번뇌를 버려라 ▷몸과 마음을 조화하라 ▷수행방편을 행하라 ▷바르게 수행하라 ▷선근이 일어난다 ▷마군의 장애를 물리쳐라 ▷병을 다스려라 ▷깨달음의 증과를 얻는다 등 10장으로 구성해 서술했다.

"모든 악업을 짓지 말고 갖가지 선업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한 가르침인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이다.

송 교수는 칠불통계게를 예로 들어 지관수행을 설명한다. '모든 악업을 짓지 말라'는 지(止)에 해당되고, '뭇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는 관(觀)에 해당되며, '스스로 의식을 정화하라'는 지관불이(止觀不二)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 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임으로, 사구게야말로 불법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절실한 요점이라는 것이다.

송찬우 교수는 "칠불통계게야 말로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절실한 요점이다. 불교의 수많은 종파 가운데 어떤 종파의 학문을 연구하던 간에 이 게송을 의지해야만 불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송 교수는 "경율론 삼장(三藏)을 심오하게 연구한다고 해도 핵심을 모르면 바다에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불법의 진실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견을 지닌 외도의 견해를 이룰 뿐이다"라고 말했다.

〈지관수행〉은 부처님 근본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행법으로 불교 수행의 ABC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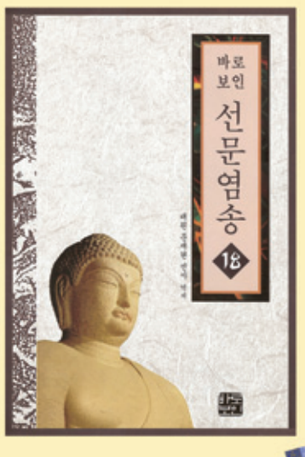
12/7~12/1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3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4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5	엄마수업	법륜	휴
6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7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8	화해	틱낫한	불광출판사
9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정찬주	김영사
10	간화선 창시자의 선	김태완	침묵의향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지관(止觀)은 염불 · 간화선 · 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의 핵심 법문!
지관수행
법공양시 특별 할인!
지관수행
수습지관좌선법요 (修習止觀坐禪法要) 강의
천태지의 저 | 송찬우 역해
신국판 | 흑백 | 456쪽 | 2011년 11월 25일 발행
18,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모든 남 · 북방 수행법의 이론과 실제 결들인 수행 지침서
'지samatha'를 통해 선정을,
'관vipassana'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의(538~597) 대사의 저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탄허 스님으로부터 교(敎)를,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문하에서 선(禪)을 닦은 동현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가 이론과 실제를 겸들여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야생보이차와 침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 향香
다보향 침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침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항균작용, 해충근접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거실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氣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침향(선향) ▷50,000원
야생보이차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식통관,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병차 330g ▷99,000원
산차 50g ▷39,000원
산차 50g ▷ 38,000원
100g ▷ 65,000원
200g ▷110,000원
◇ 특 징 ◇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든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변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원당 다보향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탄허 스님을 팝아트로 만나보자

탄허기념博, 28일까지 특별전
팝아티스트 김영수 씨 연출

근현대 선지식 가운데 대강백이며 선사였던 탄허 스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 한자리서 전시된다.

탄허기념박물관(관장 혜거 · 금강선원장)은 12월 22~28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탄허대종사의 흔적을 찾아!' 전시회를 연다.

행사는 탄허 스님의 글씨와 사진 그리고 법맥을 잇고 있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의 현재를 미술로 표현한 자리다.

전시에서는 조계종 문화부 추천작가인 불교팝아티스트 김영수씨가 현대적인 해법과 시각으로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탄허 스님의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에 주목했다. 스님의 일상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을 캔버스와 사진전문 액자인 디아섹에 인화해 전시한다.

또한 눈여겨볼만한 것은 스님의 가르침과 모습을 팝 아트 형식으로 설치해 친근감을 더한 것. 김영수 작가는 탄허 스님의 글씨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색을 넣고 한글 설명을 붙인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혜거 스님의 지도방식인 집중표와 잔상지를 이용한 설치 작품과 로봇, 주얼리 등을 전시해 현대 불교미술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작품 'Merry Christmas', '로봇에도 불성이 있는가'와 탄허 스님을 배경으로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 '위드탄허' 등 창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혜거 스님은 "오로지 후학을 위해 일생을 바쳐 전통강원의 전 교재를 모두 번역해 정리해주신 스님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해 특별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소중한 불교문화 유산을 전시해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에게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의 작품판매수익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에 기증돼 캄보디아 중학교 건립 기금 후원에 쓰일 예정이다. (02)445-8486 이나은 기자


유 · 불 · 선 삼교(三敎)에 통달한 탄허 스님은 한국 불교의 대강백이며 선사로 꼽힌다. 사진은 탄허 스님의 강의 모습



탄허 스님의 글씨 '각유신(覺有神)'을 팝아트 형식으로 표현했다.

탄허 스님은 …

탄허 스님(1913~1983)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22세에 평창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유 · 불 · 선 삼교(三敎)에도 통달한 탄허 스님은 한국 불교의 대학자로 꼽힌다. 1939년 당시 27세였던 스님은 '화엄산림'을 개설해 〈신화엄경합론〉을 현토(懸吐, 한문에 토를 다는 일)한 후, 입적까지 역경사업을 이어나갔다.

탄허 스님은 불교의 기본경전을 총망라한 15종의 경전을 국역해 74책으로 간행했는데 원고 매수만 10여 만장이 넘었다고 한다.

이 같은 탄허 스님의 업적은 오늘날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님의 역경 사업은 조선조 초기 역경 이후 최대의 역경사업이었으며, 스님의 역경 불전(佛典)은 전국 불교강원의 교재로 사용돼 왔다. 그 결과 수많은 신도들이 불교 경전에 대한 손쉬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한국불교계의 신앙양상이 단순한 기복신앙에서 진리탐구 수행신앙으로 바뀌게 됐다.

잔잔함이 주는 큰 파문

김양수 그림 시展, 1월 9일까지 서호갤러리서


김양수 작가의 작품 '별'

그대 있어 지루하지 않는 밤하늘/ 그대 있어 꽃들과 새들도 잠들 수 있다/ 그대와 함께 살아온 날들이기에/ 그대 웃음 닮아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 시 '별'

김양수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는 자연과 생의 고요를 포착해 짧은 시와 명상적인 그림을 그려낸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자연에서의 일상을 짧은 마디마디로 표현하는 김양수 화가의 작품에서는 그의 무한한 감성들을 볼 수 있다.

김양수 화가는 이러한 시와 그림을 곁들여 아름다운 시화집 〈고요를 본다〉(바움刊)를 펴냈다. 이를 기념해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서울 서호갤러리에서 30여 점의 작품과 시(詩)도 전시한다.

김양수 화가는 도심에서 벗어나 안성 동막골 적염산방(寂拈山房)에 머물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 되는 삶을 화선지에 간결하고 소박하게 담아냈다.

그의 시와 그림에는 새 벌레 닭 개구리 고양이 꽃 나무 나비 눈 달 별 바람 호수 등과 같은 친근한 자연 대상이 나온다.

김양수 화가의 시와 그림에는 거대한 질서로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치열함과 엄격함이 잘 깃들어져 있다. 동시에 그 자신도 대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경외감과 겸손함 또한 잘 드러나 있다.

"내 그림은 내가 완성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이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 그림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여백을 통해 답을 찾는 거죠.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림들은 여운이 없거든요."

김양수 화가는 한국화 화가답게 여백을 중요시 여긴다. 화선지위에 잔잔한 여백 사이로 그린 그림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화두를 던진다.(02)723-1864 이나은 기자

연말연시 불자연예인 공연 '다채'

연말연시를 맞아 공연과 행사가 다채롭다. 불자연예인을 위주로 공연일정을 모았다. 올 겨울, 가족 · 연인과 불자연예인의 공연을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루시드폴 콘서트
(12월 24~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2월 29~31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해마다 열리는 루시드폴의 연말콘서트가 돌아왔다. 올해 겨울은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라는 제목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몇 달 전 성공적으로 투어를 마친 '목소리와 기타 2011' 이 목소리와 기타, 약간의 관악세션만이 어우러진 무대였다면,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은 여기에 더 다양해진 악기들과 루시드폴 5집 앨범에 수록 될 곡들이 더해져 훨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웅산 콘서트
(12월 25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은 6집 정규앨범과 그녀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곡을 비롯해 재즈풍으로 편곡된 크리스마스 캐롤 등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는 무대를 선보인다.

장윤정 디너쇼
(12월 23~24일 63컨벤션센터)

2011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비롯해 첫 번째 중국 투어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친 장윤정은 2011 한해 동안 사랑 받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이 담긴 송년 디너쇼를 선물한다.

송해 빅쇼
(2012년 1월 8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

영원한 방송인 송해(84)가 생애 최초, 지상 최대의 '송해 빅쇼'를 펼친다. 1955년 창공악극단에서 데뷔한지 56년째인 그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초대형 버라이어티 콘서트 '나팔꽃 인생 송해 빅쇼'를 연다. 송해는 가수 사회자 코미디언 연기자 악극인 국악인 만담인등 자신이 걸어왔던 '총체적 예능인'으로서의 재능과 땀과 열정을 한무대에 쏟아 붓는다.

풍경소리 33집 앨범 발표



좋은벗풍경소리(회장 자용)가 찬불동요 창작곡 33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제작된 새 음반에는 ▷절의 등대 등불 ▷우리 함께 ▷구름에 물든 절 등 8곡이 수록됐다. 또한 앨범에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반주 음악도 함께 실렸다. 좋은벗풍경소리는 1994년 찬불동요 창작곡집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 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와 어린이 법회 등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된다. (02)723-9836 이나은 기자

박물관으로 용 보러 오세요

국립민속博, '용, 꿈을 꾸다!' 展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2012년 임진년(壬辰年) 용띠해를 맞아 '용, 꿈을 꾸다!'전을 2012년 2월 27일까지 박물관내 특별전시장에서 연다.

용 관련 유물 85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락인 '용(龍)과 진(辰)'에서는 용을 장식문양으로 한 다양한 유물들과 시간과 방향을 십이간지(十二干支)로 표시한 해시계, 나침반 등을 전시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용이 표현된 유물을 전시하며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 '등용문(登龍門)'과 같은 익숙한 말을 표현한 유물들을 전시한다.


봉황 · 용으로 장식한 이층농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그림으로 말하기, 민속으로 안아주기'에 참여한 노원중학교와 백운중학교 특수학급 아이들 18명의 공동작품 ' 우리들의 용꿈 '이 제작과정 사진과 함께 전시된다. (02)3704-3114 이나은 기자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 얀 마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헤호 **7**일 1,840,000원

▣ 3월 출발

◇ 양곤 I 바간 I 헤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I 바간 I 헤오 I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유류할증료 불포함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I 장가계 I 원가계 I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02)365-7747

전각도 석탑도 시간을 초월해 가르침 하나로 서 있네



가람배치가 수려한 구례 화엄사 (하)

보제루를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돌아 서는 순간 나팔수씨는 깜짝 놀랐다.

"와,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것 같다."

"그 표현 참 근사한데? 이 장면이야 말로 오래 기억될 한 장의 사진이고 말고."

화엄사의 중심 영역에 들어선 부부는 적묵당 앞에서 각황전과 탑 그리고 웅장한 돌계단과 여러 전각들을 한눈에 바라보며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 널찍한 마당에는 두 개의 탑이 서 있다. 각황전과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돌계단도 상당히 규모가 컸다. 전각들이 위치한 석단이 유별나게 높아 보였고, 전각들도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우아하게 보였다.

"어느 것 하나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각자가 긴 시간의 역사를 품고 있다고 해야 하나?"

중얼거리듯 낮게 말하는 지혜장의 마음을 남편도 알 것 같았다. 부부는 입을 꼭 다문 채 탑 앞으로 가서 합장 반배를 했다. 동서로 나눠 서 있는 탑은 오층이었고 서쪽탑(서오층석탑 보물 제133호)은 기단부터 화려한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반면 동쪽의 탑(동오층석탑 보물 제232호)은 별 장식 없이 소박하게 서 있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처럼.

"이 마당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뭔데?"

"시간이라는 것."

"시간? 아, 이 탑들이 삼국시대 때의 것이라서?"

지혜장의 의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이 높다란 석단위에 지어진 명부전 대웅전 영전 원통전 나한전 그리고 각황전과 석탑들이 창건 이후 긴 시간동안 생멸을 거듭하면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다.



화엄사의 상징 사사자 삼층석탑과 석등

"이 마당에 서 있는 탑은 삼국시대의 것이고 저 위 건물들로 올라가는 돌계단 역시 삼국시대의 유물이야. 신라 혹은 백제의 시간을 밟고 올라간 곳에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위용을 떨치고 있지? 각각의 건물들이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정성스럽게 지어졌어. 각황전의 경우 그 자리에 신라 때 의상대사가 세운 장륙전이 있었다고 하니, 신라의 시간 위에 조선의 건물이 세워진 것이지. 그 건물에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 예불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듣고 보니 그러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탑과 건물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포개져 있는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군."

지혜장은 남편에게 불교가 설정하는 시간의 단위를 설명하려다 그만두기로 했다. 유순, 겁, 나유타를 비롯해 항하사에 비유되는 개념들을 일일이 설명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므로.

부부는 천천히 대웅전으로 오르는 돌계단을 밟았다. 한 계단씩 오르며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품고 이 계단을 올랐을까를 생각했다. 큼직큼직한 돌들로 만들어진 계단 중간에 세로로 경계석을 두어 모두 네 칸이 되게 했는데 그 칸칸의 너비가 중간은 좁고 바깥쪽은 넓은 것이 재미있었다. 재미삼아 세어보니 계단은 모두 18개였다.

대웅전(보물 제299호)은 벽암 각성 스님이 인조8년(1630)부터 6년 동안 중건했다. 왼쪽에 각황전이

대웅전 각황전 등 전각 임진란 이후 중건
탑 석등 돌계단 등은 삼국시대 모습 간직

라는 웅장한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 대웅전 자체는 매우 웅장하고 맵시가 뛰어난 건물이다. 네 귀의 활주가 돋보이고, 한 칸에 문이 3짝 씩 달려 있는 전면은 모두 5칸이나 된다.

명부전과 영전, 원통전, 나한전을 거쳐 각황전 앞에 선 부부는 적묵당 방향으로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봐도 멋진 풍경이야. 앞산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지만, 저 아래 마당이 좁아 보이지도 않고 건물들도 하나같이 거기 있어야 해서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지혜장이 네 마리의 사자가 떠받치고 있는 탑신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사자탑(보물 제300호)은 탑이 아니래. 정확한 용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글쎄,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게 생기셨군. 저쪽은 석등이 확실한 것 같은데."

나팔수씨가 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은 높이가 6.36m나 된다. 큼직한 팔각 지대석 위에 팔각의 기단을 놓고 그 위에 배가 볼록한 간석을 놓았다. 이 맵시 있는 간석 때문인지 그 위의 앙련석과 한 칸 건너 화창이 뚫린 화사석, 옥개석 등이 다소 육중해 보인다.

"나는 절에서 이런 멋진 석조물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했다고 생각해.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었을 그 시절에 순전히 손으로 이런 걸작을 만들었으니 말이야."



적묵당 앞에서 바라본 각황전. 조선 숙종 때 지어졌으며 그 전에는 의상 스님의 장륙전이 있었다.

"기계는 발달했어도 사람의 정성은 퇴보했는지 모르지. 이 석등을 만든 석공의 마음과 요즘 그라인더를 좍좍 갈아서 공사하는 석공의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있겠어? 종교나 예술이나 마음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그 내면의 진실이 보이는 법이거든. 여기 각황전은 조선 숙종 때에 지어졌지만, 그 전에는 의상스님이 지은 장륙전이 있었다고 해."

의상대사의 시절에는 장륙상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륙상은 높이가 1장 6척, 즉 480㎝의 불상이다. 의상 스님은 3층에 좌우 48칸의 장륙전을 지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작 장륙전의 가치는 불상의 크기보다 그 벽을 장식했던 석경(石經)에 있다.

의상 스님은 지리산에서 나는 청석(곱돌)을 다듬어 만든 판에 〈화엄경〉을 새겨 석경을 만들었다. 그 석경으로 장륙전의 벽을 장식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나온 〈동국여지승람〉에 "네 벽 모두 흙을 바르지 않은 청석벽인데 여기에 화엄경을 새겼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니 임진왜란으로 불타기 전의 장륙전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왼쪽 출입문으로 들어 간 각황전(국보 제67호) 내부는 엄숙 그 자체였다. 밖에서는 2층이지만 안에서는 통층이다. 높은 단 위에 모셔진 삼존불과 사이사이의 4대 보살님을 향해 정성껏 절을 했다. 굵은 기둥 옆에서 절을 하던 나팔수씨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절집은 종교 예술 역사의 종합박물관
눈에 안 보이는 가르침 읽는 눈 갖춰야

'일생에 몇 번이나 이 곳에서 삼배를 할 수 있을까?'

삼국시대에서 오늘날까지의 시간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 시간을 어깨에 올리고 살아간다 해도 언제 또 이곳에 와서 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존재 그대로 무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감정을 아내에게 말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이번 생만 살고 말거야?'

각황전을 나온 부부는 다소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지혜장은 각황전 불사에 얽힌 이야기를 했다. 계파 스님과 노파, 숙종과 공주가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다. 각황전이라는 이름도 숙종의 불사 동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나팔수씨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효대(孝臺). 각황전 서남쪽 높다란 언덕의 이름이다. 화엄사의 대표적인 아이콘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이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엄사는 못 가봤어도 이 삼층석탑 사진은 보았을 것이다. 석탑의 양식도 독특하지만, 화엄사의 창건주인 연기조사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설이 전해져 유명해진 것이다.

"야, 이 탑의 실물을 보게 됐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탑은 꼭 보고 싶었거든."

나팔수씨가 사사자 삼층석탑 주변을 돌며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신바람이 난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이 탑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어머니고 석등을 이고 앉아 있는 분이 연기조사라는 거지?"

"전해오는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학술적으로 이 탑의 기능과 조성연대 등은 그 얘기와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건 그야말로 학술적인 얘기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연기조사의 효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탑으로 남겼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탑의 부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지혜장은 남편의 말에 공감했다. 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이 자리에 서 있었을 탑. 지금 이 형상 그대로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에 닿아 있는 소박한 깨우침 하나로 충분할 테니까.

"사자는 지혜의 상징이고 제왕을 뜻하지. 그런 사자 네 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탑은 얼마나 존귀한 것이겠어? 그 귀함 속에 서 계신 인물이 부처님이든 연기조사의 어머님이든 상관없어. 어쩌면 이 탑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저 탑 속의 인물상에 오버랩시키고, 다시 석등 속의 인물도 자신이라고 여긴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겠지."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특허등록(30-0607637)

法性偈 十波羅密圖 制作·普及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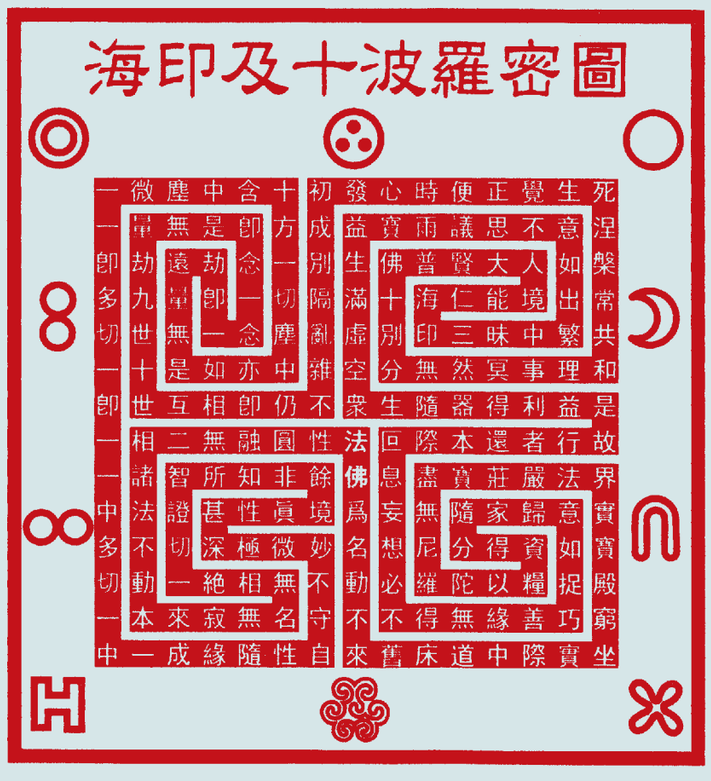
법성도는 의상대사께서 최상경의 화엄경 십지요체정법입니다

타.외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符籍 보다는 천만배 이상 영험과
수승한 공덕이 있는 **법성게십바라밀도**입니다.



※ 법성도는 楮紙(딱종이)에 槐黃紙를 수공업으로 염색하여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의 포교용으로 염가 제작하여 드립니다.

예수재용, 호신용, 사경용, 액자용, 복장 점안용 등
사양에 주문제작합니다.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憧碍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일체마장이 소멸한다.

법 성 원 전화 051)532-1113 팩스 051)557-4811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노화조절 장수비결 따라 하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내외에서 '노화 방지를 위한 계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저자도 조선시대 장수집안의 비결을 분석한 〈명문가의 장수비결〉을 출간한 바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따라 해야 할까?

그대로 따라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첫째, '마음 건강의 달인'이자 '자기 절제의 도사'였던 분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병장수를 위한 양생(養生)의 첫째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년기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한다. 장수한 선비들을 보면 귀양을 가서도 학문에 열중하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저술을 계속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무려 73세까지 생존하였던 공자(孔子)의 장수에도 쉴 새 없이 몸과 마음을 써서 노력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자는 마음이 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비로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천체의 운행이 쉼 없듯이 군자도 항상 움직이고 활동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노화학자인 히노하라 박사의 예를 보자. 그는 '인생에 은퇴는 없다'는 신념 아래 죽을 때까지 평생 현역으로 뛰겠다며 10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심장내과 진료를 담당하며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일본 전역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꼽히고 있다.

셋째, 절식(節食)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소식(小食)은 옛날부터 건강 장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쉽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몸이 가벼워야(輕身) 노화가 억제되어(耐老) 수명이 늘어나기(延年) 때문이다. 대표적인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식량을 절약하여 많이 먹지 않는 것으로 첫째가는 경륜(經綸)이자, 양책(良策)을 삼는다"고 했다. 그것은 가난한 살림 탓도 있었겠지만 의학에도 능통했기에 소식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병팔 교수(텍사스주립대 노화연구소장)를 비롯한 세계적인 노화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노화 조절법이 바로 소식이다. 저산소증을 개선하여 에너지 생성을 유지시키고 세포의 손상과 사멸을 방지하며 활성산소와 활성질소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노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라쓰 박사팀이 원숭



사찰음식은 질병을 치유할 해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게 먹이를 10% 20% 30%씩 줄여 먹인 실험을 한 결과 30% 줄여 먹인 집단의 평균 수명이 연장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장수한 선인들이 먹었던 것이라고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과 약은 없기 때문이다. 구기자 국화 마 녹차 고사리 고구마 등은 기막힌 효과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영조대왕이 자신의 건강장수 비결로 꼽았던 인삼(홍삼)을 비롯해 산수유 알로에 매실 은행 등 건강기능식품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해가 되기 마련이다.

장수비결을 제대로 따라 하기 위해선 옛 선비들처럼 한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한다. 허목 윤선도 이익 정약용 등은 의약에 능통해 당대 최고의 명의 반열에 들 정도로 이름을 떨쳤던 '유의(儒醫)'였다. 또한 내의원의 제조로서 〈동의보감(東醫寶鑑)〉 서문(序文)을 쓴 이정구와 생활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동의보감 이후 가장 방대한 한의서를 담았던 서유구도 거의 의원 수준이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양생법을 알고, 실천했기에 장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온갖 공해와 환경호르몬, 인플루엔자, 유해색소 첨가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요즘의 실정에서는 더더욱 건강, 의학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신의 체질에 적합한 건강법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중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한의학 공부를 해서 양생법을 실천하거나, 음식 섭취를 비롯한 모든 건강을 살펴주는 주치의를 두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복잡한 업무나 온갖 공해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매일 운동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계일(戒溢)'의 교훈을 본받아 중용(中庸)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몸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14〉

감사해 하면 나부터 행복해져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오늘 하루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지, "불행하다" "밉다"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문장을 읽었으면 한다.

남태평양 어느 섬 원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를 쓰러트리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쓴다. 톱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트려야 할 나무 주위에 원주민들이 삥 둘러선다. 원주민 모두가 3일 밤낮 동안 나무를 향해 고함을 지른다. 그 고함 소리에 나무는 결국 쓰러진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 말의 위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 마사루는 물(水)에 대고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을 했을 때, 물의 반응을 영상으로 담았다. 수년간의 연구 결실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책으로 편찬됐다. 똑같은 병에 물을 넣고 그 물

언어는 업을 짓는 근원이자
동시에 부처될 수 있는 자리

에 "사랑한다" "고맙다" "예쁘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글자를 보여주면 그 물이 다이아몬드의 예쁜 결정체를 형성한다. 또한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어도 다이아몬드 형상 같은 예쁜 영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물에 "망할 놈" "밉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무서운 형상을 보여주면 물이 파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흩어졌다.

또 똑같은 그릇에 3개의 밥을 담아 두고, 한 달 동안 매일 똑같이 한 그릇에는 '고맙다, 예쁘다'는 말을 해주고, 두 번째 그릇에는 '망할 놈, 밉다'라는 욕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은 한쪽 구석에 두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한 달 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지 상상해보라. 각각의 그릇을 보니, '고맙다, 예쁘다'라는 말을 들은 밥은 발효된 상태로 누룩처럼 푸근한 향기를 풍겼고, '망할 놈, 나쁜 놈'이라고 들었던 밥은 부패하여 까맣게 변했다. 그런데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밥은 더 부패되어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더니 맞는 말인가 보다.

어쨌든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희노애락, 그 느낌(受)과 감정을 무정물도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 말의 위력이란 대단한 것만은 사실이다. 일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부부가 대판 싸운 뒤, 그 입김을 모아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을 일정한 공간에 가둬두고, 그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했다. 화가 날대로 나 있는 그 사람의 타액을 검사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됐다. 반대로 즐겁게 웃고 행복한 사람의 뇌를 조사해보니, 독성을 중화시키고 나쁜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됐다는 발표이다.

말로 인해 무정물까지도 감정을 드러내는데, 인간이 뱉은 말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복을 준다고 하는 이론이 타당함을 입증한다.

인간은 몸과 입과 뜻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를 3업(三業)이라고 한다. 이 3업을 청정한 행으로 바꾸는 것이 불교의 기본 수행이다. 특히 입으로 지은 나쁜 업(口業)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 첫머리에 정구업진언이 있고, 5계에도 불망어(不妄語)가 등장한다. 말과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원결과 화를 부르는 화근의 문이지만, 한편 기도나 수행 방편으로 언어와 말을 활용한다면 그 입이란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된다. 즉 말과 언어는 업을 짓는 근원이자,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언어나 말은 무정물도 변화시키고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이나 언어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 곧 말을 통해 진심을 담아내기도 하고, 말을 통해 상대에게 나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하는 폭력이 더 무섭고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늘 가까이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모르는 사람,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진심 어린 감사를 전달해보자. 존재들을 떠올리며 "예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성공하십시오 아름답다 훌륭하다" 등 이왕이면 이쁜 단어들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감사명상을 보는 일이다. 감사명상을 하고 나면 자신부터 행복할 것이요,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될 것이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불교와 한의학(4) 깨달음의 식물 연(蓮)

중생의 마음까지 치유해

연(蓮)은 불교 이전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부터 우주의 창조와 생성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다. 연에는 크게 연과 수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연은 수면 위로 올라 온 잎과 꽃이 있으며, 연잎에 발수성이 있어서 물에 젖지 않는 반면, 수련은 잎과 꽃이 모두 수면에 닿아 있으며, 연잎에 발수성이 없어서 표면이 물에 젖는다. 민태영 등의 〈경전 속 불교식물〉에 의하면, 불교 경전에서는 대부분 연과 수련을 구분하지 않고 발두마화(빠드마), 우발라화(웃뜨빨라), 니로발라화(니뜨로빨라), 분다리가화(뿐다리까) 등의 이름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구두물화(꾸무다)'라는 이름의 연꽃은 백수련을 가리킨다. 〈법화경〉을 비롯 〈법구경〉 〈화엄경〉 〈능엄경〉 〈유마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대반열반경〉 등 많은 경전에서 연을 깨달음의 상(象), 부처님의 묘법, 보살행의 청정함과 아름다움 등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연은 서식지와 꽃의 형태 등 그 자체로, 세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속을 바꾸어 아름답고 청정한 보리의 과를 이룬다는 불교의 교리를 구현한다.

한의학에서는 연의 열매와 열매 속의 배아, 씨방, 뿌리, 줄기와 잎, 꽃의 수술 등을 약재로 쓴다. 열매를 연자(蓮子)라 하고, 열매의 육질 부분을 연자육(蓮子肉), 열매 속의 녹색 배아를 연의(蓮薏) 또는 연자심(蓮子心)이라 하며, 씨방을 연방(蓮房), 뿌리를 우(藕) 또는 우근(藕根), 줄기와 잎은 하경(荷梗)과 하엽(荷葉), 꽃의 수술은 불좌수(佛座鬚) 또는 연수(蓮鬚)라고 이른다. 이 중 특히 뿌리의 마디부분인 우절(藕節)은 열독으로 인하여 피가 뭉친 어혈(瘀血)을 잘 풀어주므로, 신선한 것을 찧어 즙을 내어 복용하면 피가 더워서 생긴 각종 내출혈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 연꽃의 개화기인 5~9월은 무더위가 지배하는 기간으로, 이 무덥고 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인체에도 서병(暑病)이 생기기 쉽다. 흔히 '더위 먹는다'고도 하는데, 무덥고 습한 기운이 인체를 침범하여 기운이 없고 진액이 부족해져 갈증이 난다. 한편으론 습기가 차서 몸이 무겁고 감기 기운이 있으며, 배탈과 설사가 나기도 한다. 이 때 하엽과 하경을 말려서 약으로 쓰면 흉막과 격막에 만연한 무덥고 습한 기운을 잘 풀어주어 몸을 가뿐하게 한다. 여성의 갱년기 증후군 중 음식의 소화, 흡수가 잘 안되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혀에 백태 또는 황태가 두텁게 끼며, 입 냄새와 대소변 냄새가 짙은 습열증(濕熱證)에도 하엽경이 들어간 시호달원음(柴胡達原飮)을 적용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 연자는 특히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에 주요 약재로 들어 있다. 청심연자탕은 덥고 습한 기운이 몸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폐(肺)와 심신(心腎)의 장(臟)을 상하여 우울하거나 반대로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잘 나며, 가슴 및 손발바닥에 번열이 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과로하면 소변이 탁해지고 남자의 정액이나 여자의 대하가 새어나가는 병증에 쓴다. 이 때 연자는 무겁고 탁해진 심(心)을 가뿐하고 맑게 해줌으로써 정신을 안정시키고 번열을 없애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한다. 심의 사기를 주로 소변으로 풀어내므로, 복용 초기에는 습열이 빠져나가느라 소변이 더 짙고 탁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소변이 맑아지고, 과로 시 새어나오던 정액과 대하도 나오지 않게 된다. 연자의 배아인 연자심은 특히 심열(心熱)을 내리는 약성이 강하여, 열병의 급성기에 고열로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을 잃는 증상에 쓴다.

한여름 무더위에 연못에 핀 연꽃을 보고 있으면, 지치고 짜증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운이 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은 실제로도 중생의 심을 치유하여 마음을 편안케 하고 맑은 정신이 나게 하는 약성을 지니고 있다.



류정아(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술연구교수)

謹賀 壬辰

瓢巖(謁平)僧伽會
제6차 모임공고

고려말 익재공의 종형이신 목엄당 체원 스님
(각해대사)의 「백화 도량 발원문 약해」
(국보 제 206-25호)를 가문의 종지로 하여
선고 경주이씨 선지식을 찾아 조사당을 건립하고자
원을 세워 그 모임이 6차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와 같이 모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2012년 1월 18일(수) 오전 11:00시
◆장 소 : 통도사 박물관 회의실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대 상 : 표암(알평)공 후손으로 경주 이씨와 분관된 가평, 아산, 차성(기장), 우계, 재령, 합천, 진수, 장수, 평창 이씨 스님

※ 표암공 후손으로 미 가입된 스님께서는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 010-6478-1569

표암(알평)승가회 회장 홍산 현불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삼국 통일전쟁으로 '한민족' 의식 고취

불교는 풍류사상 통섭하며 교육 등 뒷받침

1. '신라'의 시원과 국호

고조선 해체 이후 부여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야를 계승하거나 흡수한 신라는 사국을 통일하고 새로 일어난 북쪽의 대발해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열었다. 후삼국 이후 고려에 귀부한 신라는 고려와 조선 및 대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삼한의 일통 약 한 세기 전에 이미 가야를 합병한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를 무너뜨리고 반도 내 백제의 고토를 흡수했지만 왜국에 대한 그 영향력을 지속시키지는 못했다. 동시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반도 내 평안도 일부까지는 흡수했지만 그 북쪽과 만주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승해 내지는 못했다. 때문에 통일신라는 왜국과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역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 기술의 주체인 역사가들에게 사국 통일의 의미가 절하됐다. 결국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역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제국인 대발해를 아우르기 위해 '남북국'이란 표현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마한을 흡수하고 계승한 고구려와 변한을 흡수 계승한 백제와 달리 신라는 진한을 흡수하고 계승했다. '신라'의 시원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후한서〉에서는 "진나라에서 망명한 이들이 한국에 오니 마한이 동쪽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서로 부르기를 '무리'[徒]하며 진나라 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혹은 진한(辰韓/秦韓)이라 했다"는 진한의 어느 노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 "진한은

'신라' 국호 어원은 서라벌 또는 서벌
슈라바스티 · 사밧터에서 유래 추정돼
'계림'은 박혁거세 왕후 계정 탄생서 유래

열두 개의 소국이 있어 각기 만 호나 됐으며 나라라 일컬었다"고 했다. 한편 최치원은 "진한은 본디 연(燕)나라 사람들이 피난해 왔던 것이므로 탁수(涿水)의 이름을 따고 그들이 사는 읍과 마을을 일컬어 사탁(沙涿)과 점탁(漸涿) 등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일연은 "신라 사람의 방언에 '탁'의 음을 '도'(道)라고도 했기에 지금도 더러는 사량(沙梁)이라고 쓰고 양(梁)을 또한 도(道)라고도 읽는다"고 했다.

나라 이름인 '신라'(新羅)라는 말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 혹은 '사라'(斯羅) 또는 '사로'(斯盧)라고 했다는 주장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일연은 "지금 세간에서 경(京)자를 훈독해 서벌이라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했다. 또 '신라'의 수도이자 국호였던 '서라벌' 혹은 '서벌'이란 이름은 아마도 인도의 '슈라바스티' 또는 '사밧티'로부터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럴 경우 신라의 지배층 일부는 슈라바스티에서 오거나 그곳과 연관된 인물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15대 기림(基臨)이질금(혹은 지증 또는 법흥왕) 때에는 한민족의 꿈에 기초해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德業日新] '사방의 백성을 망라해간다'[網羅四方]는 기치 아래 국호를 '신라'라고 했다.

또 하나의 나라 이름이었던 계림(鷄林)은 박혁거세의 왕후가 계정(鷄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혹은 계룡(鷄龍)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에 계림국이라 했다. 다른 설에는 탈해왕 때에 김알지를 얻어 닭이 숲속에서 울었으므로 국호를 고쳐 계림이라고 했다고 한다. 계림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닭이 울었기에 '시림'(始林)이라고도 했다. '신라가 좁아 떠났다'(?)는 8세기 혜초(704~787)의 오언 율시인 '남천로위언'(南天露爲言)의 끝구절 역시 '계림'이란 국호를 보여준다. 달 밝은 밤 고향 길을 바라보노니[月夜瞻鄕路]/ 뜬구름만 너울너울 돌아가누나[浮雲颯颯歸]/ 편지 써서 가는 편에 부치려 하나[緘書參去便]/ 거센 바람 내 청을 듣지 못하네[風急不聽廻]/ 내 나라는 천산북로 저쪽에 있고[我國天岸北]/ 이 고장은 서쪽의 땅끝에 있네[他邦地角西]/ 남방에는 기러기 조차 없으니[日南無有雁]/ 그 누가 계림 향해 안부 전하리[誰爲向林飛].

2. 신라의 시조 내외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개국조는 왕뿐만 아니라 그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기술하고 있다. 환인의 서자였던 고조선의 환웅은 웅녀를 만나 단군(壇君)을 낳았고, 하늘의 아들인 북부여의 해모수는 하백왕의 첫째딸 유화와 인연을 맺어 주몽(朱蒙)을 낳았다. 고구려의 주몽은 졸본부여의 공주였던 소서노와 혼인했으나 그 이전에 혼인한 예씨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리(琉璃)를 태자로 삼아 왕위에 옹립했다. 결국 고구려를 건국한 뒤 소서노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한반도 남부로 내려갔으며 아들들은 각기 비류백제와 한성백제를 세웠다. 부여에서 이주한 가야의 김수로는 인도의 아유타 공주 허황옥을 만나 거등(居登)을 낳았다. 신라 역시 혁거세왕과 아리영 부인 사이에서 남해(南海)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라 지배층의 주체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한다.

신라의 지배층인 6촌은 고조선 해체 이후 그 유민들이 바다와 육지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남쪽의 경주 일대에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연 역시 "이들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하늘'은 '북쪽의 높은 곳'이면서 '바다'를 거쳐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경주 일대에 정착한 6촌들은 일정한 권역을 관할 지배하면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해 왔다. 노례왕은 9년(32년)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6성(姓)을 내려주었다. 즉 1) 급량부 이(李)씨의 알천 양산촌-중흥부 2) 사량부 정(鄭)씨의 돌산 고허촌-남산부 3) 모량부 손(孫)씨의 무산 대수촌-장복부 4) 본피부 최(崔)씨의 자산 진지촌-통선부 5) 한기부 배(裵)씨의 금산 가리촌-가덕부 6) 습비부 설(薛)씨의 명활산 고야촌-임천부 등이다. 고려 태조 5년(천복 5년)에는 신라 노례왕이 명명한 이들 6부를 다시 개명했다.

일연은 "지금의 고려 풍속에는 중흥부를 어머니, 장복부를 아버지, 임천부를 아들, 가덕부를 딸이라 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경순왕이 935년에 고려 태조에게 귀순한 이래 이들 4부 역시 효성스런 가족처럼 단군조선을 이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 귀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닐까. 신라 개국 초기 이들 6부의 조상들은 3월 초하루에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우리들은 위에서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방자해 제 마음대로 하게 됐소.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소."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에 비치는데 흰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붉은 알 한 개(혹은 푸른 큰 알)가 있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는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 아이를 동천(東泉)에서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광체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 졌다. 이 일로 인해 그를 혁거세(赫居世,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왕이라 했다.

그의 왕비가 되는 알영(閼英) 역시 같은 날 사량리 알영정(閼英井) 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는데 모습과 얼굴은 유달리

사국은 병립 후 각국 수많은 전쟁했지만
전쟁과정서도 한민족은 종교적 심성 지켜
세력의 균형은 임나가야 해체로 비롯돼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北川)에 가서 목욕을 시키자 부리가 떨어졌다. 서라벌의 혁거세왕은 알에서 태어났고 알영왕비는 우물에서 태어났다. 혁거세설화와 주몽설화는 '난생'(卵生)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며, 북부여 해모수의 부인인 유화와 서라벌 알영의 탄생은 '수생'(水生)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일연은 주석(割註)에서 해설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서술성모(西述聖母)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선도성모(善桃聖母)를 찬양하는 말에 '어진 이를 내어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음은 이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 또한 서술성모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는가"라고 했다. 혁거세 설화의 천마와 붉은 알 및 알영 설화의 계룡과 닭의 부리는 이들을 토템으로 하던 부족과의 연관성을 암시해 준다.

3. 사국의 통일

사국이 병립된 이래 이들 네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해당 군주들의 영토 확장의지는 강국이



신라는 삼국을 통일 하면서 전쟁의 윤회를 근원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었다. 사진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인 국보 제28호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

되는 지름길이었지만 전쟁에서 진 나라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요동의 마한을 병합하고 요서지역의 부여를 아우른 고구려는 만주와 반도에 걸쳐 대제국을 경영했다. 특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에 이르는 시기에는 강성대국을 경영해 주변의 후연과 백제 및 신라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백제 역시 근초고왕 때는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살해할 정도로 강성한 대국이었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서 제철을 생산하며 왜열도까지 경략했던 철기제국이었다. 가장 약했던 신라는 법흥왕과 진흥왕 대에 고구려 연합군과 가야-백제-왜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가야를 합병했다. 뒤이어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뒤 삼국을 통일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헬 수 없는 인명이 살상됐다.

사국의 전쟁 과정에서도 한민족들은 저마다의 종교적 심성을 지녀왔다. 고조선 이래의 풍류를 기반으로 한 하느님 신앙과 신선(산신)신앙과 고목신앙과 무속신앙은 끊이지 않았다. 이들 풍류사상을 통섭한 불교는 나라의 정사와 교육을 뒷받침했으며 전쟁으로 죽은 영가들을 천도했다. 아마도 당시의 통치자들은 우선 한반도와 만주 전역 및 왜열도에서 중국을 의식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고민했을 것이다. 사국 혹은 삼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근원적으로 멈출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고구려도 백제도 가야의 통치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신라의 통치자도 대대로 '덕업일신 망라사방'의 기치를 내걸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힘의 균형으로 인한 전쟁의 윤회를 무너뜨리고 삼한을 일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국의 일부 통치자들은 왕조와 권력의 지속을 위한 사국(삼국)의 현상유지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 이래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닌 통치자는 얼마나 됐을까? 물론 사국 혹은 삼국의 통치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국(삼국)의 힘의 균형은 반도내 임나가야의 해체로부터 비롯됐다. 신라의 법흥왕과 진흥왕은 반도내 가야를 합병하면서 강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의 통일전쟁을 시작했다. 삼국통일 전쟁 당시에 이들 삼국인들 사이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있었으며 당(唐)이 '외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조선의 해체 이래 엷어졌던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오히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비로소 다시 복원된 것은 아니었을까.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의 윤회를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현상유지 의식이나 힘의 균형 의지를 깨뜨리지 않으면 아니 됐을 것이다.

김춘추(태종무열왕)와 김유신(흥무대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의 삼국통일 의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로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반도의 제일 남단에 자리해 있으면서 '아랫배에 숨을 모으고' '장판때를 묻히며' 정진했던 신라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이들이 벌였던 삼국 통일전쟁은 결국 고조선의 해체 이후 처음으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불러 모은 첫 번째 계기였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삼국통일이 불완전했기에 후삼국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통일신라에 이어 다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고려후기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바람 앞의 등불이 됐을 때 일연은 〈삼국유사〉를 찬술해 기이편에 '고조선' 조목을 편입시킴으로써 또 다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오늘날의 국가 개념 아래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을 불러들인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김유신이 당나라 총관 이적(소정방?)의 교만함을 보고 백제(고구려)보다 당을 먼저 무너뜨리겠다는 기백을 보였던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북한을 통합하고 다시 '한민족' 의식을 회복할 날은 언제일까.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심리상담소장의 자발성향상
4주 학습캠프
031)768-4303
학습 + 명상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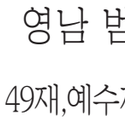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새해 해맞이
자유명상, 정초기도, 참선
황토방 토굴에서
장기 요양 휴식
(동해안 양양 왕금산 현불사)
033)671-6280
010-8317-2520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진다
- 법구경-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기도스님이나 공양주 인연 기다립니다
(대구)
011-825-3181

천도재 빙의퇴마
수시 접수 중
태중영가천도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010-5685-2229
전화주시면 즉시상담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서귀포시)
010-9866-15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2)954-9848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분(40~50대 초반)
도 모십니다.
(진주, 밀양)
055)752-6606
055)356-6605
010-8390-6654

영적 기공치유
각종 난치성,상기증,우울증,
중풍, 파킨슨씨 불면증
의료기공 3주완성
기공사로부터 치유기공을 전수
받으면 누구나 치유사가 될수 있다
부산 안락동 태백정사
051)722-6426
011-9785-642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청담,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빙의대화 퇴마
다양한 방법의 퇴마비법 전수
사주로 귀신 찾는 법
귀신병, 신병, 대화 및 치료법
전생을 통한 치료 및 빙의 찾는 법
인연되시는 몇분만
저렴한 보시금으로 모십니다
* 귀신병, 신병 치유도 해드립니다
010-5472-5928
031)666-7732 경담 합장

천령개 기도?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9491-9227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보시금은 상담 후
상여금, 퇴직금, 개인방사 지급
031)471-5978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불 사 안 내
소승은 관음전 불사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해서
백일기도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설판하여 주실분에게는 경봉, 월하, 일붕 큰스님 글씨나
청광화백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는
평생 기도 축원하여 드리고 권선하여 주시는 분께는 1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 덕왕사 주지 원각 합장
054)853-3855. 010-9890-1237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50세 초반 마음공부하는 재가여성입니다.
불법을 만나 20여년 공부하여 손금,철학,
생활풍수 봅니다.아픈사람,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치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고 장소를 제공하시거나
보시하실 분 환영합니다.임진년 새해
운수 풀어드립니다. 민간요법으로 액운
을 막고 행운을 잡아보세요.
(부산에 계신 분 전화요망)
010-3636-6980

경 고
이사람을 찾습니다
법 명 : 법운법정
속 명 : 김학만
화엄사 문중
속히 연락 바람
053)655-8404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응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직 인 무 효 공 고

● 대구시 남구 대명6동 산221-10
재단법인 선학원 보문사

상기 (재)선학원 보문사 사찰 직인은
2011년 12월 13일부로
새로 개인되었으며, 2011년 12월 13일
이전의 보환스님 사용 직인은
일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재단법인 선학원 보문사
신도회장 관음화(성부자) 합장

대 출 안 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공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승복·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불자정보 26 | 867호 | 전면광고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 요사: 13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사 : 12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7평
- 요사 : 70평
- 부지 : 61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부지: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5천만원

해운대 바다근처 토굴

- 대지: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총가액: 9천 5백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010-9006-5619

도 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32)519-110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사 찰 안 내

-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 여 엘리베이터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포 교 원 안 내

-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포교원
- 바닷가 전망최고
- 6층법당 약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깨끗함
- 비인수시 시설비 없음
- 일부 시설은 두고감

017-588-02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원주 시내 중심가, 최상의 요지 , 주위 주차공간 많음
- 안채, 법당, 스님방1, 화장실, 거실
- 별채, 산신각, 주방, 방1, 화장실
- 넓은 마당, 개원1년 되었음,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2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4028-362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사찰

- 평수 1천평, 대지 7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60평
- 스님 기거하는 1,2층 60평
- 산신각 2평 반
- 가액: 5억 5천만원

010-9416-77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종합운동장앞
- 평수 50평
- 4층건물에 4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 양도

010-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양산인접
- 부지 3000평
- 시설 : 대사찰시설완비
- 특징 : 산사음악회, 큰행사하기 편리함
- 가액: 16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69-227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7140-1204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3층건물의 3층, 평수 35평
- 옥탑방 포함, 옥상 사용가
- 시장입구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5607-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2분거리
- 자연녹지 약 300평
- 하천부지 약 300평
- 법당, 요사채 90평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2728-1114
011-574-330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지하 약 50평
- 법당 20평, 주지방1, 공양간
- 세탁실1, 샤워실1, 창고1
- 칸막이 되어있음
- 가액: 7천 5백만원
- 월세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시설비 없음

011-279-35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500만원,월1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선원 안내

- 위치: 대전 시내 요지
- 대전역 중구청 사이
- 건물 3층
- 법당1, 방2, 부엌 넓은 홀
- 실내화장실 2, 다락방1
- 깔끄, 약 50평
- 삼불, 집기 살림 可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1200만원(조절가)

010-2460-6906
016-606-5658

사찰(급)안내

- 위치 : 국립고원 유달산 내
- 평수 : 200여평
- 특징: 전설과 영험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6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포교원인수하실분

- 위치 : 부산시북구화명동 지하철3번 출구앞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7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9230-309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방5, 심야보일러
- 가액: 2억 1천만원(조정가능)

011-769-7029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
- 사찰 내 토굴스님, 보살님께 세 놓습니다
- 황토방 단독 20평
- 보증금 1천 500만원

010-9036-2131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학리
- 대지 416평
- 가액: 8천 5백만원

010-7770-105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 평수 100평, 방4칸, 주방, 욕실
- 사글세 1년 200만원
- 평수 100평, 방3칸, 주방, 욕실
- 가액: 전부 합 초천오백만원 (가격조절가능)

010-9370-7513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솔내과 안
- 1층건물 사용 총면전 약 50평
- 법당1, 방2, 거실1, 부엌넓음,
- 뒷마당 및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불사 1000만원
- 더 넓은 도량으로 이전

010-4134-4535

토굴(급)안내

경북 영양 큰 마을에서 산쪽으로 500미터 더 가면 남향 건물 18평 대지 47평 군불때는 방 즉시 입주가능 모든 생활조건 양호함 주인직 가액 1700만원

010-8899-8899
054)682-888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 , 소답시장 앞
- 평수 : 52평. 2층
- 방3, 주방1, 화장실1
- 보증금 :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약간, 비구니 스님 적합

010-8602-3990
010-8211-85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 마산역에서 3분거리
- 시장안
- 전세 500만원 월 16만원
- 시설비 500만원
- 전세 조정가능

010-5042-1003

도심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9사단 근처)
- 대지 300평 3층 상가 내, 2층 45평.
- 큰 법당, 방1칸,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 양도 1억 9천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4668-655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왕곡면 (광주에서 차로 40분거리, 혁신도시에서 15분)
- 앞 3면 확 트임, 뒤는 대밭
- 법당 1, 방 3개, 주방(큼)
- 평수 : 200평
- 가액 : 6천 5백만원(상담후 조절가능)

061)330-5320
010-2627-4702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지정면
- 간현유원지부근
- 사찰 3천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767-41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시내요지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모든시설 A급
- 시설시 1천만원

010-5258-1147

사찰(암자)안내

- 풍수적, 지리적 환경 매우 양호
- 진입로 포장완료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등 , 기도환경 완벽
- 청정지역임 (지리산 천왕봉 바로보임)
- 양도가액: 2억 5천만원
- 위치 : 경남 함양

010-4569-271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채
- 가액 : 6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건평 : 90평
- 시내중심가
- 가액 : 7억2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
- 계곡 있고 대웅전 27평,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토굴
- 아주 완벽한 사찰 옆으로 등산로 끝까지
- 도로 멋지게 놔있음
- 현공풍수학적으로 왕향왕산임(최고좌향)
- 가액 : 7억 9천(절충가능)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외부단청, 법당 내부 단청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부산시내에서 가장 경치 좋은 절, 옆에 산세도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11억 (조금 절충)

010-2503-0776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곤지암IC(경기도 광주시) 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창수면
- 칠보산 내맥의 정정 기도 도량임
- 대지 320평 , 임법당, 대웅전
- 큰방2개, 목욕탕 2개, 큰거실 가스, 목재보일러 겸용 , 별채, 큰방4개, 큰창고4개, 화장실 4개
- 노천 산신각 석불조성, 노천 지장석불 조성
- 가액 1억 6500만원
- 농사지을 수 있는 채마전 농지 약 500평 (일년도지 5만원)사용가능

010-9910-5589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433-4193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 총평수 332평
- 법당1, 요사채1
- 현 시세는 평당 90만원이지만 사정상 인연있는 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나 불교단체에 한함

054)631-6770
010-2224-8010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함경 -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긴 어디야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8)



삽화 · 김흥인

정신을 차린 무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보랏빛 하늘이었다. 노인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되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이곳을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었다. '왜 또? 돌아가고 싶은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실망감 때문일까. 무니는 전에 없던 피로와 졸음을 느꼈다. 좀처럼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힘든가보구나."

무니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만 살짝 돌렸다. 노인과 아샹티가 나란히 서서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걸 마셔 보렴."

그가 손에 들어 보인 것은 조그만 물병이었다.

"그게 뭐야?"

무니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괴로움이 없는 연못에서 조금 덜어온 물이란다. 너도 언젠가 가보지 않았었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녀석, 말할 기운도 없어 보이더니. 아무튼 질문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걸 마셔 보려무나."

무니는 노인이 건넨 병을 받아들어 물을 한 방울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혀끝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단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온몸으로 느껴졌다. 몸으로 맛을 느끼다니, 확실히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다. 무니는 피로가 풀리면서 서서히 정신이 맑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리던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어떠냐? 한결 기분이 상쾌해졌지?"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여기가 당신의 기억 속인 게 확실해?"

노인은 무슨 뜻이냐는 듯 무니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곳이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면, 당신이 이 장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건가 해서."

무니는 상대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말해봐. 여긴 어디야?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지? 이번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곳이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단다."

무니의 성화에 노인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러니 네 말처럼 나의 기억 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무니는 그가 자신의 말을 순순히 인정하자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럼 여긴 어딘데?"

"이곳은 내 머릿속에 언제부터인가 꽤 자주 떠오르는 곳이란다. 처음엔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아주 오래 전의 기억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장면들이 조금씩 늘어나더구나. 어떤 날은 금빛 먼지들이 세차게 날리더니, 다음 날은 그 먼지가 커다란 형상을 이뤘어. 바로 사트바 카르만이었지."

그는 여기서 말을 멈추더니 보랏빛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장면들을 되새기는 듯 했다.

"그럼 사트바 카르만이라는 건, 당신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 그건 물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존재니까."

무니는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흠.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 네 머릿속에 '용'이라는 말과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렴. 실제로 본 적은 없더라도 용이 존재한다는 것과 어떻게 생긴 것인지 상상이나 추측은 할 수 있지 않니? 내게 사트바 카르만도 그런 것이었단다. 본 적은 없지만, 기억은 하고 있던 존재였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지는 묻지 말거라. 그건 나조차도 설명하기 힘드니까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 '저것이 바로 사트바 카르만이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거란다."

"바다처럼? 내가 바다를 처음 봤을 때 그랬어. '아. 이게 바로 바다로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

노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지."

무니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봤다. 금빛을 거의 잃긴 했지만 여전히 고운 모래 먼지들이 쌓여있었다. 그는 바닥을 툭툭 치며 작은 모래바람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여긴 당신의 꿈속 같은 건가?"

"그건 아니야. 나는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니까. 물론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상상이나 환상, 꿈같은 것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기억이나 예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 중 대부분이 기억이긴 하지만."

"하지만 여긴 기억 속이 아니라고 했잖아?"

놀란 무니는 바닥을 차다말고 노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당신의 예지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뜻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긴 분명히…."

무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고 말했잖아?"

"그래. 그건 틀림없어."

"예지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의 시작이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 있냐고. 시간은 이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흘렀는데…."

무니는 머릿속이 갑자기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노인을 따라 갔던 기억 속 한 장면에 이의문을 풀기 위한 실마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책이었나?' 무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문득 기억 속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순간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큭!' 하고 웃고 말았다. 그때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표정이 순식간에 잘도 변하는구나."

아샹티의 등을 쓰다듬던 노인이 그런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무니는 이 말에 대꾸하는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여기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면서,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면 말이야. 이건 미래의 모습인 거 아니야?"

무니는 자신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노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노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지한 얼굴을 짓고 있었다.

"'한 세계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 남자가 쓴 책에서 읽었던 이 문장처럼, 언젠가 내가 있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또 다음 세계가 생기는 거라며. 영감도 그랬잖아. 세상의 시작과 끝은 영원한 순환 같은 거라고."

그러나 노인은 아샹티의 등만 계속 쓰다듬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무니는 또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한 말의 절반은 맞고, 그 나머지는 틀렸다고 해야 할 것 같구나."

노인은 이제 다 됐다는 듯 아샹티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며 말했다.

"네 말처럼 이곳은 우리가 떠나왔던 그 세계의 과거가 아닌 건 맞아. 하지만 미래라고 볼 수는 없단다."

"무슨 말이야?"

무니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의 눈을 쳐다봤다. 노인은 아샹티를 쓰다듬던 손을 소년의 머리 위에 올리며 말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나도 처음엔 이곳이 기억의 한 장면이겠거니 했단다. 이미 사트바 카르만이라는 존재와 금빛 먼지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점점 늘어났어. 게다가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이곳이 맨 처음의 시간이라면, 네 말대로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싶더구나. 그래서 나중엔 예지력에 의해 떠오르는 미래의 장면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런데 왜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나의 능력 때문이란다."

무니는 "무슨 능력?"이라고 되물었다.

"나는 언제든 기억과 현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은 가졌지만, 미래로는 절대로 가볼 수가 없거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예지력을 가졌다고 말했잖아."

"맞아. 시간이 흘러간 이후의 일들을 먼저 알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 미리 가볼 수는 없다는 뜻이란다. 세상의 일들은 언제 어느 때든 바뀌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예측 못할 가능성들이 이곳저곳에 숨어있거든. 훌륭한 예언자라고 칭송되는 몇몇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그 중에는 분명 틀린 예언들이 종종 있어오지 않았니."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긴 어디야?"

"이곳은 '지금 이 순간'의 다음 세계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온 건 시간이라기보다는 공간인 셈이지."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사)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귀의 삼보 하옵고
한국불교계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
결속으로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를
4천만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오며 단결과
화합의 목탁을 울리며 민족의 새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를
봉행함에 있어 시방삼세 제방에 선포합니다.

불교계의 새 미래
◆ 미래의 불교정신으로 뭉친다.
◆ 미래의 민족정신으로 단결한다.
◆ 미래의 결사정신으로 정진한다.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원 일동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연꽃향에 젖은 가야금 소리



신윤복 作 국보 제135호 '청금상련도'. 간송미술관 소장

청금상련도(聽琴賞蓮圖)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 1758~?)은 김홍도(金弘道)와 긍재(兢齋) 김득신(金得臣)과 더불어 조선시대 삼대 풍속화가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그는 풍속화와 더불어 남종화풍의 산수화와 영모(翎毛, 날개달린 새와 털있는 짐승)를 잘 그린 직업화가였다.

청금상련도는 국보 제135호로 지정된 화첩으로 오세창 선생이 생전에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이라고 표제를 써붙인 30폭으로 이루어진 풍속화도첩이다. 지금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어느 골동품상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찾아온 귀중한 화첩이다.

화첩의 크기는 28.2㎝×35.2㎝ 정도로 양손으로 덮으면 그림의 상당부분이 가려지는 작은 화첩이다. 조선중기 풍속과 문화전반에 대한 엄청난 자료를 지닌 화첩이라 가히 국보의 풍격을 지니고 있어서 수많은 평론가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격찬을 받는다.

그림의 명칭은 이명(異名)으로 연당야유도(蓮塘野遊圖)라고 부르기도 한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 어느 지체 높은 양반댁 연못가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생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풍류에 젖은 세 고관(高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속 세 인물의 허리띠를 통해 관직의 고하(高下)를 판단할 수 있다. 두루마기에 매고 있는 자줏빛이나 붉은 색 띠로 보아 당상관으로 보인다. 직급이 낮은 당하관(堂下官)은 파란색 띠, 벼슬을 하지 못한 서생은 검은 띠를 맨다는 예규가 있었다. 이를 보면 그림 속 인물들은 상당한 고관으로 궁궐에 등청하여 임금을 마주대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논할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지체 높은 인물들은 풍류와 품격이 뛰어났다. 그러나 FTA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요즘의 관료들은 바빠서 이 그림 속 선조들처럼 여유를 갖고 음악을 들으며, 장죽 담뱃대를 물고,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 보인다.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런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은 서서 기녀와 함께 앉아있는 동료를 바라보고 있고, 제 짝이 서있는 관계로 앉아 담배를 피는 기생 한 사람, 곱돌화로를 놓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양반 한 명,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기생 한 사람 등 여섯 명이 소나무 아래 연당에 홍련과 넓은 연잎이 가득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곱돌화로는 담뱃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니 담배쌈지를 꺼내 필 때 마다 앞에 두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음을 이 그림은 보여준다.

담배는 속가에서는 구름과자라 하여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 연기 속에서 신선의 즐거움을 캐고, 불가에서는 마지(摩旨)라 하여, 부처님께 사시에 공양을 올리어 따끈한 흰 밥에서 오르는 김을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담배는 본래 다년생 초본식물로 남초(南草)·연초(煙草)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남아메리카의 고원이 그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1618년(광해군 10)에 중국 북경(北京)을 내왕하던 상인들과 일본에서 도입됐다고 전한다. 일본산은 남초·왜초(倭草)였으며, 예수교인에 의하여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 했다고 하니 개신교의 역할이 지대한 식물이다.

담배는 사실 위계질서와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도잡지〉에 의하면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 재상이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우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치죄한다고 했다.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겨울 숲



〈부여 무량사〉

겨울 숲을 종종거리던 다람쥐가 잠시 허리를 편다. 숲은 다비를 치렀다. 마른 나뭇가지와 잎들이 다비장의 사리처럼 흙 위에서 식어간다. 숲에 사는 모든 것들이 사리 수습에 나섰다. 사리 한 과 찾았을까. 온 세상을 뒤져 도토리 한 톨 입에 문 다람쥐가 돌담 너머에 있는 법당을 바라본다. 관세음보살.

산문을 나와 겨울 숲을 걷는다. 겨울 숲엔 한 철 주고받은 숲의 법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무와 산새가, 꽃과 나비가, 바람과 구름이, 달빛과 풀벌레들, 이슬과 아침이, 천년과 천년이 주고받은 숲의 언어가 고스란히 있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자연의 언어.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도 지금처럼 산다면 영원히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노을이 발목을 적시고 법고소리 멀어져간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환성지안 선사의 '운을 부름에[呼韻]'

괴로움이라 말하지 말라

壁破南通北 (벽파남통북)
簷疎眼近天 (첨소안근천)
莫謂荒涼苦 (막위황량고)
迎風得月先 (영풍득월선)

허물어진 벽 남북이 통하고
성근 처마 눈과 하늘 맞닿았네.
휑한 괴로움이라 말하지 말라
바람과 달 먼저 맞이할 수 있다네.

조선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 스님은 "마치 전단 향을 옮겨 심으면 다른 물건에서도 다 같이 향기가 나듯 그 당시의 선을 부리고 교를 통달한 이치가 모두 스님의 풍격이었다"는 후인의 평가를 받는 선지식이다. 이 시에는 이러한 스님의 풍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등은 청렴한 수행자의 표상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수행자라고 해 가난을 즐거워 할 사람이 있기나 한 것일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빈곤은 인과(因果)에 비춰봤을 때 어느 한 시대의 유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가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대치이기에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여길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 앞에서 만족하기는 힘들다.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기인하다.

고민이다. 이렇게 일정한 수치로 해결되지 않는 가난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나? 산수 간에 지어놓은 한간 토굴은 벽이 허물어져 사방으로 통한다. 바람 길이 나버렸으며 이엉으로 얼기설기 얽은 처마는 하늘이 한눈에 쏟아져 내려온다. 이쯤 되면 스님의 표현대로 황폐되고 쓸쓸해진 신산함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그러한 것을 괴로움이라 여기지 말라고 한다.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맑고 밝은 풍월(風月)을 누구보다도 먼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긍정의 힘이다.

스님의 긍정적인 시선은 통(通)·근(近)·영(迎)의 시어선택에서도 묻어난다. 이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처한 현실에서 지금보다 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낳게 하며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로해 주고 행복을 가져다준다. 선교를 두루 겸비한 스님의 법해(法海)는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봉명재(奉命齋) 기도 안내

깨달음 빛의 축복
운명의 대전환

부처님과 화엄성중 104위, 모든
제불보살님을 모시고 빛의 축복을 받아
어둠을 지우고 소원을 밝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바르고, 빠르게 성취시키는,
운명을 새롭게하는
빛의 의식입니다.

봉명재는 살아계신분들을 위한,
각자가 타고난 운명에서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보완해주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기도 접수상담 -
033.434.7232 (종무소) / 010.6255.6914

빛의 성지 여래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대행 스님

사람이 좀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마음을 내야 합니다

청주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명 깊습니다. 먼저 누구나가 다 왜 각자 자기 뿌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청주에 오니까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지만 생무지인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죠. 나무들을 보면 모습은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지만 뿌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나무들의 뿌리가 말입니다, 꽃나무든 버드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각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잎새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움죽거리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 형상을 믿고 말입니다, '형상을 믿고' 라는 말은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상대를 믿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네들한테 옷을 해 주고 밥을 해 주고 절을 지어 줬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복이라고 그러느냐? 내 나무는 내 뿌리하고 정맥 동맥이 상통하듯 그렇게 돌아갑니다. 뿌리와 나무가 위에서는 공기, 태양,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에서는 땅의 지기와 철분과 황분과 수분 모두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겁니다.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다른 한쪽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물질세계의 한쪽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세계 50%가 부족하죠.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동맥이 있는데 정맥이 없다거나 정맥은 있는데 동맥이 없다거나 이런다면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렇듯이 내가 내 뿌리를 믿어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뿌리를 믿지 않고 내 나무가 울창한 딴 나무를 보고 '아이구, 저 나무! 저 나무가 저렇게 큰데 나에게 에너지를 좀 주었으면…. 나를 잘되게 했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 나무에서 이 나무로, 이 나무 뿌리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 나무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딴 나무 뿌리가 이쪽 나무를 도와주는 일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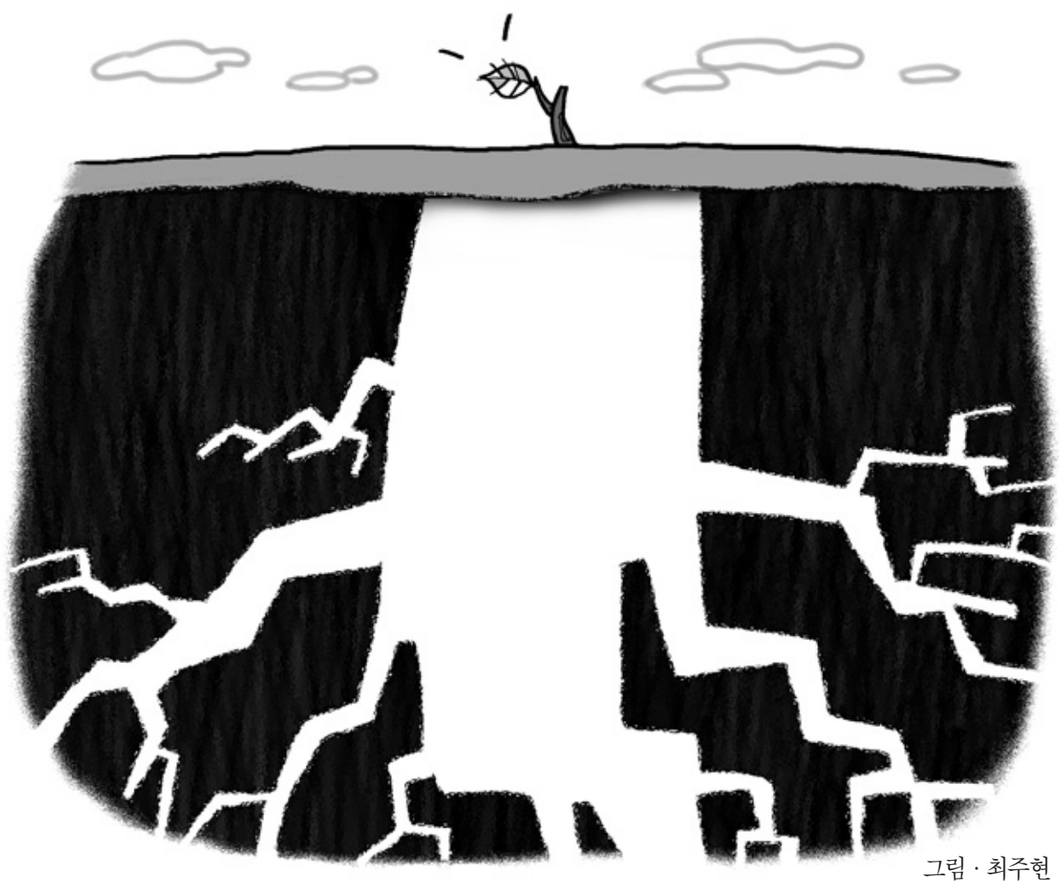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웃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고 싶어하면 조금 줄지언정, 즉 복은 조금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한 철 나는 건데 그 한 철 동안에 어떻게 해야 옳으냐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복으로 하는 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주변 동네에서 쌀이나 몇 됫박 얻어먹을 뿐이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만이, 내 주인공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식구를 다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불이 켜져서 밝게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생명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생명체들이, 의식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한 부분만 파워가 일어나도 지금 그 집합소는 무너져요. 이게 집합소거든요, 나의 집합소!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는 선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과거로부터 생긴 건데 그 업식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뇌다. 의식들이 모두 마구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지요. 그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죠. 알고 보면 그렇게 묘한 법입니다.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안식을 했습니다. '전자에 점안식을 했는데 왜 점안식을 또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속눈이 있고 겉눈이 있습니다. 속귀가 있고 겉귀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살던 나의 자성 부(父), 즉 지금 나를 끌고 다니는 부가 있습니다. 그 자성 부와 현실에 사는 자(子)가 둘이 아니게 눈이 밝아져야 속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세계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도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전체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면서 공심이에요. 그리고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나에게 병고가 있는 게 아니며 업이 있다고 해도 내게 업이 있는 게 아니다, 붙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공동분담으로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이래야 그게 붙을 자리가 있는데, 쉴 사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한 찰나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너그럽고 넓고 크게, 좀더 지혜롭게 마음을 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오던 습과 착에 매달리고, 애정 사랑 욕심 악의적인 애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데 안고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그만 막히는 거죠.

더군다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복으로만 이끌어 가고 따라가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많지만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 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잘 생각하셔서 다른 지원보다도 더 으뜸나시도록 청주에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만이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얘길 했습니다. 부처님 점안식을 함으로써 그 속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항상 통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통해서 갑니다. 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서도 자기 생각은 못하십니까

☞ 29면에서 계속

런데 여러분이 통하는 줄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일체제불과 우리 스님네들의 마음이 첨보되고 종합돼서 한마음으로 눈, 귀, 발, 손 없는 손, 몸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를,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겁니다. 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아주 이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휴, 저건 별로야. 보기 싫어.' 하면 그것도 빨리 시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 밝고 귀 뜨게 해서 발 없는 발 손 없는 손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게끔 스님네들이 환희심을 가지고서 이끌어 주는 그 마음이 저 부처님한테 다 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 부처님을 둘이 아니게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뿌리, 주인공에다 놓고 삼 배를 올리든지 일 배를 올린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급하면 일 배를 올려도 삼 배가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삼정례를 그냥 하시고, 칠정례나 팔정례나 삼정례나 일정례나 다 똑같습니다. 급하면 일정례를,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해도 되고 삼정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래요. 먹고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에는 이거를 해 먹기도 하고 저 때에는 저걸 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수도 먹고 어떤 때는 밥도 먹고 어떤 때는 잡곡도 먹고, 고정되게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마음도 역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안식 얘기 하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간편하죠. 저 부처님 한마음을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으로 통하게끔 하나로 놓고 절을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 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친근히 하신다면 아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움죽거리고 행을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렇게 베푸시니 이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정말 한나절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인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구경하시고 또 본원에 오셔서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시고 이러면서 마음의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 부처님한테 천체를 맡겨 놓았습니다. 또 여기 스님한테는 이끌어 주는 법을 그대로 전달하게끔 해 놓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겁니다.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하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이지마는 하늘이나 땅이나 천지가 둘이 아니에요. 모습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가운데 인간이 있더라! 그 인간이 없으면 천지는 만들어 뭘 합니까? 인간이 없는데 천지가 어찌 있으며 천지가 없는데 인간이 어찌 있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저 오기만 하면 저 부처님이 여러분의 애고를 불에 태워 줄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사를 지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공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공양 한 그릇을 놓고 공양을 올릴 때에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드십니다. 부처님이 한 그릇을 받아서 그 한 그릇을 토해서 다시 중생들에게 내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내리고 받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기를 '바다를 한 찰나에 삼켰다가 한 찰나에 토해서 여러 중생들한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어서 정맥 동맥이 내려오고 올라가듯이, 공양을 올리는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천지를 다 먹이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는 겁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사를 지낼 때 찹쌀로다가 떡 한 그릇을 해서 놓고 향, 다기, 꽃을 놓고서 그냥 지내라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 영령 혼백들이 들어오면 벌써 혼백을 봅니다.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상에다가 잔뜩 차려 놓곤, 얼마를 내놨는데 얼마치 물건을 샀다는 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상 차려 놓고는 '이거는 얼마 들여서 사 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렸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 조상 영령들한테 고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응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입니까? 음식만 먹으러 다니게.

그러나 이 떡 한 그릇이라는 건 그냥 떡이 아닙니다. 아주 천체가 먹고도 남을 마음의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심으로 공양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놓고서 한다면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에 착 들어와서 볼 때 아래 위도 터졌고 사방도 터졌고 천체가 내 것 아닌 게 없어요. 혼백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냥 전부, 천상세계가 그냥 전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게 그냥 확 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밖에요. 그런데 상에다가 몇 알갱이 차려 놓은 고것만 보고서 한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 '어이, 너희들은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지마는 어항에서 사는 고기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살아요. 인간은 그거를 답답하게 보지마는 붕어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어항 속에 있는 붕어를 보면서도 자기 생각은 못합니다. 어항 속의 붕어만 보지요. 하하하…. 자기가 지금 어항 속에서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재하면서 살아야만 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항 속에서 발을 뽑아야 하겠기에, 세세생생에 그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됐다가 짐승으로 됐다가 독사로 됐다가 개로 됐다가 돼지로 됐다가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그러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과거의 네가 저지른 거니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이 돼서 현실로 팔자 운명 애고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놓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흥! 거기서 저지른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다 놨을 때에,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다 놨을 때에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재사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지마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스님! 그냥 상 차리지 않고 재사 지내 주세요." 그러고는 갖다 놓죠.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 본래 그냥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하하하! 아, 세상만사가 다 차려져 있고, 종합 그 뭔가?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물건이 그냥 뭐, 가질 거 못 가질 거 할 것 없이 다 있고 이 세상천지 우주 세계에 전체 그냥 색색 가지로 늘어져 있는데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참, 이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알아야 자기의 그 조상 영혼들을 대대적으로 천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할 것 없이 영들이 셋씩 넷씩 들었다고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그때는 미꾸라지 새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마음공부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한 방씩 줬고 마음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팽개쳤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아, 이 맛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들을 잘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덤빈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성을 들이려고 물건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줬죠. 다 나눠 줬으니 펄펄 뛰고 길길이 뛸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요. 요만한 플라스틱 대접인가 뭐 그거에다 담아서 죄 나눠 주고는 "야! 오늘 시식을 참 잘 지냈다!" 아, 이러고 나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펄펄 뛰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서에서 순경 불러온다고. 그래서 내 말이 그랬어요. "불러 오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시식을 잘 지내서 좋구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소를 하나 얘기를 하나, 염불을 하나 해 주길 하나, 아무것도 없이 아니, 다 나눠서들 먹어 치워 버리고 선 이러니 이런 땡땡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그랬는데 어머니를 복 패듯 하고 그러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데다가 꽃을 꽂아 놨었어요. 그 꽃 한 송이 꽂아 둔 물을 갖다가 쓱 내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여기가 천당이구나. 여기가 승천하는 곳이구나.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아,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비비더니 그러고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때가 많아요.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많더라구요. 미친 짓을 해 놓고는 나한테 와서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요. 번연히 사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돈을 갖다 넣고는 인제는 집도 절도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 그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한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게 살라.' 또는 '우연히가 없다. 이건 절대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인제 재사 지내는 그 뜻도 대충 아시겠죠? 한 상만 차려 놓으면 한 상 거리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준다면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어요. 그 혼백의 조상들이 어디 아니 가는 데가 없이 갈 수 있고 어떤 자리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이지 승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스님네가 재사를 지내는데 옹졸하게 그렇게 지내 주느니 저렇게 지내 주느니, 차려 주지 않느니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차려 준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발짝 떼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물 밥 찌개를 먹지, 승천해 있는 사람이 왜 찌개 밥을 먹습니까? 먹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감지하고 바다를 마신 거와 같이, 또 바다를 토함과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시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세계의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거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전체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수행의 확신과 회통을 위하여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태고종 前 부원장

현재 한국 불교계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행(修行)과 관련한 문제는 성불확신(確信)과 방편회통(會通)의 부재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가운데 수행을 가장 중요시 하는 종교가 불교인데 수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듣고 읽었던 중국과 한국의 큰스님들의 수행법에 관한 법문은 참 묘하다. 인류의 큰 스승이며 불교의 교주인 붓다의 수행법인 그침(samatha.止)과 살핌(vipasana.觀)을 여래선(如來禪)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사선(祖師禪)의 아래에 배치하고 혹은 외도선(外道禪)이라고까지 하였다. 활구(活口)를 참구하는 수행자의 입장을 강조하다보니 화두(話頭)를 부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현상(phenomena)과 법칙(law)을 살피는 초기적 방법의 묵조(默照)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물론, 당시 조동종(曹洞宗)의 지도자들과 관련한 것이기는 하다.

또, 얼마 전 있었던 어느 모임에서 '수행의 이력과 인격이 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불교 수행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 수행을 진행해 감에 따라 내 속에 있던 오염원(汚染源) 즉 나를 부처되게 하지 못하고 중생되게 하는 요인을 없애가는 것이다. 그것은 스승의 인가도 가능하지만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십 년 수행을 했는데도 인격의 향상을 경험하거나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불확신의 부재로 이어진다. 문제의 원인은 간화선 수행자나 지도자들의 전통인 입실면수(入室面授), 거량(擧量), 조참석취(朝參夕趣)등의 과정을 통해 행해졌던 수행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 및 인가(認可)하는 전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기불교의 사마타나 위빠사나 수행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 단체의 수행법을 제외한 곳의 수행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들은 붓다의 말씀을 담은 경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도론을 나름대로 활용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대승불교와 간화선(看話禪)은 불교가 아니라고 한다. 나(我)와 내 것(我所)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시간 따라 변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정체성도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내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아(無我)사상이다. 제 뜻은 존재 없음(無所有 즉 無有)에서 출발한 비아(非我)가 맞다. 이 붓다의 가르침이 중국의 도교사상과 어울려 무아(無我)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승에서 참나(眞我), 불성(佛性) 등을 강조한다고 해서 불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붓다의 가르침도 원음 그대로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된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할 때 붓다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

이러한 혼란과 대립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먼저 붓다의 가르침을 시대적으로 활용한 가르침들이 붓다의 길로 인도한다는 성불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고 선언하였으며, 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노력한 데 있다.

이는 달마 대사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 혜능 대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해골 물을 마시고도 깨달았다는 원효 대사나, 염불하면서도 마음만 챙기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한 태고 대사도 또한 같다. 지극한 사랑이 곧 진리라고 읊은 만해 대사 등 모든 본분납자의 가르침에서 일상생활을 떠난 진리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남방의 초기불교에 입각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지도자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회통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알아서 성불을 위한 수행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회통하도록 평생 노력하며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단을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승자독식의 세계, 이대로는 안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런 정부가 양극화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기구가 '동반성장위원회' 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전임 정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기업과 각종 경제이권의 수혜자들로부터(특히 보수언론, 경제신문)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지원사격을 하는 등 모양새를 갖추려 애를 써오면서 12월 13일로 출범 1년을 맞이했다.

1돌을 맞이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초 극심한 논란을 야기했던 '이익공유제' 를 관철시킴으로써 스스로 성대한 잔치상을 준비했으나 예상대로 대기업 측 대표 9명이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전원 불참함으로써 찬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됐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기도 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정부는 감세정책을 필두로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정 정도 제한되었던 대기업 규제를 꾸준히 완화시켜 왔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규모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과도하게 커진 대기업은 이제 정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공룡이 되어 버렸다. 하물며 정권 말기에는 오죽하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반드시 '이익공유제' 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로 제기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실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 만신창이 된 정운찬 위원장의 논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가 관철되어야 할 중요 이유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인하(소위 CR)를 들면서, 과도한 납품가격인하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인하는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인하와 고용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의 빈부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규모에서 세계 13위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규모는 세계 7위의 지위에 올랐으며, GDP 평균소득 2만 불이 넘는 사회이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처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일상화된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관철된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출주도적인 대기업은 오히려 대사불사의 논리 속에 각종 특혜지원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위 '승자독식' (Winner-takes-it-all)의 논리에 기초하였다. 성과 및 업적지상주의가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혈 짜기는 물론, 운만 따르면 온갖 불법과 탈법도 능력의 잣대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니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들어설 여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의 반대 논리는 간단하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의지를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익공유제는 시장논리에 위배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대기업의 이익에 민감한 경제신문과 경제기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에 의해 유포된다.

그렇다면 소위 '숨은 강자' 로 알려진 강한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보유한 독일, 이탈리아 등의 대기업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조금 장사가 된다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침투하지도 않으며, 협력관계도 수직적 강압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승자독식은 한 순간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사회구조의 기반을 침식하는 순간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봐야한다.

15일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45.3%에 달한다고 한다. 확실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승자들이 말하는 논리 즉, 비용의 문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社說

새 종정 스님과 마음 닦는 수행

조계종에 새 정신적 지도자가 탄생했다. 12월 14일 조계종의 최고의결기관인 원로회의는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를 추대했다. 새 종정 탄생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경합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단독 추천돼 곧바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진제 대종사는 추대 직후 "산승은 앞으로 우리 종단의 화합과 수행을 위해 원로스님들의 고견을 받들 것이다.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이자 조계종 본체인 간화선을 널리 진작하는데 매진하겠다"며 종정직을 수락했다.

진제 스님은 '남진제 북송담' 으로 회자될 정도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1998년과 2000년 무차선대법회, 2009년 백고좌대법회, 2010년과 2011년 종교간 평화대화 행보에서 보이듯 조계종 수행 본체인 간화선풍의 진작을 위해 일생을 매진해 온 선승이다.

이 분의 말 한마디는 지혜를 드러낸 금강저요, 대중에게는 삶의 지표와 같다. 새 종정 진제 대종사는 수락사에서 '마음 닦는 수행' 을 강조했다. 간화선을 수행해 본래면목을 체득한다면 누구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진제 스님은 소감문 말미에서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요 진리의 전(廛)을 거두어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大智如愚人莫測 收來放去亦非拘)"라는 게송을 설했다.

새 종정 진제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불자들을 비롯한 유정·무정물 모두가 지복(至福)의 평안을 얻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려면 마음 닦는 수행이 생활화돼야 한다.

이기영 박사의 보살운동

불교의 사회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속화만 경계한다면. 유마 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말은 불교가 왜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하는가를 반증하는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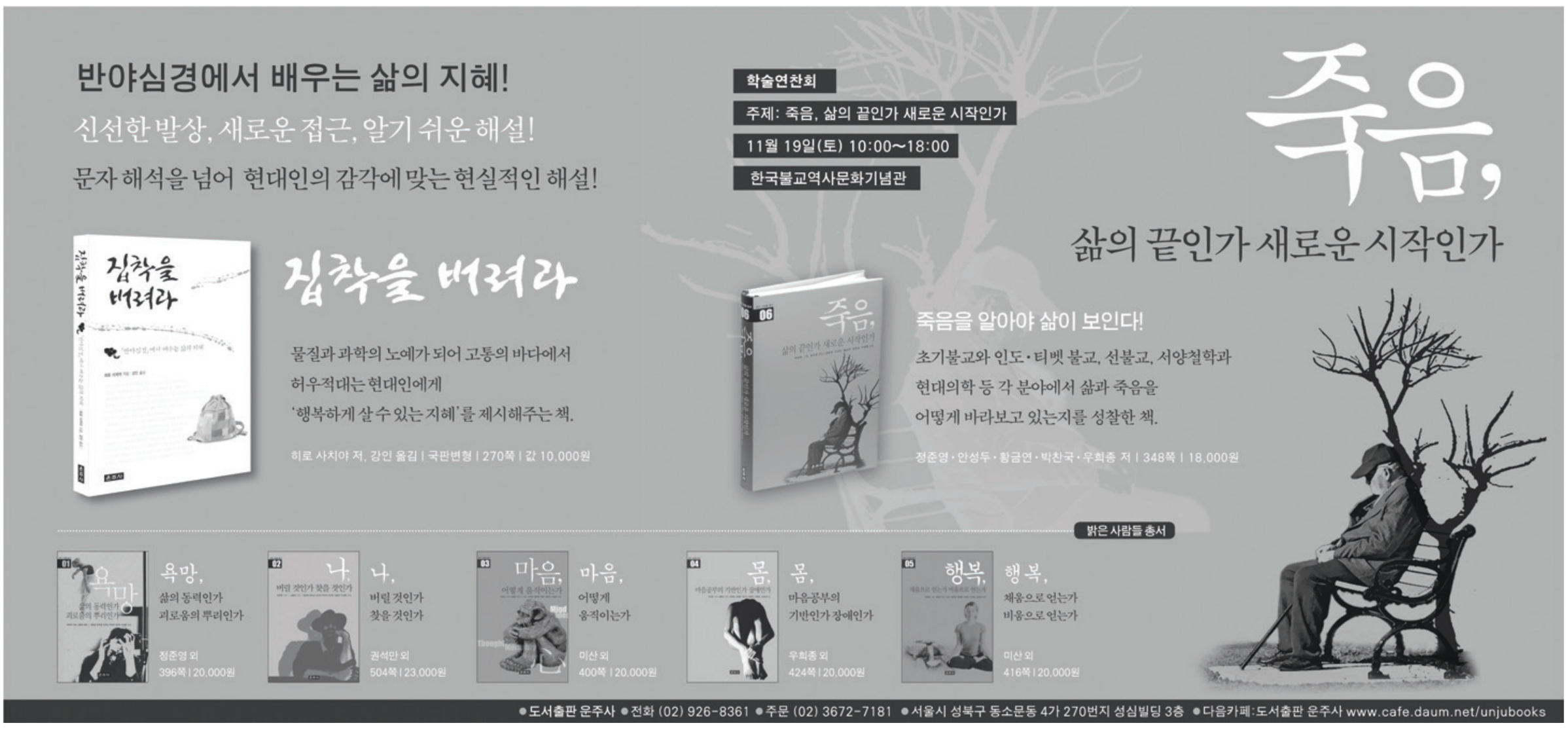
불연 이기영은 원효학 전문가였다. 그가 입적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그의 가르침은 한국불교연구원과 그 산하단체를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설립자의 유고와 동시에 쇠락의 길을 걷는 것과는 대비된다. 불보살의 가피도 있겠지만 불연이 보살운동을 제창했기 때문이리라.

참여불교운동가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로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아웅산 수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평화와 행복, 인권을 말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 여성해방, 농촌빈곤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불자들이 많다.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맹목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종교 역시 아니다. 올바른 진리인 법을 알지 못하고 무명으로 인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윤회하는 고통을 수행을 통해 벗어나자는 거룩한 가르침이다. 그러려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만 한다. 불연 이기영은 기복불교가 판을 치던 근현대 한국사회에 원효라는 역사적 인물을 되살리면서 대승보살운동의 기치를 들었다.

불연 이기영 박사의 유지를 이어 보살사상운동이 활발발하게 일어나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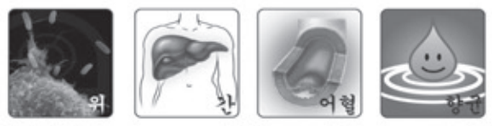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恒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지적)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 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은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서울에 가서 어머님께 친욱 권했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준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갈수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규정등록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